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3월 22일(음력 2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570 호

‘한글대장경’ 등 원스톱 서비스 된다

동국대 ‘2006 지식정보자원’ 선정

<한글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 <속장경> 등을 인터넷상에서 원문과 한글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동국역경원이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6 지식정보자원 지정’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전산화와 불교 원문 자료의 온라인상 원스톱 서비스가 향후 4년 안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2006 지식정보자원 지정’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식정보자원 분야인 역사문화, 교육학술, 산업경제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의됐으며 총 41개 기관이 선정됐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과 동국역경원이 올해 지급받게 될 보조금은 5억7천9백만원이며 5년간 약 20억원이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동국역경원 최철환 편집부장은 “이번 DB구축 작업을 통해 역사적 · 종교적으로 귀중한 불교자료를 영구 보존 및 활용할 수 있게 돼 한국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구축사업’을 제안한 고려대장경연구소도 이번 ‘2006 지식정보자원 지정’ 사업에 선정돼 6억4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기존 고려대장경판과 인경자료, 각종 불경 등을 DB로 구축해 유기적인 웹 정보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승가학연구원에 1억 지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정념 · 월정사 주지)가 승가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동문회는 3월 15일 김포학사 3층 교무회의실에서 ‘불기 2550년 제1차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천불봉안위원회’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천불조성 회향식 및 점안식은 4월 26일 오후 2시 육화당에서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문중 등 이해관계 극복해야”

“종책 모임 필요” 53% … “자격 기준 강화해야” 69%

역할에 충실 自評 35%, ‘선거 부패’ 의견 절반 넘어

본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설문, 55명 응답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65%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 때문에 종회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현재의 종책모임이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 도구’로 전락, 종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회의원 선거가 청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은 12%에 불과했으며, 10명 중 7명은 종회의원 자질을 높여야 종회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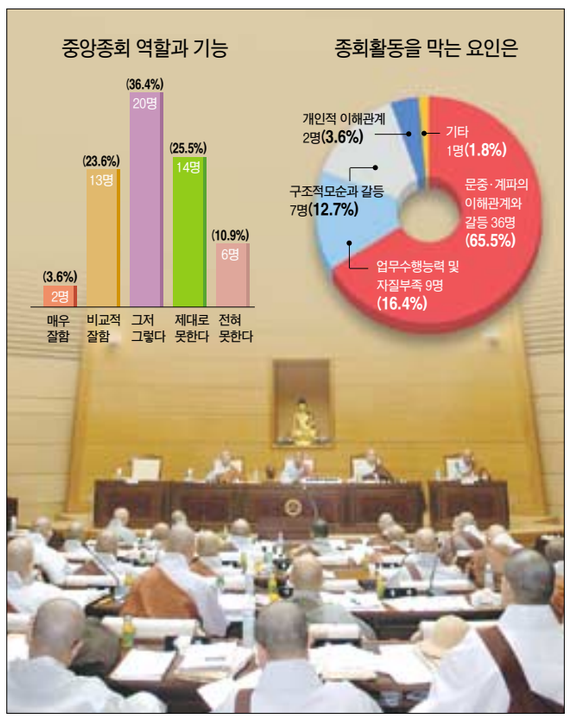
이처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중앙종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설문결과 드러났다.

특히 문중과 계파간의 갈등, 종회의원 자질, 종책모임, 종회의원 선거 등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3월 20일 열리는 제 170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중앙종회의 발전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중앙종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지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현재 자격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직능대표 행정분야 종회의원 1명을 제외한 80명을 대상으로 2월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을 거부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25명을 제외한 55명이 설문에 답했다.

설문은 종회의 역할, 권한, 활동 시 문제점, 종책모임, 종회의원 선거, 재가자의 종회 참여 등과 관련한 8개 항목이다.

먼저 원활한 종회활동을 막는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종회의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부족’(16.4%) ‘종단 내에 얽혀있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 구조’(12.7%)가 그 뒤를 이었다.



권한 매우 크다 36.4%

이같은 인식은 종책모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종책모임이 필요하다’(52.7%)는 견해가 ‘없어져야 한다’(47.3%)는 시각보다 다소 우세했다. 하지만 종책모임이 필요하다고 답한 스님들의 절대다수가 “현재와 같이 문중과 계파에 얽매인 형태라면 없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보임으로써 현 종책모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종책모임은 여당격인 일승회와 화엄회, 야당격인 미래승가회가 있다.

종회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문제로는 ‘종회의원 자격기준(수행력 및 자질) 강화’가 69.1%로 ‘각종회의 운영방법 개선’(14.6%) ‘종회의원 선출 방법 개선’(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는 종회의원들이 소위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돼 있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종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는 편’(25.5%)이라거나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10.9%)는 부정적 응답이 36.4%로, ‘매우 잘하고 있다’(3.6%) ‘비교적 잘하고 있다’(23.6%)는 긍정적인 답변 27.2%보다 높았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6.4%로 가장 많았다.

종회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36.4%)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약간 큰 편’이라는 응답도 14.5%로 나오는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종회 권한이 크다는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당하다’는 견해는 25.5%였으며, ‘약한 편’이라는 응답은 23.6%였다.

재가자 참여 ‘반대’ 우세

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패하다’(30.9%) ‘매우 부패하다’(18.2%)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저 그렇다’(38.2%)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매우 청정’(1.8%) ‘어느 정도 청정’(10.9%)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자의 종회 참여에 대한 중앙종회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종회의원 69.1%가 중앙종회나 교구종회의 재가자 참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앙 및 교구종회 ‘둘 다 찬성’은 16.4%였으며, 중앙종회 참여는 반대하나 교구종회 참여는 찬성한다는 입장은 12.7%였다.

자신의 종회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7%가 ‘제대로 또는 전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매우 또는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 ‘그저 그렇다’가 21.8%였다. 관련기사 4면

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종단화합 여망 실현 … 대화합 조치를”

조계종 종정 법전 · 원로의장 종산 스님 교시 발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원로회의의장 종산 스님이 98년 종단사태로 멸빈된 스님들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종도들의 종단화합과 여망을 실현한 것”이라는 내용의 교시를 발표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종정 스님의 교시를 발표했다.

법전 스님은 지관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자비와 관용으로 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불조(佛祖)의 가르침대로 지계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차제에 종단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등 중징계를 받은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포용하는 대화합 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혀, 사실상 94년 종단사태로 인한 멸빈자들의 구제까지 언급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94년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종단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 변화가 있을 경우 과거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94년 멸빈자 처리는 중앙종회를 통한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총무원이 이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도 3월 14일 “멸빈자에 대한 특별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을 환영하며,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바탕위에 종단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유시를 발표했다.

조용수 기자

금산사 등 관람료 조정

현등사 등은 미징수 요청

김제 금산사 여수 흥국사 등 조계종 사찰의 관람료가 인상됐다.

조계종은 3월 13일 2006년 제2차 관람료위원회(위원장 범여) 회의를 열고 금산사 흥국사 송광사 등 3개 사찰의 관람료를 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산사는 어른을 기준으로 1800원에서 2000원으로, 흥국사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순천 송광사는 어른 단체 관람료를 신설, 기존 어른 개인 2500원이었던 것을 단체일 경우 2000원으로 인하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05년 화재로 소실된 낙산사의 관람료징수를 일시 면제키로 했다.

또 관람료 미징수를 요청한 완주 송광사, 가평 현등사 등은 실태 파악을 걸쳐 다음 회의에서 징수사찰 해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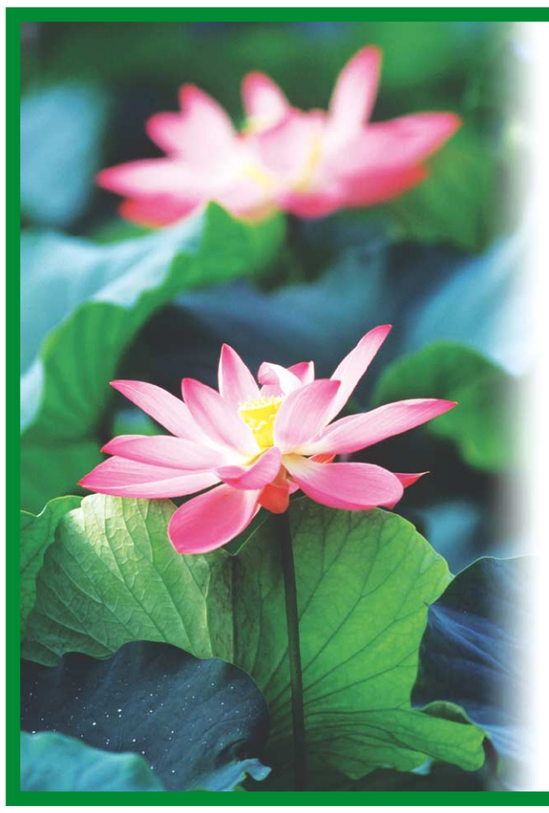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시방세계 9면
행자교육원 회향 축하현장
휴대폰으로 신행 UP 10면
달라진 불미전 23면
채소로 춘곤증 싹! 27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자비광명의 燈 연화연등

부처님 오신 날, 연화연등으로 불법의 향기 만끽하세요.


연꽃에 가장 가깝게 제작된 오색 연화연등 실제 모습

“연꽃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 연화연등의 특징
- 연꽃에 가장 가깝게 제작했습니다.
- 불을 밝히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 보기만 해도 신심이 샘솟습니다.
- 색상이 화려해 장엄등으로 최고입니다.
- 전통과 현대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불자들의 소원을 한송이 연꽃에 담았습니다.

- 제작보급처 : 대 영 사
- 구입처 : 전국 각 불교용품점

“포교·소임 이력 안거에 포함”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주장

“포교·소임기피는 안거수 산정 불합리한 탓” … 우려 의견도

3월 13일 열린 2006년 제1차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지관)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현행 안거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종단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본사급 사찰에서도 7직 소임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 겪고 있어, 총무원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데 따른 청화 스님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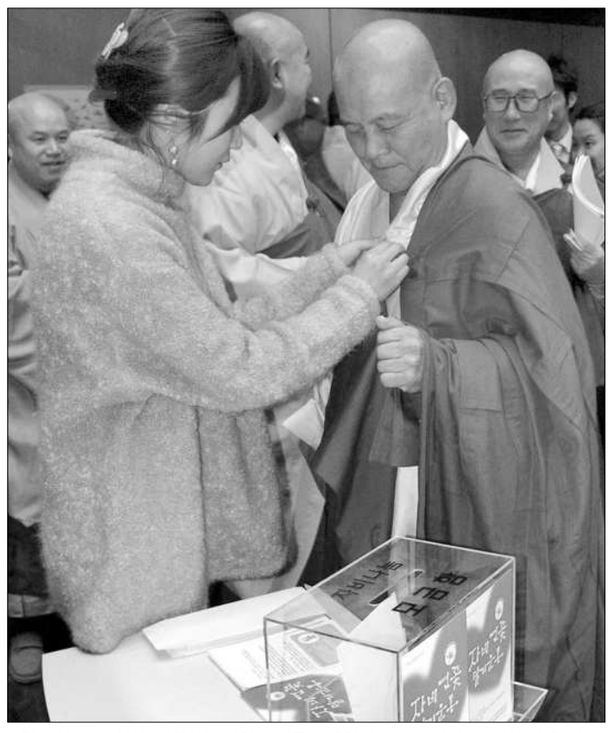
청화 스님은 “스님들이 포교에 나서거나 소임 살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현행 안거수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사찰에서 포교와 소임을 살거나 교육기관 교직자도 별도의 안거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주장은 선원에 방부를 들이지 않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방함록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이력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본사주지회의를 통해 공식 거론된 만큼 총무원 집행부 차원의 종법 개정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선원에서 참선 수행하는 스님 뿐 아니라 포교, 복지, 교육, 기도, 교학연구, 종무, 작법의식, 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님들도 수행이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승랍 10년차 스님들의 3급승가고시 응시자격에 선원의 안거이력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종단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돼 왔다. 예비승인 사미(니)를 포함한 조계종 스님은 대략 1만여 명이지만, 1/5에 달하는 2000여명의 스님이 매년 6개월(하·동안거)동안 안거에만 매달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행과 포교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종단스님들의 고민이 담겨있다. 수행과 포교라는 종단의 양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3월13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마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자비의 연꽃’ 배지를 달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재난구호와 소외계층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이날부터 ‘자비의 연꽃’ 달기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조용수 기자

총무국장 정범 스님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종단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장 법장 스님도 “그동안 각자의 근기에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스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수행이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각 본사마다 재적스님들에 대한 ‘평가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원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간화선 중심의 조계종 수행풍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조용수 기자

“멸빈자 사면에 분노”

도법·수경 스님 성명

조계종이 98년 종단사태로 인한 멸빈자들을 구제한데 대해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과 실상사 도법 스님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법 스님과 수경 스님은 3월 15일 ‘총무원, 중앙종회, 호계원, 법규위원 스님과 사부대중들께 제안드린다’ 글을 통해 “참다운 종단 화합의 길은 승려대회 정신과 결의를 실행하고 오로지 종도의 뜻을 존중하며 종헌종법을 지키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스님은 “종단의 합법적 정통성의 근간인 종헌종법질서가 무시됨으로 인해 끝없는 불화의 불길속으로 달려가는 종단 현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낀다”며 “현 종단 집행부, 중앙종회, 호계원, 법규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과오를 바로잡는 상설적인 특별 대책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조용수 기자

영상포교 진단

28일 포교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은 3월 28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 영상포교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06년 제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 이사장과 우봉규 극작가가 ‘방송에 비친 불교와 방송을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과 ‘한국영화 속의 불교, 그 미래와 방향 사이’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미디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 및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선왕조실록 반환 요청서 도쿄大에 전달

15일 첫 협상, “4월17일까지 입장 밝히겠다”

조선왕조실록 반환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 이하 환수위)와 도쿄대(동경대)측 실무자는 3월 15일 도쿄대 제1소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환수위는 이날 협상에서 도쿄대에 정식으로 반환요청서를 전달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이른 시일 안에 되돌려 줄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도쿄대는 환수위가 전달한 요청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4월 17일까지 의사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그동안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소잔본(燒殘本)이 당초 알려진 46책이 아니라 47책인 것이 밝혀졌다.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정확하게 몇 책이냐는 환수위 측 질문에 도쿄대 도서관 사사가와 사무부장은 “소잔본 46책과 대여한 1책을 포함 총 47책이며 오대산 사고본이 어떤 경위로 일본에 왔는지 자세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는 환수위 간사 혜문, 법상 스님과 노회찬 환수위원(민노당 국회의원), 문만기 실행위원장, 김순식, 이춘희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도쿄대측에서는 사이고 도쿄대 도서관장이 갑작스런 모친상(14일)으로 불참했지만 사사가와 도서관 사무부장과 이시가와 기획섭외 계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은 “지난 8일 도쿄대에 공문을 보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며 “일본측이 4월 17일까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리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포교성과 인사에 적극 반영”

조계종 포교원, 총무원에 권고키로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등록 및 신도교육 등 포교성과를 주지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총무원에 권고키로 했다.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신도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그간 포교원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신도재적사찰 갖기 운동(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의 진행경과를 물었다.

이에 대해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현재 40여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재적사찰갖기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성타 스님은 “신도등록 및 신도교육 등 포교성과를 주지인사에 반영하도록 총무원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총무원으로 제출키로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내달 7일·8일

동화·은해사 산중총회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5월 주지임기만료를 앞둔 교구본사 동화사와 은해사의 산중총회 일정을 4월 7일, 8일로 각각 확정했다. 동화사는 7일 오후 1~4시 봉서루에서, 은해사는 8일 같은 시간 은해사승가대학원 강당에서 각각 산중총회를 연다.

선관위는 또 3월 16일에는 제154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결성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의 활동이 입후보 스님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추대위 명칭을 바꿀 것을 교구선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4월 4일 회의를 열고 동화사 은해사 산중총회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다. 조용수기자

정념·도완, 범여·보원 스님

동국대 이사후보로 추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현해 스님 후임에 정념(평창 월정사 주지) 도완(중앙종회의원) 스님이, 지관 스님 후임에 범여(고창 선운사 주지) 보원(중앙종회의원)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천됐다. 현해·지관 스님의 임기는 올 5월 17일까지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종관위는 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지하 스님 후임에 지하·월우 스님, 종하 스님 후임에 종하·송강 스님, 범산 스님 후임에 범산·천산 스님, 박완일씨 후임에 박완일 최연 씨를 각각 추천했다. 남동우 기자

영배스님 이사승인확정

교육부 항소 포기 따라

영배 스님의 동국대 이사 승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3월 13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 학교법인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7일 동국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배 스님 ‘이사 취임 이행 심판 청구’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역사적 사실·기록 의한 저술”

‘태고종사’ 간행위원회 성명 발표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회(위원장 수열, 이하 간행위)는 3월 16일 ‘<태고종사> 발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료를 갖춰 정중히 질의하면 적절한 응답을 할 것이며, 태고종단과 종단의 조사스님들을 왜곡 폄하하거나, 그리고 학자적 양심으로 저술에 참여한 노학자를 매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행위는 “<태고종사>는 태고종의 조사스님들이 겪고 당한 일들을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의거해 있는 그대로 저술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태고종단과 종단의 조사스님들을 왜곡 폄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태고종사>를 대표 집필한 노교수를 ‘아전인수격이니 역사왜곡이니’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행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의 정통성을 회복해 종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태고종의 사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헌소송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조계종 ‘종단사 왜곡과 종단 정통성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성 스님은 이와 관련, “<태고종사>는 자신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참회없이 조계종에 대한 공격적 문체로 일관했다”며 “ <태고종사> 책임자들은 정화라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당위성을 무시하고 사소한 사건들의 시(是)와 비(非)만 따지는 행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2550(2006)년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의 전통 민족문화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육성하고,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최기관
가.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나. 주 관 :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다. 후 원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불교TV, BBS 불교방송

2. 공모부문 및 규격

부문	규 격	세부사항	비 고
회 화	세로227㎝×가로181㎝(150호) 이내	1. 가로 최대 200㎝까지 가능 2. 액자의 경우 외경 size 크기 임	사경(변상도있는), 판화가능
조 각	높이180㎝×폭180㎝×두께120㎝이내	실내전시 가능한 작품	
공 예	높이180㎝×폭120㎝×두께120㎝이내	병풍의 경우 펼쳤을 때 외경 size 크기임	서각 가능

3.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2006년 7월 14일 현재)

4. 응모원서배부 및 작품접수
가. 원서배부기간 : 2006년 6월 20일(화) ~ 7월 14일(금)
나. 작품접수기간 : 2006년 7월 14일(금) ~ 7월 18일(화) 5일간
다. 응 모 비 : 1점당 50,000원 (1인 2점까지 응모가능)
라. 원 서 배 부 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본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다운로드
마. 작 품 접 수 처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5. 심사발표
2006년 7월 26일(수), 본 종 홈페이지 및 불교신문 공고, 개별통보

6. 시상내역

부 문	작품구분	상패 및 상금	비 고
대 상	1명	상패, 1,200만원	작품구입비포함
최우수상	2명	상패, 300만원	
우 수 상	3명	상패, 100만원	
장 려 상	6명	상패, 50만원	
특 선	00명	상패	
입 선	00명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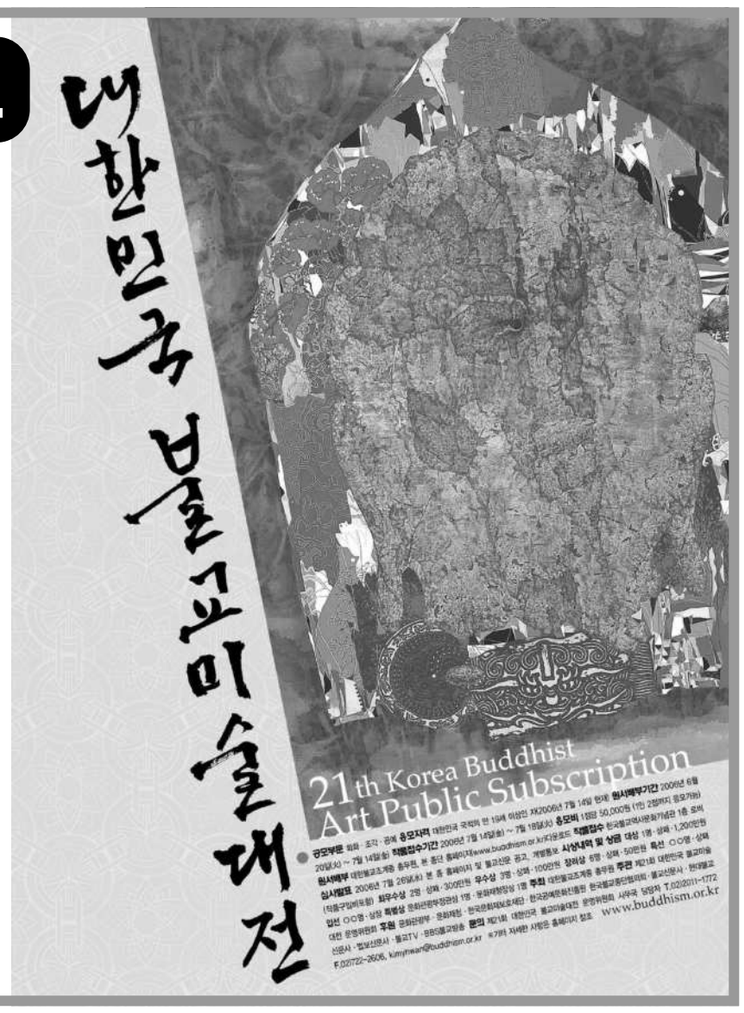
정부기관특별상
문화관광부장관상 1명
문화재청장상 1명

7. 시상식 및 작품전시
가. 시 상 식 : 2006년 8월 30일(수)
나. 전시일정 : 2006년 8월 30일(수) ~ 9월 5일(화) 7일간
다. 장 소 :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내 가나아트갤러리 2·3층

8. 작품반출
가. 낙선작품 반출 : 2006년 7월 26일(수) ~ 28일(금) 3일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 입상작품 반출 : 2006년 9월 5일(화) 12시 ~ 15시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전시관 2·3층
※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출품작에 대한 분실·파손 및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9. 공모방침
가. 응모작품은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의성 풍부한 작품이어야 함
나. 국내·외 미발표작만 출품 가능함.
다. 공동작품일지라도 응모자는 1인으로 함.
라. 작품제출 시 제시된 규격을 초과한 작품은 일체 접수를 하지 않음.
마. 액자의 경우 유리를 끼우지 않은 작품이어야만 함.

10. 문의처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담당 : 김영환
TEL : 02)2011-1772 / FAX 02)722-2606 / kimyhwan@buddhism.or.kr



15년의 외침… 日은 여전히 '묵묵부답'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수요집회 700회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해왔던 수요집회가 3월 15일 700회를 맞았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에 모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1명은, 참가자들과 함께 '일본은 전쟁범죄를 인정하라'는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일본은 위안부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성범죄를 인정하라!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하라! 그리고 조속히 법적 배상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시는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교과서에 기록하라! 위안부를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라!"

15년간 매주 외쳐왔던 '7대 강령'이지만 이 중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수용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김순옥 할머니는 "집회가 700회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화나는 일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죽지 않겠다"고 한 맺힌 목소리로 말했다.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前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집회는 2003년 3월 500번째 시위를 넘기자 기네스북에 '단일 주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집회'로 등재됐다. 수요집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널리 알려지자, 유엔과 국제노동조합은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당초 225명의 위안부 할머니 중 105명은 세상을 떠났다.


3월15일 700회 수요집회 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외교통상부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국내외 48개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외에 부산 일본영사관과 뉴욕, 베를린, 런던 등 해외 13개 도시, 일본 내 7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또 시위가 끝난 후에는 외교통상부를 방문,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하는 요구서와 200여 시민들이 작성한 엽서를 전달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천태종립 금강대 교육여건 '매우 우수'

동국 · 위덕대 '중위권'

천태종립 금강대가 전국 사립대학교 중 교육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2004년도 사립대학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강대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564만원으로 전국 154개 사립대학교 중 1위를 차지했다.

금강대는 '등록금 환원율'에서도 985%로 3위를 기록했다. 등록금 환원율은 대학측이 학생 1명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 학생 1명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나눈 값이다.

금강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493만원)'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8.4명)'에서도 3위의 성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교수 1인당 연구비는 980만원으로 99위에 머물렀다.

조계종립 동국대는 '등록금 환원율'이 112.3%로 91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90만원으로 65위, '교수 1인당 연구비'가 3990만원으로 29위,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45.1명으로 124위, '학생 1인당 장학금'이 95만원으로 44위 등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진각종립 위덕대도 '등록금 환원율'이 120.1%로 62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90만원으로 65위, '교수 1인당 연구비'가 1430만원으로 78위,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가 36.2명으로 67위, '학생 1인당 장학금'이 94만원으로 45위 등 동국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동우 기자

4월 30일 종로 '연등물결'

시청앞 점등식은 20일… 봉축일정 나와

'신명나고 역동적인 참여축제'를 목표로 불기 2550년 연등축제가 4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0일 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28일 전통등 전시회, 29일 연등축제 전야제, 30일 불교문화마당, 연등법회, 제등행렬, 대동한마당 등을 차례로 펼친다.

올해 봉축행사는 예년과 달리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크게 바뀐다. 이와 관련 봉축위는 1월부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공동으로 '연등축제 율동자료집'을 발간해 전국사찰 및 불교단체에 보급했다.

봉축표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볼 수 있듯 밝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는 계획을 세운 봉축위는 지난해 젊은층 신도 참여가 저조했다는 분석에 따라 어린이와 젊은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 연등축제는 4월 28일 전통등경연대회 입상작 위주로 강남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전시회로 시작된다.

연등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29일에는 인사동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 전야제에서는 연등축제의 꽃인 장엄등과 연희단이 한자리에 모여 흥겨운 잔치판을 벌인다. 본행사가 열리는 30일에는 6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불교문화마당(거리행사)이 열려, 전래놀이와 각종 전통 문화공연, 공예 및 미술, 조각 등 전통미술 시연, 컵등, 합장주, 사진찍기 체험, 사찰음식, 장류 등 먹을거리와 전통문화 소품을 전시 · 판매한다.

또 연등법회가 열리는 오후 4시부터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3만명 이상의 제등행렬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흥겹고 신명나는 어울림 마당을 펼친다.

오후 7시에는 장엄등 연희등 10만 여 개가 서울 종로를 환하게 밝히는 제등행렬이 시작되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제등행렬의 열기를 모아 꽃비가 흩날리는 조계사 앞 거리에서 대동놀이로 연등축제의 끝을 장식한다. (02)2011-1744 **조용수 기자**

이웃의 온정기 우리이웃

"대중목욕탕 갈 엄두도 못냈는데…"

복지관-기업 손잡고 저소득장애인 지원

"찜질방은 처음 와 봐요. 제가 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너무 좋네요."

불편한 거동과 시각장애 때문에 평소 대중목욕탕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장애인임대아파트에 딸려 있는 1평짜리 욕실에서 샤워를 해야 했던 김장복(56 · 시각장애 1급)씨. 그러나 오늘은 훈훈하고 넓은 찜질방과 대중목욕탕에서 여유롭게 목욕을 마쳤다.

김씨가 찜질방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 기업들이 손을 잡고 실시한 '저소득층 장애인 결연재활서비스' 덕택이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연순)이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에는 현재까지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와 산본시 종합스포츠레저센터 스포랜드가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는 연간 기부금 600만원을 지원해 군포시장애인복지관의 1급 지체장애인 6~7명에게 의료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랜드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저소득 장애인 이용료를 50% 감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031)399-1087 **글 · 사진=군포/이은비 기자**



7년 연구성과 집대성, 12권에

東大 BK21연구단, < 불교문화사상사전집 > 출간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 · 이하 연구단)은 국내외에서 진행된 7년 동안의 연구물을 통합적으로 묶어낸 <불교문화사상사전집> 시리즈 12권을 출간했다.

<불교문화사상사전집>은 그 동안(1999년 12월~ 2006년 2월) 연구단이 '두뇌한국(BK21)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현장경험과 세미나, 학제 간 연구 등을 통해 불교사상과 문화사, 응용불교, 한국불교 등에서 도출해 낸 불교생태학의 정수를 그대로 담아냈다.

<불교문화사상사전집>은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제12권은 연구단이 3년에 걸쳐 불교생태학 국제학술교류를 통해 이룩한 영어논문 성과물을 한 곳에 모아 <불교생태학 영어논문>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으로 만든 책이다. 이 책의 논문들은 연구단이 2004년부터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학, 영국의 런던대학교,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연차적으로 개최한 국제공동학술세미나 논문들을 편집하여 묶은 것이다.

1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조용길 단장은 "이번 출판물은 부처님의 교화 정신을 통한 불교 이념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7년 간 연구단이 연구한 결과물이다"며 "이러한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한국불교가 한 층 더 발전함은 물론 한국 불교학 연구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새만금 판결 대법관 13명중 6명

"정부는 친환경 대안 찾으라"

대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개발론을 앞세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정부에 대해 친환경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원장 이용훈)은 3월 16일 전북도민, 종교 · 시민 ·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소수의견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16일과 17일 발표한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성적이고도 박제화된 강행은 시화호나 영산호처럼 '실패를 위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자칫하면 세계 최대의 '반경제, 반생명, 반평화의 웃음거리'를 참여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봉영 기자

법학자 70% '수업중 종교행위 위헌'

종자연, 법학교수 69명 설문결과

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특정요일의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전 학년 예배행위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법학교수회 소속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학내 종교자유 설문에서 응답한 69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71%가 '위헌 · 위법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설립 목적에 따라 가능하다'는 응답은 21.7%였다.

학교 공식행사 때 특정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40.6%가 설립목적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 반면, 55.1%는 위헌 · 위법 요소가 있다고 봤다. 수업시간 전 또는 방과 후에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시키는 행위의 위헌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응답이 85.5%에 달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원기념식을 겸한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봉영 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특정종교 찬양발언 물의

권오승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종교를 찬양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취임사를 하게 됐다"며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양심과 하느님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면 밀어붙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대의기구 근본 살려 종단발전 견인해야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에게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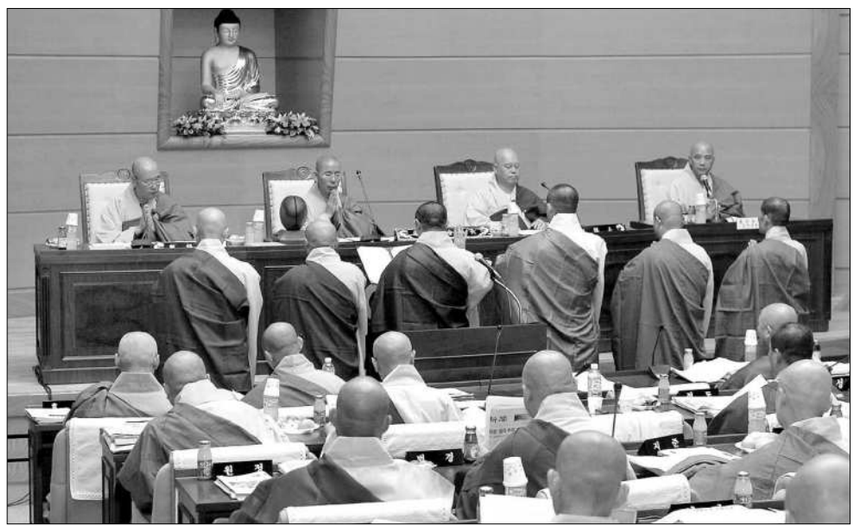
1 종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종회는?

2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야

3월 20일 열리는 조계종 제170차 임시중앙종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멸빈자 사면 문제와 동대 이사 문제 등 종회 내 계파와 문중의 이해가 맞물린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있어, 선거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1994년 개혁종단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춘 중앙종회는 종단의 민주화를 이뤘다는 평가와 함께 문중과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혹평도 듣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의 발전 주체인가 아니면 개혁대상인가. 본지는 중앙종회의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두 차례의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로 중앙종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모습. 중앙종회 의원들 대부분은 스스로 종회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결과 나타났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스스로 내리는 '혹평'

"동네 계모임만도 못하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 "완전히 ×판이다" "초등학생 국회의원 놀이하는 것과 같다" "권모술수가 판친다" "오직 종권만 있을 뿐이다" "이권 싸움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자기 사람 심기에 바쁘다" "양심과 의리조차 없다" "힘의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이 중앙종회를 두고 한 말들이다. 종회의원들의 종회에 대한 평가는 예상외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같은 인식은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중앙종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였고, '그저 그렇다' 역시 36.4%였다.

하지만 '그저 그렇다'고 답한 종회의원들 상당수가 "잘한다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못한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저 그렇다고 합시다"라는 반응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 평가는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한 잘 못쓰고 견제 장치도 없어

종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매우 크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고, '약간 큰 편'이라는 응답이 14.5%였다. 절반 이상의 종회의원이 중앙종회 권한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한 종회의원은 "종회의원 면책특권이나 원로의원 추천권, 각급 위원 선출권 등 종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무소불위다. 그런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한마디로 균립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권한이 적당하다는 응답을 한 스님들 가운데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한 중진의원 스님은 "권한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문제인데, 잘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초선의원 스님은 "권한을 나쁘게 쓰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격기준부터 높여라

중앙종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 요인은 역시 '문중과 계파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었다. 원활한 중앙종회활동을 막는 주된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이렇게 답했다. 전반적으로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종회의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부족'(16.4%) '종단 내에 얽혀있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구조'(12.7%) '개인적인 이해관계'(3.6%) 때문이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2003년 실시한 설문(출·재가 400명 응답)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지는 김 교수의 당시 설문 내용과 종회의원들 간의 인식차를 비교하기 위해 김 교수의 설문 항목과 똑같은 형태의 질문을 종회의원들에게 했다.

두 항목 비교 결과 김 교수 설문에서는 문중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지적한 응답자가 29%였던 반면, 본지 설문에 응한 종회의원들은 65.5%였다.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종회의원들이 종회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문중과 계파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거나, 2003년 이후 이 같은 양상이 심화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중과 계파간의 문제는 최근 수 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라는 점에서 전자가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종회 분위기는 결국 종회의원들의 소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신의 종회활동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43.7%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응답,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같이 응답한 종회의원 대부분이 "문중과 계파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회활동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는 '종회의원 자격기준(수행력 및 자질) 강화'가 69.1%로 압도적이었다. 종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질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세속화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스님들이 많다" "전문성이 전혀 없다" "종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말로 좋은 스님들은 종회에 안 온다" 등 그 반응도 다양했다.

●종책모임, 집단 이기주의 도구(?)

이번 설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종책모임'이다. 생산적인 종회활동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문중과 계파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지적된 것도 바로 '종책모임' 때문이다. 과거 4~5개였던 종책모임은 올해들어 일승회, 화엄회, 미래승가회 세 개로 구도가 재편됐다.

종책모임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파'로 불리며, 종권을 중심으로 소위 '여야 관계'를 형성해왔다. 국회의 정당 격인 셈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집착한다는 종도들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 종책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봐달라는 계파의 요구에 따라 불교계 언론에서도 종책모임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종책모임은 무늬만 그렇지 사실상 '계파 이익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설문결과 나타났다. 종책모임이 '필요하다'(52.7%)는 견해가 '없어져야 한다'(47.3%)는 견해보다 다소 우세했지만, 문제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종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없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종책을 연구하고 발전지향적인 형태의 모임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라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한 중진 스님은 "종책모임이라는 말이 부끄럽다"고 했고, 또 다른 스님은"종회의 모든 불화원인이 종책모임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다.

"패거리와 다름없다"는 비아냥도 있었고, "소신을 억누르는 비생산적 모임"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스님은 "계파모임은 가치관이나 문중 인연으로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이권만이 존재하고 돈으로 움직일 뿐이다"라며 종책모임이 이제는 문중과 계파의 범주를 벗어나 금권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물론 극소수이기는 했지만 다소 다른 시각도 있었다. 한 스님은 "이해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걸러지고 타협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 한 스님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자 종회참여는 '부정적'

종회의원 10명 중 8명이 재가자의 중앙종회 참여에 반대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출가와 재가의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당수 스님들은 "승단이 사부대중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출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재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와 같은 종회 풍토에서 재가자가 중앙종회에 참여할 경우 자칫 출가와 재가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재가자의 자질문제도 거론됐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재가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 스님은 "다수가 논의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특히 재가자의 역할이 특정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재가자 참여를 반대하면서도 '재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회 참여보다는 다른 형태로 재가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회의원 선거 '부패하다'

응답자의 절반인 49.1%가 종회의원 선거가 부패하다고 지적한 것은 여러 모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다. 특히 일부 종회의원들은 '돈'이 오가는 선거 풍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대안 부재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이번 설문결과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제점 개선 의지 약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종회를 왜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설문문항에는 없지만 이에 대해 일부 종회의원들의 견해를 설문과정에서 청취했다. 대부분 같은 의견을 보였는데, 요지는 '의지도 없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얽혀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려 하지도 않거니와, 설혹 그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문중이나 계파 등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누가 '왕따'당할 짓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다수 종회의원들은 앞으로 종회가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설문결과만 놓고 보면 이권만 좇는 종책모임이나 부패한 선거 등 상당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기획취재팀=한명우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1962년 출범 … '종단의 국회' 기능

■중앙종회의 어제와 오늘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의 국회'라고 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입법기구로서 각종 현안을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장인 것이다.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출발한 조계종 중앙종회는 1962년 8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개원식을 시작으로 8월 26일 조계사 기념관 2층에서 막을 올렸다.

1대 종회는 재적의원 50명 가운데 초대의장 벽안, 부의장 경산 · 서각 스님을 비롯한 27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94년 종단 개혁이전까지 중앙종회 의원 숫자는 75명 규모로 늘어났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교구본사 주지와 총무원장, 총무원 집행부가 종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앙종회가 현재와 같은 81명 체제를 갖춘 것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부터다.

교구본사별 대표 2명(직할교구 4명, 해인사 3명)과 비구니 10명, 율원과 강원 등의 직능 대표 20명이 종회를 구성한다.

입법 기능외에도 종단 예산 심의 및 감시, 주요 인사 추천 및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종회의원들은 총무 · 법제 · 교육 · 포교 · 사회 · 재정 · 호법 등의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혜자 큰스님 초청 대법회 및 제46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법보종찰 해인사 에서는 삼각산 도선사 주지이신 혜자 큰스님 초청 대법회와 함께 제 46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합니다.

1. 혜자 큰스님 초청 대법회 - 1029일 천도법회 18번째 49재

◀ 안 내 ▶

◆일 시 : 2006(2550)년 4월 3일(음 3월 6일) 월요일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1시
◆법 사 : 혜자 큰스님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禪默 혜자慧慈 스님은 청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통도사 전문강원, 중앙불교교육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과, 사서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소청심사위원장, 사단법인 풍경소리 대표이사와 삼각산 도선사 주지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영원한 대자유, 사람노릇 하고 살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빈 연못에 바람이 울고 있다(공저), 등이 있습니다.

2.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하는 제46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八萬大藏經 頂戴佛事)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팔만대장경판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전할 때 많은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긴데서 유래되었습니다. 4월 6일 7일 1박 2일간 여러 큰 스님과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올리는 팔만대장경 정대불사에 이웃과 함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4월 6일(목) ~ 4월 7일(금) [음 3월 9일 ~ 10일] 양일간
◎ 4월 6일(음 3월 9일) 오후 4시 :
시련, 입재, 해인삼매법문(종진, 무관, 종묵 큰스님) / 천도재
◎ 4월 7일(음 3월 10일) 오전 8시 : 괘불봉안, 정대법회, 회 향
※ 동참금 : 30,000원(1인)※ 영가 동참금 : 영가1위당 10,000원
◆ 접수안내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해인사 종합 접수처
TEL 055)934-3105~6 / FAX 055)934-3107
◆ 온라인접수 : 농 협 843174-51-013620 (예금주 : 해인사)
※ 불사와 영가천도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바랍니다.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전화 확인 바랍니다.



불기 2550년 3월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합장

대불청 부산지구

불심 모으기 '으랏차차'

6월 전국불교청년대회 앞두고 조직 개편

부산의 청년 불교가 꿈틀거리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이하 · 대불청 부산지구)가 6월 10~11일 '청년,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여는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앞두고 부산 청년 불자들의 힘 모으기와 조직 재정비에 돌입했다.

대불청 창립 86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맞아 그 잔치를 여는 주인의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회 조직의 재정비와 새로운 청년지회가 속속 창립되고 있다는 것. 범어사청년회가 대불청부산지구 지회로 등록하면서 탄력을 받은 지회 조직 재정비는 당초 3명이던 부회장이 10명으로 확대되고 임원단도 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3월초에는 확대된 임원단 전진대회를 겸한 산행으로 결속력을 다졌다. 수석, 총무, 기획, 홍보, 조직관리, 봉사체육, 대외협력, 포교 등으로 나눠진 부회장단의 확대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대불청 부산지구는 올 들어 벌써 2개의 새로운 청년지회가 생겨났을 정도로 청년불교운동의 싹이 새롭게 움트고 있다. 정담불교청년회(회장 신석우)가 청년지회의 창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담할 예정으로 이미 창립됐고, 북구불교청년회(회장 주호조)가 1월초부터 창립 준비 기간을 거쳐 창립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해운대 신시가지 반야원 청년회도 창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원단 27명으로 확대
새 지회 꾸준히 등록
17개 단체 '봉축위' 동참

이 밖에도 청년불교의 저변확대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청년회원을 공개모집 중이며 대불청 부산지구 산하 노래패를 결성, 각종 산사음악회에서 청년불자들의 싱그러운 목소리를 선사할 계획으로 함께 활동할 청년을 모집 중이다.

특히 대불청 부산지구는 내부적인 조직 재정비뿐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17개 단체 청년단체와 힘을 결집, 청년불자들이 다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청년대회로 만들겠다는 큰 틀을 짜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17개 단체가 모두 참여한 청년대회 봉축위원회를 꾸린 이유다. 대불청과 온 · 오프라인의 청년모임이 힘을 합해 멋진 잔치를 열고 부산의 청년불심으로 전국 청년불자들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청년대회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양말판매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1인 1만원 1만등 달기 운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손정현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은 "청년대회가 부산불교 청년들의 땀과 열정, 신심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청년 불심을 한데 모아 새로운 불교운동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51)467-524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불청 부산지구회원들이 3월 1일 범어사를 참배하고 한자리에 모였다.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노인문제 해결 노인들이 나선다

불국토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

세상엔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것들이 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도 그 중의 하나다. 학대받는 노인이 없었다면 존재 이유가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3월 16일, 양정청소년회관 4층 세미나실에는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직접 끄겠다고 나선 16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있었다. 불국토가 운영하는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김영곤)가 '노인이 직접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을 발족, 교육을 시작했다. 하루 전인 15일에는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 발대식도 이미 가졌다.


불국토 노인학대예방 어르신지킴이단 발대식 모습.

이날 황인옥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례, 상담 요령, 예방 활동, 학대에 따른 대응 등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얼굴엔 밝은 빛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노인들이 공원에 웅크리고 있을 걸 보고도 예사로 지나쳤는데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고통 받는 노인들을 위해 상담도 하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껴요."

이번 지킴이단 단원 중 최고령자인 김송한(79 · 교사 정년퇴임) 할아버지는 교육 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권기연(75) 할머니도 "내 문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어르신지킴이단은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노인학대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후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거리 홍보에 나선다.

노인학대 관련 VTR 시청, 노인복지의 이해,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관련법, 노인성질환 이해, 노인학대 지킴이단의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교육수료증이 주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젊은 층의 자원봉사자나 직원들이 해온 예방교육이나 거리 홍보를 어르신들과 함께 펼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지 않다. 우선 상담이나 교육에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전문교육 받은 후 거리 홍보 등 본격 활동
젊은층보다 친밀감 형성, 상담 효과 커

젊은 사람에게 쉬이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들을 동년배의 상담자에게 터놓고 털어놓음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등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할 때도 친밀감 형성이 쉽고 연륜이 묻어난 강의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영곤 소장은 "지하철 역사나 각 아파트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애 쓰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학대를 줄이는데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051)867-9119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용두골 안녕 '용두불'이 지킨다

부산 미타선원, 지하 스님 초청 봉안법회 봉행



부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부산타워로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용두산 공원. 그 공원으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에 위치한 미타선원(주지 하림)에 용두산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평온과 자비를 전하게 될 용두골 지킴이 불상 '용두불'이 봉안됐다(사진).

미타선원은 용두불 조성 불사를 마무리 짓고 3월 11일 지하 스님을 초청법사로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12대, 13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지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천도노재, 용두불 봉안식, 법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봉안된 '용두불'은 불상이 봉안된 위치가 지형 상 용두산 용의 머리부분이어서 용두불이라 이름 붙였으며 오랫동안 우범지역으로 방치되었던 용두골 인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불교TV 미주 송출 기념 법회

불교 TV(대표이사 성우)는 3월 15일 코모도호텔에서 미주 전역 송출 기념 법회 및 부산지사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열린 기념법회에서 성우 스님은 "불교는 인류를 구원할 사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불교TV가 세계 속에서 세계인들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이 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여여선원장 정여,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 이영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천미희 기자

"재미 있으면 저절로 모여들죠"

부산 홍법사 토요휴업 대비 8가지 프로그램 마련

토요 휴업일에 갈 곳이 없다고요? 부산 홍법사로 오세요!

주5일제수업이 월 2회로 확대 시행되면서 갈 곳이 없어 고민에 빠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부산 홍법사가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 홍법사는 2, 4주 토요일마다 8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도량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사진).

홍법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은 모두 8가지. 영어연극, 요리교실, 선무도, 과학교실, 독서토론, 원예체험학습, 종이접기, 천연염색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서 자연과의 교감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련된 홍법사의 프로그램은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로 확대 실시된 3월 11일부터 호응이 대단했다. 참가자가 130명에 달했고, 당초 마련했던 7가지에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해 진행했을 정도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어린이 포교의 노다지가 될 수 있는 주5일제수업에 대비 사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051)508-0345 천미희 기자

불광사 중창불사

우리는 타오르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요, 이 땅이 원래로 불국정토임을 선언하고 있는 여기 불광법회,
1974년에 창립된 불광법회는 신도교육, 문서포교, 복지활동 등 전법을 통해
밝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반야바라밀 위덕을 불어넣어 온갖 불행과 고난, 장애와 병고, 미혹의 어둠을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광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법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찾아오는 재가 구도자들의 운집으로 법회장소가 비좁게 되었고,
각종 계층법회와 소모임 교육과 수행프로그램운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중창불사를 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옵건대 불광사 중창불사가 모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 무 석 가 모 니 불

- 불광 사부대중 일동



불광사 불광법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 전화 413-6060~2 ● 팩스: 413-6781 ● http://www.bulkwangsa.org

"성불하는 날까지 계율 지킬 것"

파계사 영산율원 비니정맥 전계의식 봉행
정각·덕문·도암 스님 '자운계맥' 이어



파계사 주지 성우 스님(왼쪽)이 정각 스님에게 계맥을 전하고 있다.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은 3월 14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계율의 바른 맥을 전하는 비니정맥 전계의식을 봉행했다. 파계사 주지 성우 스님은 영산율원 졸업생인 정각 스님에게, 영산율원장 철우 스님은 통도사 율원 강사 덕문 스님과 송광사 율원 율감 도암 스님에게 각각 자운 율사로부터 내려오는 계맥을 전했다.

전계식은 조계종단일계단위원장 성수 스님과 前 조계종원로회의 의장이며 파계사 대비암 회주 도원 스님, 통도사 부방장 성파 스님을 비롯한 25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고불문, 전계제자 소개, 계맥 설명, 전계제자 서원, 전계첩과 의발 수여, 축사, 격려사 법어 전계율사 인사로 진행됐다.

도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도를 닦는 수행덕목 계, 정, 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계율의 전수는 의식적으로 전하고 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불하는 날까지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니 오늘의 성스러운 정신을 잊지 말고 모든 스님들이 지계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수 스님은 "주장자를 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보는 그 자체가 누군지 확실히 만나보면 천하만물이 진리 아님이 없고 세상만사가 도아님이 없다"며 "입은 헛말하지 말고 손은 헛일하지 말고, 발은 헛걸음 걷지 말라"고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가 살려면 계율이 살아야겠기에 율원 만들었고, 두 번째 이런 인연을 맺게 됐다"며 소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파계사는 지난 2004년 11월 석가모니불에게서 심지율사에게 이어진 후 끊어진 계맥을 자운율사까지 이어 복원정립해 정통계맥으로 이어가기 위한 첫 시도로 6명의 스님에게 비니정맥 전계식을 봉행한바 있는데 이날 두 번째 전계식이 봉행된 것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파라미타 대구지부 문화체험학교 연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지성)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파라미타 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한다.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쉬는 토요일 갈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동시에 포교의장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문화체험학교는 요가명상교실강좌로 시작된다. 대구지역 초중고 학생 100여명이 대구 아헹가 요가원에서 현천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요가동작을 배우게 된다. 집중력을 키우는 명상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5월에는 대구지역문화재 탐방에 나선다. 문화재모니터링 교실이 열리는데, 지역의 문화재를 팀별로 찾아가 확인하고 문화재 관리 현황을 파악하며 자연스럽게 주변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은 이미 2004년에 실시한 바 있는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우호적 접근이 이뤄졌고, 또래의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훌륭했다는 평을 받은바 있다. 또 우수보고서 250여 편은 책으로 엮어져 각 학교에 배부되기도 했다.

6월에는 팔공산과 신천의 생태를 직접 조사 체험하고, 7월에는 2박3일 일정으로 전통사찰체험에 들어간다. 8월에는 다도교실이 열리고 9월에는 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사과 따기 등의 농촌생활체험이 진행된다. 10월에는 <삼국유사>를 읽고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고전읽기교실이 열리며 11월에는 경남고성 지역에서 역사문화탐방을 한다.

문화재 탐방·생태 조사 등
토요휴업제 대체 교육 대비

파라미타 대구지부는 문화체험학교가 주5일제 수업으로 갈 곳 없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체험교육의 장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며, 3월 18일 창립하는 대구지역 초중고 교장 교감 모임인 대구불교교육지도자모임과 연계해 파라미타의 저변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월정사 '문수산악회' 창립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문수산악회'를 창립했다.

월정사는 3월 12일 오대산 비로봉으로 산악회 발족을 위한 준비산행을 하고 산악회 창립을 결의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130여명이 참석한 산행에서 또 진부지역 팀장에 황정구씨, 강릉지역 팀장에 김국정씨, 서울지역 팀장에 신영철씨를 임명했다. 산행은 매월 1회 실시되며, 분기별로 시행되는 전체 산행에는 모든 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종교 편향자 공천반대서명운동

포항천주교불교성직자모임

포항천주교불교성직자 모임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종교편향정책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장식 前 포항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벌였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벌인 종교편향자 공천반대 서명운동에는 1120명이 서명했고,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직지사 등 조계종 대구경북지역 교구 본말사 주지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 스님,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와 안동 그리스도 교육회 등이 동참했다.

한편 포항천주교불교성직자모임이 벌인 서명운동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된 공직 선거법 10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학 야구단 창단

지난해 10월 불교계 최초의 리틀야구단을 창단했던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가 이번에는 일반 사회인 야구단을 창단했다. 대구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사회인 야구단 '불랙비스트'를 인수한 것.

2월 16일 재창단 된 '영남불교대학 블랙비스트'는 이현석 감독, 정욱진, 김철주, 고봉철 코치의 지도하에 19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다. 매주 1회 연습과 시합이 있으며, 지난 동계리그에서 우승을 거둔바 있는 영남불교대학 블랙비스트는 현재 서울신문에서 추죄하는 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배지선 기자

법광사 부설 달마선원 개원

대구 법광사(주지 효신) 부설 달마선원이 3월 12일 수성구 어린이회관 옆에 개원했다. 2년 전 중구 동인동 4층 포교당으로 개원했던 법광사가 이전 개원한 것.

280평 규모의 법광사 달마선원은 약 50평 규모의 법당 외에 별도의 수련장과 다실을 갖추고, 태극권 선체조 다도 꽃꽂이, 사찰음식등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법광사 주지 효신 스님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태극권강좌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어린이 태극권강좌, 선체조 등을 직접 지도할 예정. (053)761-6943 배지선 기자

대구BBS 한마음 합창제
한복명장 패션쇼도 열어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는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이 '2006 한마음 합창제 및 김복연 한복명장 패션쇼'를 3월 25일 오후3시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한다.

찬불가 보급을 위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합창제에는 원만사합창단, 금강사 금강반야합창단, 직지사 보리수 합창당, 진각종 금강합창단 등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 합창단 13개 팀이 참가하며, 합창제가 끝난 오후 5시 30분부터는 한복명장 김복연씨의 패션쇼가 특별히 펼쳐질 예정이다. (053)427-5114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한곤수

동화사 교무과장

대구불교회관 6층에 마련된 대구봉축위원회 사무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과 하나 된 문화축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올해도 봉축위 실무간사는 한곤수(37)씨가 맡았다. 7년 전 부터 봉축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한곤수 씨는 3년째 봉축위 실무간사를 도맡으며 지역불교계의 중요한 메신저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지도자급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들이 큰 틀을 만들고 기획을 하면 사찰마다 찾아가고 발로 뛰며 단체와 불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체화시키는 일은 한과장이 맡는다.

게다가 동화사 교무과장이면서 포교 호법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한곤수 과장이다. 지역불교계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에, 사찰 신행단체들이 포교와 신행활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찰 간 스님과 불자들 간의 다리를 놓으며 지역불교계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다.

포교업무 담당하며 신행단체들 가교역할
봉축행사, 유니버시아 대회 등 원만히 진행

특히 군 포교, 어린이 포교, 파라미타 포교에 관심이 많은 한 과장은 파라미타 연중행사계획 수립에도 함께 하고, 군 법당 수계법회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중간 다리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저는 옆에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일 뿐인데요." 주어진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며 겸연쩍어하지만 스님과 재가불자 사찰과 신행단체 사이에서 '기름'을 치고 의견을 조율하는 비타민 같은 그의 역할은 언제나 싱그럽다. 특히 교계 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항의는 도맡아 해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나'라는 아상은 일찌감치 내려놓았다. '샌드위치'가 될 때 제일 힘들다는 한과장이지만 특유의 웃음과 재치로 번번이 화합을 이끌어낸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 '수처작주' 오직 이 하나만 생각합니다.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하구요"

어디서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한과장. 그래서 탓을 돌릴 줄도 모르고 원망할 때도 없다.

어릴 때 기독교인이었다는 한 과장은 거창 대성고교 시절 "십자가 위에는 유일신이 있지만 만(卍)자는 나로 비롯되어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한 마디에 불교를 좋아하게 됐다. 이후 대성고등학교 불교학생회에서 불경을 외우고 기초교리도 익혔다. 대불련 활동과 해인사보리수불교청년회장도 역임하고 제주 약천사에서도 살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개구쟁이로 자랐고, 거침없는 행동으로 사고도 많았다는 한과장은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망아지 인생'이었을 거라고 회고했다.

약간 볼록(?)한 외모에 싱끗 웃음을 트레이드마크로 '포대화상'이란 별칭을 달고 다니는 한과장은 걸쭉한 재담으로 지역불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곳곳에서 강사초빙 의뢰가 있을 정도다. 또 동화사 최고의 베스트드레서로 꼽힌다. "옷은 깔끔, 머리는 단정, 구두는 반짝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쾌활한 성격에 22개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 과장은 포교사자격증과 레크레이션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또 현재 경운대 관광경영학과 야간반 4학년에 재학중이다. 불교활동에 문화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졸업 후엔 장례문화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유니버시아드종교관을 운영한 실무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던 한곤수 과장은 "올해도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봉축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한국근본불교조계종 6세종정 및 총무원장, 종회의장 이·취임대법회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은 지난 1월 14일 용인 소재 중앙종무원에서 제6세종정에 일송큰스님을 추대하고 총무원장에 우담스님 중앙종회의장에 현공스님을 추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운번창기원 및 이·취임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 본종 종도는 행사당일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일시 : 2006년 4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 1부 법요식, 2부 연회
● 장 소 : 서울 세검정 하림각 대연회장(02-396-2442)
● 규 모 : 사부대중 1천여명
● 참 고 : 소의경전 아함경 편찬 배부
● 문의전화 : 033)671-7751,4 / 031)285-5102(총무원장 우담 011-257-1601)
● 후 원 : 불교TV, 인터넷불교방송,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교계 각 신문사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회장 의륜 / 봉행위원장 대현 합장

■ 총 본 산 : 우214-814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1 불탑사 033)671-7751, 4
■ 총 무 원 : 우446-9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마을 562-4 만다라선원 031)285-5102

천년고찰에서 내 나무 기른다

내소사, 숲길 조성 나무심기 템플스테이

전나무 숲길이 아름다운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가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식목일을 맞아 4월 8~9일 양일간 내소사 경내에서 열리는 나무심기 템플스테이에서는, 가족이 함께 사찰체험을 하며 토종 왕벚나무를 심는 행사가 진행된다.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는 첫째날 '불교와 나무, 인간'을 주제로 스님과의 대화가 진행되며, 다음날 천왕문 옆 수로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심는 나무는 참가자의 명패를 달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내소사는 나무심기를 위해 왕벚나무 7-8년생 100그루를 마련했으며, 빠르면 내년 봄에 꽃이 피어 내소사에도 벚꽃숲 길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나무심기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는 진호 스님은 "사찰에서 하는 나무심기는, 자기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꿈과 신심을 함께 키우는 또 하나의 수행이다"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이제 사찰도 건물불사보다 자연환경과 도량가꾸기 불사를 해야 한다"며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소사는 해마다 단풍나무, 보리수나무 등 수종을 바꿔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063)583-3035 이준엽 기자



"나무가 자랄수록 불심도 커져가요." 부안 내소사 '나무심기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천왕문 옆 산책로에 백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산책로를 소개하고 있는 행사담당 진호 스님.

남녘 사찰, 봄맞이 행사로 '두근두근'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남녘 사찰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보성 대원사는 4월 1일~5월 13일까지 49일간 '제1회 대원사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영산재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4월 1일 인천 영산회 공연에 이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경기 전주 부산 밀양 광주 등 7개 영산회가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대원사-벚꽃축제, 송광사-사찰체험

미황사-참사람의 향기 특별수행

또한 벚꽃이 만개하는 4월 9일 대원사 하늘호수(구품연지)에서 '벚꽃축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61)852-1755

승보종찰 송광사도 4월 8일, 15일, 29일 3회에 걸쳐 '봄맞이 사찰체험'을 갖는다. 이번 사찰체험에는 소원성취 발원문 쓰기, 봄 꽃길 산책 등 희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061)755-0107

해남 미황사도 4월 15일~22일 8일간 묵언, 오후불식, 참선, 수행점검, 다도 등의 수행이 진행된다. (061)533-3521

광주 정토회는 봄맞이 특별강좌 <법성게> <신심명>강의를 마련하고, 오는 4월 5일~5월 31일(매주 수요일)까지 정토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영상강의로 진행된다.(062)511-8990

이준엽 기자

스리랑카 노동자 초청법회 원각사, 와치싸라 스님 법문

도심포교당에서 외국인들만 모이는 특별법회가 열린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3월 26일을 '스리랑카의 날'로 선포하고 대웅전에서 와치싸라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는 스리랑카 전통의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초청되는 와치싸라 스님은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정신적 지주로,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 전용법당 '마하보디선원'을 개원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스리랑카 노동자들은 법회에 이어 전통음식을 나누며 뒤풀이를 펼친다.

이번 법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꽃 외국인 노동자 센터(소장 고영순) 관계자는 "현재 광주에 외국인 노동자가 3천여 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온 노동자이다"며 "각 나라별로 노동자들이 편하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도심사찰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62)223-3168 이준엽 기자

군부대 대법회 잇따라 열려 장성 무각사, 호국 관음사



지난 3월 12일, 광주 전남에 소재하는 군법당에서 대규모 법회가 잇따라 열렸다.

장성 상무대 무각사(법사 정우)는 이날 대웅전에서 '학군 초급장교(ROTC)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포병학교장 김진항 소장과 교육사 법당 후원회 간부,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단 초급장교 900여명이 참석했다.

31사단 호국 관음사(법사 범망)도 8회에 걸쳐 열리는 '고승 및 명사 초청법회'를 시작했다(사진).

이날 첫번째 법사로 초청된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은 법어에서 "경전읽기와 끊임없는 정진으로 당당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사 초청법회는 불자가수 송춘희 포교사(3월 19일),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26일),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4월 2일),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9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16일), 전 조계종 신도회장 박완일 법사(23일),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30일) 법회가 이어진다. (062)571-7832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북불교대학 입학식 법회

청주 용화사 부설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의)은 제12기 신입생 입학식을 3월 7일 본교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축사에서 각의 스님은 "불자로서 교리공부는 물론 활발한 사회 봉사활동을 펼쳐 실천 불교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선정회, 충용사 장병 120명 수계

충북 승가모임 선정회(회장 광혜)는 2006년 3월12일 37사단 호국 충용사 에서 훈련장병 120명에게 수계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진천어머니불자회에서 함께하고 떡과 초코파이 단주 등을 선물하고 위문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청원 석문사, 사물놀이 초청 강좌

충북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장선일 강선자(직지 홍보단 부단장) 선생을 초청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주민을 대상으로 사물놀이와 국악을 지도한다. 앞으로 국악강좌반은 교도소 등 위문공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생활 속 불교문화

송광 한지

최근 한옥, 한복과 함께 한지(韓紙)가 전통 웰빙 문화로 뜨고 있다.

닥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지는 수명이 천년을 간다고 하는 '신비의 종이'이기도 하다. 한지는 책, 창호지에서 옷, 생활용품, 한지공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불가에서는 경전, 불화, 불상 등 한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큰 사찰에서는 매년 대량의 한지가 소요됐고, 스님들이 한지를 직접 생산했다. 따라서 한지는 사찰을 중심으로 발전, 보급되어왔던 것이다.

수백 년간 명성을 이어온 전주한지도 완주 송광사가 자리한 송광한지를 으뜸으로 친다. 특히 송광마을에서 생산하는 한지장판은 아직까지도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송광사는 평지가람이지만 인근에 위봉산, 진안 고원 등 커다란 산이 에워싸고 있다. 토양이 척박해 흙보다 자갈이 많다. 다행히 인근의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은 한지를 생산하는 천혜의 자원이 되었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송광마을 자갈밭은 닥나무로 무성했다.

마을사람들이 직접 닥나무를 채취하고 송광천에서 찌고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물에 찧어 풀어헤쳐진 닥나무 껍질을 마을사람들이 손수 한 장 한 장 떴다.

송광 한지의 시원은 송광사에 두고 있다.

송광마을 이장 이행교(56)씨는 "예전부터 마을 어른들이 척박한 땅에서 먹고살기 어려울 때 송광사 스님들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줬다"며 송광 한지의 유래를 설명한다. 병자호란 때 팔도도총섭으로 승군을 이끌며 남한산성을 쌓은 벽암대사가 송광사 주지로 있으면서 마을사람들에게 종이제조법을 전수했던 것이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송광 한지도 비닐장판과 현대문물에 밀려나기 시작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환경오염 규제로 송광천에서 더 이상 닥나무를 찔 수 없게 되었다. 밭에 있던 닥나무는 베어졌고, 마을사람들도 하나둘 떠났다.

최근 들어 새집 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다시 한지장판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전만은 안되지만 2인1팀으로 구성된 한지장판 제조장이 4~5곳으로 늘어 명맥을 잇고 있다. 그것도 양지를 가져다가 돌가루로 잰 풀로 3장씩 붙여 말리는 단순작업이다.

송광마을 아래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한지제조공장(천양제지)이 들어섰다. 이곳에서는 물에서 한지를 뜨는 초지장인 7명을 보유하고 전통한지, 기계한지 등 다양한 한지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산에 밀려 전량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천양제지 최영재 사장은 "송광마을 밭에 닥나무를 심어 전통 송광한지를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조선시대 벽암대사 주민들에게 제조법 전수 자갈밭에 닥나무 가꾸고 송광천서 찌고 말려



수백년간 우리네 생활용품(창호지, 책 공예 등)에 활용되어 온 전주 송광한지. 천양제지 초지장인이 한지를 뜨는 모습.

제106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병술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1천 3백여년 전 의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 여러 대덕 스님들이 주석하신 유서 깊은 도량이자 전통적인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율 근본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란,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써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經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그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범어사 금강계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오니,여러 불자님께서는 수희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 입 재 : 불기2550년 4월 10일 (음 3월 13일)
▣ 회 향 : 불기2550년 4월 12일 (음 3월 15일) } 3일간
▣ 장 소: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

傳戒師 : 瑞海 興教大和尙

삼 화 상
전계대화상 서해흥교
갈마아사리 해월선래
교수아사리 제월통광

칠 증 사
존증아사리 서림대성
서암혜관 • 일운담연
정사도근 • 태인몽산
보륜지정 • 금우인각

⊙동 참 금 : 5만원(₩50,000)
⊙계좌번호 : 국민은행 939701-01-142121 (예금주:범어사)
⊙접 수 : 원주실 051)508-3636, 3721
종무소 051)508-3122~5
범어사 각 말사(암)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가족과 이웃 포교운동 전개

진각종 총금강회, 우수 조직 표창 · 포교비 지원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가족과 이웃을 포교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진각종 신교도 단체인 총금강회(회장 원당)는 올 4월부터 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족과 이웃 포교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총금강회는 우선 내주부터 그동안 활동이 미흡했던 금강회 조직을 비롯해 청년회와 학생회, 자성학교 등 신행조직 실태 파악과 포교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현수막과 포스터,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해 신교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금강회는 각 지부별로 당해 심인당 주교들과 협의해 공부방, 불교 교양대학, 노인대학 등의 개설도 서두를 생각이다.

이외에도 심인당 주변 독거노인 방문, 자성일(일요일) 골목길 청소하기 등의 사회봉사활동, 어버이날, 성년의 날, 생일 등 축하카드 발송 등 이웃과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총금강회는 이와 함께 전국 금강회를 4개군으로 분류해 계획과 목표수립의 적정성,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적극성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기별 금강회 임원들과 각 지부장 등이 상호 평가한 뒤 우수 심인당 금강회 3곳을 선정해 포교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국 최우수 금강회로 선정되면 내년 창교절(6 · 14일)에 통리원장 표창과 함께 포교비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청년회도 창립 30년 역사를 재조명한 책 <진청 3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총금강회장 원당 각자는 "내년이 종단 창종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에 종단 발전에 일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며 "가족과 이웃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각 심인당 스승님들과 신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 부경진각회 창립

진각종 부산, 경남지역 각자(남자 신도)들의 모임인 부경진각회는 3월 21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6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는 부경진각회는 부산 경남 지역의 대사회적 봉사와 진각종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부경진각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http://cafe.daum.net/jingakcom)해 회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총금강회와 진사모(진각종을 사랑하는 모임) 등과도 연대해 종단이 추진하는 각종 불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엄해식 행정처장 대통령 표창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엄해식(법정 · 보덕심인당 · 사진) 행정처장이 30년 교육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2005년도 국민교육유공자로 선정돼 3월 20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엄해식 행정처장은 1977년 학교법인 회당학원에 임용돼, 진선여중고 행장실장을 역임했고, 1991년 위덕대학교 개교 설립과정에 크게 공헌했으며, 총무과장, 학생과장, 교무과장, 입학팀장, 학생서비스센터장, 생활관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2월부터는 행정처장으로 대학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재래시장 활성화 천도재 태고종 열린선원

태고종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은 3월 14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 역촌중앙시장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합동천도재는 부처님과 보살님, 도량을 옹호하는 신중과 영가를 맞아들이는 의식인 시련을 시작으로 대령, 관욕, 신중작법, 권공, 퇴공, 시식, 봉송의 순서로 열린선원 법당에서 진행됐다.

행사가 끝난뒤에는 참석한 스님들이 시장 상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시장의 번영을 기원했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천도재는 돌아가신 영가들이 새로운 육신을 얻어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발원하기 위해 지내는 의식인데,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던 날인 열반재일에 종교를 초월하여 지역주민들이 합동으로 조상 천도재를 지내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삼광사 주지에 영제 스님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스님에 영제 스님(前 성룡사 및 마산 삼학사 주지 · 사진)이 임명됐다.

前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마산 삼학사 주지로 자리를 옮겼다.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춘광 스님)은 3월 14일 부산 삼광사 등 9개 사찰에 대한 주지인사를 단행했다.

진주 월경사와 함양 청양사 주지에는 안산 스님(前 홍천 강룡사 주지)이, 홍천 강룡사와 인제 강화사 및 기린 기흥사 주지에는 용문 스님(前 울진 죽청사 주지)이, 부산 광명사 주지에는 갈웅 스님이 임명됐다.

또한 총무원 책임부전에는 화산 스님(현 청주 명장사 및 서울 명락사 주지)이 확정됐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주지들은 3월 16일 도용 종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미륵종, 日 성지순례 성황 200여명 교토 · 나라 등 방문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일본의 교토(京都)와 나라(奈良) 등 불교유적지에서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했다.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성지순례에는 200여명의 종도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순례 첫날인 7일에는 한일 정기여객선 팬스타호에서 '현해탄용왕수륙대재'를 봉행했다. 또 일본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 공고부지(金剛峯寺)를 방문, 미륵종과 공고부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미륵종 순례단은 나라의 동대사(東大寺) 참배, 오오사카성 관광 등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동대사(東大寺)의 청동대불이 모셔져있는 본당으로 입장하는 미륵종 순례단.

영민 경남 서부 지사장

"법회 시간이 기다려져요"

찬불가 노래방기기 전달받던 날 쌍호정사 등 6곳 축제 분위기



강원도 인제 내린천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구릉위에 위치한 호국 쌍호정사. 3월 15일 10여명의 장병들이 수요법회가 있는 시간보다 일찍 법당에 모였다. 이들이 평소보다 일찍 법당을 찾은 이유는 바로 찬불가 노래방기기 때문. 오늘 오후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법당에 기증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어 법당을 찾았다.

법당 뒤편에 설치된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보자 장병들은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된 최신 기기를 만지며 신기해 한다.

전광병 군종병이 찬불가 노래방기기의 전원을 켜자마자 10여명의 장병들이 탄성을 질렀다. 초기 화면이 전통 사찰의 전경 등 불교 관련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유한일 상병은 "노래방기기에서 불교관련 영상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며 "불교 영상과 함께 찬불가를 노래방기기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고 연신 웃음을 짓는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재)보덕학회가 노래방기기를 기증했고 (주)금영이 좋은벗 풍경소리와 함께 찬불가 120여곡을 노래방 반주기기에 삽입해 이번에 처음으로 군에 보급하게 됐다.

호국 쌍호정사와 함께 이날 강원도 화천, 인제, 양구 지역 전방 연대급 부대 법당인 관음사, 보현사, 연승사, 장안사, 향로암 등 6곳에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전달됐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는 엠프, 스피커 등 주변기기가 하나의 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형 기기로 이동이 간편해 법회시나 부대 위문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의식곡이 모두 삽입돼 있어 법회시에 반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장병들의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호국 쌍호정사 불자 장병들이 3월 15일 수요법회에 앞서 찬불가 노래방기기로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보며 연신 웃기만 한 류재규 일병이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명이 적힌 책자에서 찬불가 '오늘은 좋은날'을 선곡하자 함께 있는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신나한다. '오늘은 좋은날 부처님 오신날~~'

찬불가가 도량에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병들은 박수를 치며 김기병 상병에게 다음곡을 선곡하라고 노래 책자를 넘긴다. 김상병은 일반 가요인 '이별아닌 이별'을 선곡했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함께 노래를 부렀던 배제성 일병은 "법당이 경건하고 준엄한 공간인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너무 좋다"며 "앞으로 법회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다"고 방긋 웃는다.

글 · 사진=김두식 기자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 호국 수심사 장병 위문법회

달리는 큰 법당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회장 변용구)가 3월 12일 강원도 최전방 제1679부대 호국 수심사에서 통신원 가족과 수심사 신도회, 장병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변용구 불자회장은 법문을 통해 "고집멸도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해한다면 군생활도 힘들고 괴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군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교통통신원불자회는 이날 법회에서 불서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제 4땅굴과 을지전망대를 관람했다.

수심사 신도회 총무 한상국 상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법당 보수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위문을 받으니 신심이 난다"고 기뻐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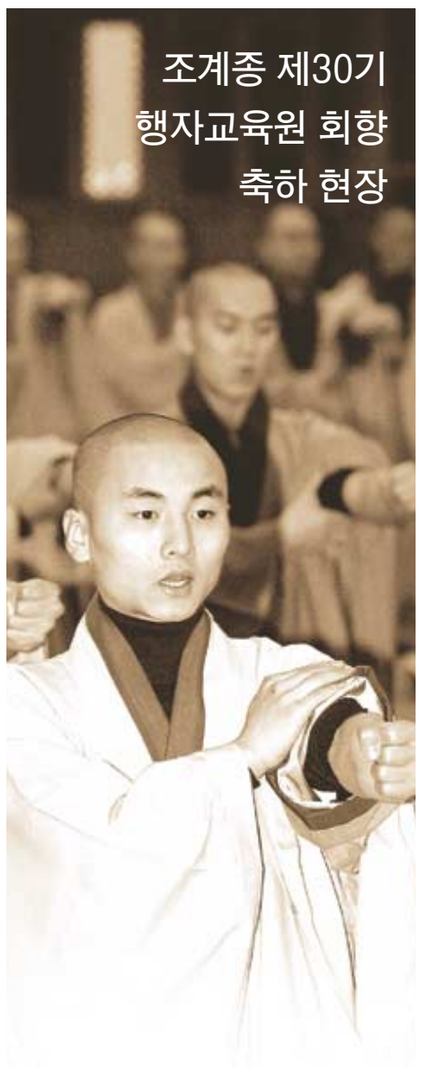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 · 야간)적외선카메라2대 = 200만원,카메라한대추가시 + 40만
"보안은 예방"
CCTV
3대 만족
품질,가격,서비스
사업내용
• CCTV판매 및 설치 공사
• 청소,경비용역
• 방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
시공사찰
• 대성사 • 송림사
• 보현사 • 선운사
• 도솔암 • 계암사
• 안국사
A1 에이원
현대불교신문사대전.충북지사 지사장 혜철 합장
(주)에이원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한국불교박람회 (부스번호 3동 N8호) 제품 다수 전시
상표등록 : 614981호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콜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동) 발냄새 무좀방지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오늘의 다짐 잊지않고 한길로 가겠습니다

수계라는 이름의 발원

3월 11일 오전 7시.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조계종 제30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이 봉행됐다. 지난 2월 15일 147명의 행자가 입교해 이날 145명(남 82명 여 63명)이 행자교육을 수료하고 10일 치른 5급 승가고시에 전원이 합격해 사미(니)계를 받게 된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출가자의 삶에 충실히 임하고, 행자교육원에서 배우고 익힌 승려로서의 위의를 잊지 말고 고매한 품성과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고 사회를 밝히는 데 힘써주길" 당부했다. 행자교육원장 성웅 스님(직지사 주지)도 "종단의 미래를 책임지고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145명의 예비스님들은 "보리심을 내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중생들이 다같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모든 번뇌와 집착들을 놓아 버리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줄 아는 지혜로운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담장 밖의 풍경

새로운 수행자들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날. 직지사 만덕전 앞문에는 아침 일찍부터 은사스님과 속가 가족,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새롭게 태어나는 수행자와의 첫 대면을 앞두고 상기된 얼굴이다. 손에 손에 든 꽃다발이 학교의 졸업식 풍경을 연상시킨다. 만덕전 안을 살피던 군중 속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우와! 저기, 저기, 월담 스님이야. 좀 야윈 것 같아도 얼굴이 밝아 보이는 걸."

"어디, 어디?"

사미계를 수지한 예비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만덕전 앞 금강계단에 모습을 나타내자 울타리 밖 축하객들이 일순간 술렁였다.

"가사 장삼을 수한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걸요."

"그렇게 갈구하던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으니 잘 됐습니다."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춘 예비 스님들을 먼발치서 바라본 속가 가족과 불자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다양한 표정이다. 축하객 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한 예비스님'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중년의 부부는 끝내 돋음 발을내려놓지 못하고 그 예비스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부디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 주십사"라고 되뇌이며 합장하는 노부부는 필시 막내아들의 수계식에 온 것일 게다.

7개월 전 사찰에 봉사활동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여동생을 찾으러왔다는 한 보살은 눈시울을 붉히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금새 주루룩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기 바쁘다.

진천 용화사 주지 무위 스님은 신도 10여명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만덕전 앞을 지키고 있었다. 상좌 부견 스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다. 스님은 "출가해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여 년 전, 내가 출가할 때만해도 출가하면 무슨 말 못할 사연의 주인공인양 의심스런 눈으로 보곤 했잖아요. 내가 출가한다니까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고 급기야 언니가 절까지 따라왔어요. 그 덕분에 이제는 출가가 얼마나 큰 복전인지 알게 됐지만…."

무위 스님의 집안은 출가를 영광으로 안다. 오늘 사미니계를 받은 부견 스님은 무위 스님의 질녀다.

온통 축하의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침묵으로 만덕전 안과 밖을 주시하는 스님도 있었다. 의성 수정사 주지 법운 스님이다. 다섯 번째 상좌 서경 스님을 데리러 왔다. 그런데 꽃다발을 준비하지 않았다. "예비승이 되어 첫 걸음을 걷는 시작일 뿐 졸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축하와 뿌듯함이 듬뿍 묻어 있었다.

만남 그리고 격려

드디어 만덕전 문이 열렸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기다림은 정오가 되어서야 만남의 시간으로 연결됐다. 예비 스님들이 나와 은사스님과 신도들을 만났다. 긴 기다림 끝에 마련된 짧은 축하의 시간 곳곳에서 박수와 함성이 요란했다.

"스님! 축하드립니다."

통도사에서 출가한 8명의 예비스님에게 골고루 장미꽃 다발이 전해졌다. 경산 백암사 혜오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말사 스님들은 신도들과 단체로 참석해 대대적인 축하와 격려를 보내기 바빴다.

부산 해운대 부처님마을 주지 효범 스님은 상좌 도공 스님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부모님, 스승, 친구와의 모든 인연이 부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으니 자랑스럽다"며 싱글벙글 웃음짓는다. 방금 계를 받은 상좌는 "은사스님 이하 사중의 모든 스님들이 이렇게 축하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며 "모든 스님들과 함께 한길로 가기를 바랄뿐"이라며 허리를 굽혔다.

그렇다고 모든 예비 스님들이 담장 밖에서의 축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하는 것일까? 분명, 부모 형제가 찾아 왔건만 활짝 열린 큰 문을 놔두고 곁문으로 바삐 빠져나가는 그림자도 있었다. 그 그림자로 인해 가져 온 꽃다발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다시 속세로 향했다.

그래도 올곧은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하는 꽃의 향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천 직지사/글=배지선 · 사진=고영배 기자


경산 백암사 혜오 스님(사진 오른쪽)이 통도사를 본사로 출가한 예비스님 8명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담장 밖에서 손을 흔드는 신도들(위)과 "우리 강원에 오라"고 홍보하는 선배스님들.

"축하와 격려 아끼지 말아달라"

'새로운 수행자의 탄생은 모두가 축하하고 드러내 기뻐해야 할 일이므로 행자교육원 회향하는 날 신도들과 함께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

조계종 제30기 행자교육원의 회향을 앞두고 행자들의 소속사찰과 은사스님에게 교육원의 공문이 날아왔다. 지금까지 행자교육원의 회향, 즉 사미(니)계 수계 의식이 철저한 통제 속에서 엄숙히 진행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지하고 엄중히 진행됐던 행자교육원 회향일에 은사스님은 물론 재가불자까지 불러 모아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장 법장 스님은 "새로운 수행자의 탄생은 자랑스럽고 환희로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계의식은 엄숙히 봉행하더라도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순간만큼은 마땅히 축하받고 격려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원은 은사 스님과 신도들이 찾아와 축하해줄 것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별도의 축하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았다. 수행풍토가 흐려진다는 계단위원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암을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핸드폰…신행의 새로운 안내자

길 찾고 보시금 내주고 "똑똑하네"



찬불가 벨소리 통화연결음 불자 자긍심 높여
성지순례 등 활동 사진 공유하며 친목 도모

핸드폰이 똑똑해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들에게도 핸드폰은 이제 필수품이다. 사찰을 순례하거나 보시를 하는 등 핸드폰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다.

 # '나 불자' 알리기

아파트 현관이나 가정집 대문에 보면 어느 사찰에 다니고 있다는 명패를 붙여놓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웃주민들은 명패를 보고 저 집에 사는 사람이 불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핸드폰에서도 내가 불자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핸드폰의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를 찬불가로 설정해 놓으면 된다. 이동통신 3사의 대표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찬불가를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로 설정할 수 있다. 다운받을 때 소액의 경비가 들어가지만 한번 설정해 놓으면 내가 불자임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불자로서 자긍심도 높아진다.

법주사 포교국장 각우 스님은 "스님들이나 독실한 불자들에게 핸드폰을 걸었을때 통화연결음으로 반야심경, 천수경, 삼귀의 등이 나오면 기분이 좋다"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으로 찬불가를 설정해 놓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히 포교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찬불가 대중화에도 도움이 되어 신도들에게 자주 권한다"고 말했다.

 # 산사 이렇게 가세요

최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주말에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번도 참배를 하지 않은 사찰의 경우 가기가 쉽지 않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Nate Drave, K-Ways 등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처음 가보는 사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길이 막히는 도로나 우회도로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행 등으로 사찰을 찾는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등산 애호가들을 위해 등산로가 표시되는 산악용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어 깊은 산속에 위치한 암자 등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으로 추억 남기기

최근 출시된 핸드폰들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이제는 일상에서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화되어 있다. 성지순례 등 신행활동 중에서 남기고 싶은 추억이나 신도들간의 친목을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이젠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사찰 홈페이지나 불자 카페 등에 올려놓아 신도들과 공유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 4학년 김지숙양은 "학생회 도반들과 법회를 보고난 이후나 성지순례를 갔을때 사진기가 없으면 주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며 "도반들과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신행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불자들에게 함께 할 것을 권하기도 하는 등 신행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집에서도 보시해요

이동통신 3사에서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뱅킹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한마디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사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등비, 불사비, 기도비 등을 계좌이체를 통해 보시할 수 있다.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법당에 접속해 보시를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1~2년내에 모바일 뱅킹이 새로운 보시 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C-NET 조원희 대표이사는 "바쁜 업무로 사찰을 찾지 못할 경우 핸드폰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기도비를 보시한 일이 있다"며 "보시를 함으로 해서 직접 사찰을 참배하지 않아도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신행활동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4

배터리 충전 확인 하셨나요

촬영을 위한 준비사항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캠코더 이외에 다른 주변기기가 필요하다.

캠코더를 작동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배터리의 충전 여부다. 막상 촬영에 들어갔는데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흔히 범하는 실수임으로 영상 촬영 전에 캠코더를 켜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하다보면 영상이 흔들리는 현상을 누구나 경험한다. 인간의 손으로 캠코더를 잡고 촬영을 하다보니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떨리게 된다.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형 캠코더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떨림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기기가 바로 삼각대다. 삼각대의 슈어답터의 나사를 캠코더 하단부의 나사 구멍에 넣어 조인 이후 슈어답터를 삼각대에 고정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슈어답터를 잊고 그냥 촬영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 슈어답터가 없으면 삼각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와 더불어 삼각대를 사용할 경우 꼭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삼각대는 가격과 크기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촬영을 위한 필수 장비이므로 하나쯤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캠코더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지만 보다 좋은 소리를 얻고자 한다면 외부 부착용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를 부착해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외부 마이크를 장착한다고 해도 멀리서 소리가 나면 좋은 오디오를 얻을 수 없기에 최근에는 무선 마이크를 많이 사용한다. 무선 마이크는 소형 송·수신기로 작동하는데 송신기와 핀 마이크를 사용해 선명한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다. 다만 소리가 울리는 장소나 소음이 큰 장소에서는 잡음이 많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촬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또하나 있다. 바로 영상을 녹화하는 테이프다. 최근에 출시되는 캠코더들은 보통 6미리 디지털방식의 비디오 테이프를 주로 사용한다. 디지털 방식의 테이프는 화질이 좋고 여러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P모드와 IP모드가 있지만 화질을 고려한다면 SP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래된 캠코더의 경우 아날로그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8미리 테이프를 사용하며 디지털 방식보다 화질이 떨어진다. 촬영하기에 앞서 비디오 테이프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촬영하다보면 촬영량이 생각보다 늘어나 테이프가 부족해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촬영을 시작할때는 테이프에 30초 정도 컬러바나 검은색 화면을 미리 녹화해 두면 다른 촬영을 할때나 편집할 때 유리하다. 촬영을 마친 테이프는 하단부에 위치한 녹화방지탭을 잡김으로 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누구나 촬영한 테이프를 오래 보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 테이프를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화질에 변형이 생기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안된다.

김두식 기자

클릭! 즐겨찾기

조계종 궁금하세요?

온라인 행정 등 6개 메뉴 구성, 산하 단체도 상세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조계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다.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hism.or.kr)에는 조계종 안내, 조계종 소식, 승가교육, 신도교육신행, 자료실, 온라인 행정 등 6개의 메뉴를 갖고 있다.

각 메뉴에는 세부 메뉴를 통해 조계종은 물론 산하 단체 등도 상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다.

특히 조계종 소식 메뉴에서는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언론에 비친 조계종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kr도메인 9월부터 등록, 불교계 관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정보통신부가 2단계 kr 도메인 도입을 위한 '도메인 이름관리준칙'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kr 도메인 등록을 개시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kr 도메인은 '.co.kr' '.or.kr' 등에서 'co' 'or' 등을 생략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유권 분쟁을 줄이고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2단계 kr 도메인 도입 시 '초기등록기간'을 마련하고 정부기관 및 기존 kr도메인 등록자에게 우선 등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초기등록기간이 종료되면 2주간의 '동시등록기간'을 거쳐 도메인 등록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중복 신청된 도메인은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단, 사찰 등 기존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 제 단체는 물론 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에서도 kr 도메인에 관심을 갖고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천연 연꽃 화장품 "蓮"

흙탕물에서 고운꽃을 피워내는 우수한 정화능력과 중금속에 대한 저항이 놀라운 연꽃에서 정제추출한 연꽃 추출물은 피부에 대한 보습효과가 매우 우수하며 지속사용 시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켜 활기차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한다.

가격: 48,000원(출시 특판 행사가)

생산품목

서가래, 부연, 초익공, 이익공, 계자각,
외삼포작, 외삼포/내오포작, 외오포
내칠포작 등 법당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최고의 작품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스님께서 직접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 2동 467-20
대표전화 : 02)494-4890~1
상담전화 : 011-9228-6814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마음을 읽는 비법사주전문반모집
포교와 회원관리의 첩경은 사람마음의 파악에서부터...
철학원개업에 필요한 통합강의
(사주학,상담요령, 대체의학, 처방법, 작명,궁합,택일..)
문의:010-2207-1638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전문
집안에 이유없이 우환이 많고 사업이 잘안되고 집안이 어수선한 가정은 집안에 객사 청춘 조상이 있는 가정
서울시 양천구 신월 6동 550-12(수국사)
02)2603-2992
011-340-5963

사랑골 절 **금용사**
된장 간장 판매
5년, 10년, 15년, 20년
1킬로당 1만 3천원
보살님 백일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 원하시는 분 받습니다.
011-261-4405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재	륙	시		출	전
식	재	재	식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특효!! 위장약 특별보시
오래된 위장병, 위염, 급체 복통, 대장, 구역질, 신트림 위가 더부룩하고 속이 쓰릴때
복용후 효과없을시 전액 환불
1개월분 3만5천원
대도한의원
농협계좌 187-02-274348 예금주 이양희
010-3121-4984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1개월 전문가 완성
◐ 부자와 재벌은 겨울(水)태생이 많다
TEL : 02)2231-8894
H.P : 010-9959-8894
미래음양회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해송빌딩3층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아름다운 섬 통영 사량도
상도 불모산 옥녀봉 탄금사
관음기도 영험도량 불사중
동참 소중한 인연 발원
017-229-8652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빠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처 (02)2631-2205,130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 2~3일 (단체교육 50만원)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 1일 (단체교육 30만원)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02)720-5682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51)637-0546
016-672-2238

사찰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8-427-2256

복지사업을 위한 사찰내 관리할 스님 및 동참할 분 모십니다
▷ 경북 고령
017-501-2315

충북 영동 저승길이 밝아지는 박닭산에서 노보살님을 모십니다
▷ 월보시 : 첫달 150만원
그 다음달부터 매월 5일 30만원씩
간병사 보시는 별도지급
불교신앙촌
043)743-0102
043)731-04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합니다
02)917-3363(서울정릉)

사찰운영 하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불심돈독하고 PC가능한 45세 이하 女경리보살 구합니다
▷ 숙식가능. 월보시 100만원
경북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공양주 보살, 사무직 직원 구합니다.
031)472-8490

사찰을 운영하실 수 있는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010-3138-4897

미국가실 비구,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소유)
042)282-9270
042)282-7188

사찰에서 운전 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
010-2385-3455

산세좋은 청정도량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요
054)433-6315

수행할 수 있는 토굴이나 한적한 암자를 관리하면서 수행 정진하길 원함
▷ 충청 경기 강원 지역
48세 비구
010-4561-5675

법당,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5세이하
전북 고창
063)564-2861

토굴에서 수행할 비구 및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해주실 공양주 및 처사님을 구합니다
011-9803-6301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 조일태(39세) ○ 신장 : 167cm ○ 체중 : 68kg 정도
- 주소 : 마산시 양덕동
- ※ 특징(실종당시) ○ 머리 : 삭발상태
- 복장 : 상의-흰색 티셔츠,하의-검정색 츄리닝 신발-맨발상태
- 말씨 : 서울말씨 (약간의 정신지체 있으나 위험하지 않음)
- 실종상황 : 2005년 12월 1일 부모님과 경남 함안군 산인면 성왕사에 동행하여 부모님이 불공을 드리던 중 오후2시-3시경 말없이 사라짐. 부모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찾아 주시는 분께 후사 하겠습니다.

연락처 : 055)294-7178/011-593-7178/011-852-7631

구 성 학 강 의
나이만 알면 의뢰한 사람의 당면 문제를 말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 일 시 : 2006년 3월 23일 목요일
◆ 시 간 : 오후 7 ~ 9시 ◆ 수강료 : 90만원(3개월 12회)
◆ 강 사 : 보현 한인수 (010-5540-0089)
◆ 장 소 : 동방대학원 대학교 ◆ 문 의 : 02)745-2141
◆ 수료증 발급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840-5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053)359-2225, 359-3644

제1기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종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석철근스님) ⑫영가천도
● 지방분 환영 ● 포교활동 하실분 ● 스님동참환영 ●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고, 생일불공
●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635-7008 상담은
018-789-5008 서울739-5008 마산245-2662 중요합니다

프로폴리스 (세계적인 명물)
프로폴리스는 모든 인체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소승이 직접 벌에서 채취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뛰어난 항균 항산화를 작용하는 프로폴리스입니다.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건강기능 양봉원 성구 합장 010-2779-223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16일(목), 17일(금), 21일(화)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경전중심 체계적인 교육
● 3월16일(목), 3월17일(금) - 주간반, 3월21일(화)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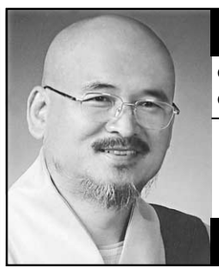
▸ 행자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양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충재) 부교수 악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안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수 강 회 원 모 집
◆ 周易原典講座 개강
◎ (수) 오후 7시~9시 - 4월5일개강(주역 계사전)
◎ (수) 오전 11시~1시 - 5월3일 개강(주역입문)
◆ 중용(中庸) 개강
◎ 매주 (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4월5일 개강
◆ 논어(論語) 개강
◎ 매주 (목) 오후 7시~9시 - 5월 4일 개강
◆ 월 수강회비: 주역 7만원, 기타 6만원
(사)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www.dongbang.or.kr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수 강 생 모 집
◆ 불교전통의식
● 기초반 : 목탁요령(예불 불공)
● 중급반 : 49재 및 시식
● 고등반 : 범패(영산재 제반의식)
◆ 교 수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재 기능보유자(범패) 혜륭 큰스님
◆ 장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3동 679-18 관음정사 (영남범패 전수 교육원)
◆ 전 화 : 051)255-1905
011-597-0781(보암)
사단법인 부산영산재 보존회
이사장 혜 륭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 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5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 (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 화엄시식 · 상용영반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6년 4월 6일(목) 오후 3시 (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20평(목조)
● 요사 : 25평
● 부지 : 760평
● 가액 : 6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부지 : 81평
● 가액 : 2억5천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목조)
● 요사 : 4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7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수유동산속사찰건60평-월80
시설5천+건물40평더있음
2.경기광주18000평-36억
복지시설로허가납
3.남한산성내사찰부지
1800평-7억,계곡접
●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스맥, 대체의학 천수가능. 무료 천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 종 800평,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4개, 창고 50평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2천만원

055)883-884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북면 권이리
● 대지 572평 건평 94평
● 황토요사채포함 건물 3동 심야전기 설치
● 요양원 기도원으로 사용가능(방10개)
● 저수지 부근, 계곡 좋음
● 가액: 3억5천5백만원

011-561-3591
011-9518-9713

포교원안내

● 위치: 의정부시청 잔디광장 앞 공영주차장근처 의정부 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일요법회에는 주차비 무료
● 5층 건물중 4층 42평 인등 480등 영가 300위 108불 불사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16년째 포교당 운영중

011-258-6432
031)873-8171~2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주생면
● 대지: 200평
● 건물 3동있음
● 4천만원
● 참선 기도처로 적합

010-5631-8439
017-401-493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 대지: 400여평
● 건물2동(100여평)
● 수천세대 아파트단지 백양산 자락
● 포교원으로 매우 적합
● 가액: 12억

011-587-2275

● 위치 : 수원시내
● 종교부지 : 130평
● 법당 : 18평(목조)
● 요사 : 25평
● 가액 : 2억9천 (융자 1억6천 별도)

● 위치 : 부산
● 대지 : 50평
● 법당 : 4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억 8천 (융자 1억5천 별도)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국립공원내 사찰 터 안내

● 위치: 충북 월악산 국립공원내 소재
● 부지 : 52,000평
● 가액 : 5억
● 내용 : 제1월광폭포, 제2월광폭포가 52,000평 안에 소재함

연락처 010-7559-2550

암자안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5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1-584-4418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찰안내

● 위치: 영천 I.C에서20분거리
● 대지 350평 임야 200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용왕당
● 가액: 2억원(절충가)

016-831-30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명당사찰안내

● 위치: 충북 충주 ● 대지: 330평
● 건물: 15평 3층 45평 1동 35평 2층 70평 1동
● 앞에 강이 있고 뒤에산 최고의 전망 별장으로도 최적임
● 서울시청 1시간 거리 하천부지도 사용가능 꼭하실분만 전화요망

주인직접 010-9406-2749

사 찰 안 내

사찰안내(전세)
● 위치: 경남 함양군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단청)
● 요사 : 40평, 산신각 : 5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도심인근사찰로 포교지로 적지

● 위치: 경남 사천군 사남면 소재
● 부지 10,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산신각 : 3평
● 가액 : 2억7천만원
● 특징 : 산중사찰로 수행과 기도정진할 도량임

좋은인연 됩니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당안내

● 위치 : 대부도 내
● 약 50평, 방5개, 법당약30평, 삼존불
● 가액 : 1,000만원 6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010-4215-9119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산신당(목조단청), 용왕당,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층탑
● 건평 약 400평, 반지하방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한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표기와로된 사찰임 ● 직접거래

011-858-889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 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최고 요지
● 20여년된 사찰,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9천 5백만원 가격절충

0502-244-388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오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500만원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11-599-8476

토굴 안내

● 위치 : 영천IC 5분거리
● 평수 : 104평 중 등기 74평
● 법당 20평, 요사채15평
● 가액 : 4천3백만원 (융자 650만원)

010-9522-245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입구
● 평수 32평 2층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사찰안내

● 위치 : 서해안이 보이는 고잘(충남지역)
● 대지 국유림 5,000평,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능 (도로포장)
● 가액 : 5억

010-7115-5778

최고의 사찰 부지

● 山水 최고의 명당 대청호변
● 총4400坪 중 대지 905坪 土木工事 완료
● 가액 : 10억원
● 위치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549-2

연락처 010-8403-9205

건축허가 득한 포천 토지 422평

● 위치: 포천 직동리
● 광릉수목원 숲과 붙어있음.
● 가액: 2억 2천만원
● 용도: 현재 조립식건물 있고, 건축허가 받았음. 암자, 토굴, 전원주택.
● 소유주와 직접거래

017-328-21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터안내

● 위치: 남안동IC 5분
● 임야: 13만평
● 평당: 4000원
● 관리지역 8400평, 농림지역
● 평지다수 산중도로양호 골재석 매장 다수

011-351-3264(주.야)

사찰안내

● 위치: 성북구 장위동
● 삼존불 108부처,영단 인등 방2개 거실 주방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3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888-0130

사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 250평, 건평75평 구조 : 법당,요사,창고 ㄱ자 형, 현대식 건물
● 산좌 수려,기도도량 최적지 아파트개발 예정지 근처
●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女행자 모집합니다

011-606-1976

암자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6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수련원안내

● 위치: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 평수: 대지 470평 건평: 51평
● 부속건물: 정자 실외화장실
● 용도: 명상센터, 단식원, 전통찻집
● 가액: 9천3백만원

011-9430-1144

도심속의 포교원

● 60평의 포교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된 비구, 비구니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 위치 : 위치 최상, 교통최상(부산 남포동)
● 평수 : 60평, 법당24평, 방3개, 접견실 2개 (혹상전체 사용) 한옥식, 게르마늄 온돌방
● 가액 : 보증금 3천5백만원/월50만원 (시절비 별도 협의)

011-9193-2351
010-8678-5442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옛집(고가)안내

● 위치 : 포항 청송 경계, 국도인접
● 대지 370평, 옛집, 방3개, 주방, 창고
● 마당앞 냇물 흐름
● 가액 : 7,500만원

010-2880-9856
010-6462-034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부근 서포항 아이씨에서 5분거리
● 부지 1,000평중 택지 260평, 법당15평, 산신각2평 용와당 5평, 연못 10평.
● 현시가 평당 30만원 요사채 신축건물 75평
● 가액 : 4억

054)246-2350
016-536-8774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김포시
● 평수: 50평. 3층중 2층
● 시설: 법당 주방 방2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1-212-0118

암자안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구옥 법당 15평 (주불 아이타 관음세지 양대보살)
● 지장불, 산신각 산 및 기도처
● 전망 좋음
● 집기 일체 절충가 6천만원

017-202-8755
02)2603-2992
011-340-5963

저렴한 토굴안내

● 위치: 충북 단양 시내에서15분거리
● 해발 500m에 위치한 앞이 확트인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대지: 100평, 건평 20평
● 창고, 농사지을땅 별도 매입가능
● 가액: 4천만원

010-6460-1316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경동시장 부근
● 단독주택 형태, 최근 리모델링
● 법당, 산신각, 방2개
● 가액: 전세 800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8677-089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암사1동 동사무소 뒷편
● 평수: 30평
●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3263-9992
019-264-0235

여주토지안내

● 위치: 여주 IC에서 1~2분거리 37번 국도 주변
● 신세계 명품 아울렛 이마트,월마트 물류센터 역세권 주변
● 단필지 200~400평
● 소액투자

011-346-9897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동구
● 대지 : 105평
● 요사채45평,2층법당28평 현대식 2층건물
● 실내욕실2, 실외화장실2, 창고,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절충가능)
※ 부동산 사절,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011-785-5670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화악산 자락
● 대지: 270평 법당: 목조기와 단청 남향 요사: 3동 황토 심야보일러
● 지방문화재 가까움 산세 계곡 수려함
● 가액: 5억7천만원
● 집기일체양도

011-9058-1051

포교당안내

● 위치: 대전시 유성시장내
● 유동인구 많음
● 약25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436-7529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산신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암사1동 동사무소 뒷편
● 평수: 30평
●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3263-9992
019-264-0235

여주토지안내

● 위치: 여주 IC에서 1~2분거리 37번 국도 주변
● 신세계 명품 아울렛 이마트,월마트 물류센터 역세권 주변
● 단필지 200~400평
● 소액투자

011-346-9897

사찰안내

● 위치: 대구 동구
● 대지 : 105평
● 요사채45평,2층법당28평 현대식 2층건물
● 실내욕실2, 실외화장실2, 창고,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절충가능)
※ 부동산 사절, 관심있는 분만 전화요망

011-785-5670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화악산 자락
● 대지: 270평 법당: 목조기와 단청 남향 요사: 3동 황토 심야보일러
● 지방문화재 가까움 산세 계곡 수려함
● 가액: 5억7천만원
● 집기일체양도

011-9058-1051

포교당안내

● 위치: 대전시 유성시장내
● 유동인구 많음
● 약25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436-7529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산신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토굴안내

● 위치: 강원 영월 중동면 녹전리
● 대지 100평, 전 800평 건평 23평, 3월 준공한 신축건물
● 심야전기보일러, 현대식시설, 조경완료
● 산세 수려한 천하절경으로 수행터 또는 별장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33-378-0327
010-3464-03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부근 2층
● 약 80평(주차시설 완비)
● 법당, 삼존불(동), 후불, 신중탱화 방사 4개, 공양간
● 가액: 일억사천만원 보증금 7천만원(월세,관리비 없음) 시설비 7천만원(절충가능)
● 서울,구리,성남,이천,원주 일대 포교당과 교환가능

011-9788-3306
011-9987-221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내당동 아파트밀집지역
● 4층건물 3층
● 평수: 법당 40평 요사채 방2개 부엌 주방 욕실 창고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2757-234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시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
● 평수 40평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 각단탱화
● 방2, 주방1, 실내화장실 모든시설일체 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월 30만원 시설비 1900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사찰안내

● 위치: 대구 송현동 2층 건물 2층
● 평수 : 7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300만원
● 대형주차장 입구 즉시법회 가능

053)655-0619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대가면
● 대지 : 80평 4칸 기와집 1동, 마을끝집, 집기일체
● 가액 : 3.000만원

011-544-5967

사찰(급)안내

49재 등 각종 행사 해 드립니다.
(의식전문,부전스님,공양주,사찰사찰터,토지,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계양. 상가2층 38평
● 법당: 18평, 요사: 2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전국 어디든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삼보전에 공양 올리겠습니다.

삼보불사
011-9769-8868
02)736-4589

불복장 봉안내용 담은 '조상경' 最古본 발견





1575년 간행된 용천사본 일반 공개
팔영산 능가사본보다 100여년 앞서
태경 스님 "화엄사상 담긴 경전" 주장

불상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의식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전인 <조상경(造像經)>의 최고(最古)본이 발견됐다. 또한 의궤가 있어 그동안 밀교계 경전으로 알려진 <조상경>이 화엄사상을 드러낸 경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태경 스님(사진)은 최근 발간한 <조상경>(운주사 간)에서 1575년 추월산 용천사에서 간행된 <조상경>을 일반에 공개했다.

<조상경>은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물론 불복장(佛腹藏)과 점안의식(點眼儀式)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불복장에 사용되는 복장물의 종류 및 의미 등 의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전이다.

이번에 발견된 용천사본 <조상경>은 일산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태경 스님이 1년여간의 자료 수집과 다른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최고본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국내에 발견된 <조상경>은 1677년 팔영산 능가사본, 1720년 화장사본, 1746년의 김용사본, 1824년의 금강사 유점사본 등 4가지 본으로 이번에 발견된 용천사본은 능가사본보다 100여년 앞선 판본이다.

태경 스님은 또 용천사본 <조상경>을 연구해 본 결과 그동안 의궤를 다루고 있어 밀교경전으로 분류되어온 <조상경>이 화엄 사상을 드러낸 경전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태경 스님은 "<화엄경>에서 도솔천에 있는 지당보살이나 수미산정에 있는 아수라 모두 달빛이 물에 비치듯이 초발심으로 보살행원의 공덕을 바다에 도장을 찍듯이 나타나는 것을 해인"이라며 "불복장에 오보병이 놓여지는 이유가 오보병에 가득 찬 청정한 물이 모든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드러낸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오보병 이외에 돌, 보석, 부적 등 불복장에 봉안되는 복장물에 대해서도 그동안 밀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보니 왜 봉안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다"며 "화엄의 성기사상(性起思想)인 보현행원과 해인삼매를 통해 복장물의 봉안 의미에 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태경 스님은 "<조상경>은 진실의 <대장일람집>, 자현의 <묘길상대교왕경>, 선무외의 <삼실지단석>, 시호의 <불모반야바라밀다대명관상의궤> 등 4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삼실지단석>은 9~10세기경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복장은 그 이전에 정형화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전 성립시기와 저자가 뚜렷이 알려져 있지 않은 <조상경>은 그동안 목판의 크기와 체제, 판각의 서체 등 판본 비교 연구는 있었으나 사상적인 연구나 주장은 전무했다.

또한 불복장에 좁쌀, 천 등의 유물이 왜 봉안되는지, 방향을 나타내는 오방이 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등 불복장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 해석을 하는데 학계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조상경>을 펴낸 운주사 김시열 사장은 "그동안 <조상경>에 대한 이해나 번역 자체가 아예 없었고 불복장 또한 구전이나 스님들이 경험적으로 봉안하던 것이 관례였다"며 "<조상경> 연구를 통해 복장물을 여법하게 모실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회암사 선각왕사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경기도박물관에 보관되어온 보물 제387호 회암사 선각왕사비(檜巖寺禪覺王師碑 · 사진)가 3월 14일 김홍식 성보보존위원회 전문위원의 감독하에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이관됐다.

고려말 나옹화상(懶翁和尙) 승탑 비로 우왕 3년(1377년) 회암사에 세워진 선각왕사비는 1973년 산불로 파손된 것을 1998년부터 3년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했으나 이후 보관상의 문제로 그동안 경기도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왔다.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비문을 짓고 조선 태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권중화가 예서로 글을 쓴 회암사 선각왕사비는 대리석으로 이수와 비신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같이 만든 것으로 고려말 대표적인 비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측 선각왕사비 외에도 동국대박물관과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계종 소유 성보문화재를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관할 계획이다.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이번 성보 이관은 불교중앙박물관 수장시설과 성보관리 체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단 성보문화재를 원활하게 회수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깨달음의 원동력은 '자연과의 교감'

보조사상硏 · 한국선학회 월례발표

"<전등록>은 법계의 구성에 따른 중층적 분류는 물론 해당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 · 식물과 무정물(무기물질)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다."

3월 18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동국대 최동순 강사는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생태관'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최동순 강사는 <전등록>에 수용된 불교적 세계관과 생태학적 위치에 대해 <전등록>에 수록된 공안에 나타난 선사들의 자연관을 중심으로 불교의 법계관과 동물관 등의 대상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으로 논리를 풀어나갔다.

최동순 강사는 특히 "부처님도 밝은 별을 보고 대각을 이루었고 수많은 선사들 또한 자연생태에 대한 무한한 교감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살생의 생태적 문화에 대하여'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김치온 강사는 <범망경> <대반열반경 > <능가경> 등에 나타난 불살생 계율을 예로 들며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자비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학회도 제41차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3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학술발표회는 성균관대 정현수 교수의 논문 '십현담에 대하여'와 고려대 주호찬 교수의 '벽송지엄 벽송당 야로송에 대하여'가 1부와 2부에서 각각 발표된다. 총회안건으로는 '2005 학회활동 및 회계감사' '제4기 임원선출'이 상정된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4>

돌과 반도체

선사들이 대중에게 들려주는 법어에는 선문답과 같은 말들이 포함된다. 그 비논리성(혹은 초논리성)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곤 한다. 그 말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파격일 수도 있고, 깨달음의 느낌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 과학기술의 시대에 이러한 파격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또한 불자들의 숙제일 것이다.

'돌 계집이 애 낳는 소식'이라는 경허 스님의 말씀은 깨달음의 소식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이다. 돌은 무생물이므로 애를 낳을 수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 황당한 비논리의 수사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질책일 수도 있고, 또는 수행 중에 느끼는 자기의 사라짐,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의 애매해 짐, 그리고 갇혀 있던 자아의 해방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른다.

대학교 생물학 첫 시간에 교수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점을 밝히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명백한 차이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두개의 개념이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흔히 생물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자손을 복제하는 능력은 무생물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돌이 비로부터 받은 물과 흙에 섞여 있는 돌의 성분으로부터 자기의 모양을 복제하는 능력을 보면 참으로 신비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신진대사를 하면서,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을 생물의 정의로 들기도 한다. 무생물인 호르몬 · 피의 신진 대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생물의 작용을 이해하면 할수록 놀라운 신비를 느끼게 된다.

지구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규소는 흔히 바닷모래를 이루기도 하고, 바위를 이루기도 한다. 재미있게도 생명을 이루는 기본 원소인 탄소와도 같이 규소는 바깥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 원소이다. 그리고 탄소가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어 금강석이 되는 것과 같이 규소는 같은 모양으로 실리콘 결정을 이룬다.

또한 탄소는 수소 등과 결합해서 탄수화물, 단백질과 같은 생물을 이루는 기초 원소가 된다. 세계 1류 기술로 자랑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바로 이 규소로 구성된 실리콘 결정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이다. 현미경으로 반도체 칩의 동작을 측정한 사람은 무생물인 돌이 가지는 수많은 기능들, 그리고 칩 내의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사이의 상호관계들이 생명 현상 만큼이나 오묘하고 복잡함을 느끼게 된다.

탄소와 규소, 같은 전자 배열 갖고도 결합방식과 하는 일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전자 배열을 가진 탄소는 생명을 만드는 데 비해서 실리콘은 왜 무생물인 반도체, 혹은 돌이 되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무생물이면서도 생명을 이루는 탄소와 비슷한 전자배열을 가진 돌에게서 애를 낳은 격외를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가 과연 단순히 격외인지, 과학에서 말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는 지를 다같이 깊이 고민해 볼일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찰터안내
• 위치:충남 금산군 신정리(임)
• 42,000평(관리, 농림지역) 충남 최고의 청정지역
• 저수지 접해있음, 자연경관 최고, 부지까지 진입로 확보 사찰부지, 체험휴양관광지 연수원, 최고적지
• 가액:평당 25,000원
042)525-0035
016-449-140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 약 40평(인법당)
● 법당 :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토굴임대
● 위치: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09-3
● 큰방1 작은방2 법당 주방입식 지하수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완비 (몸만오시면됨 가정살림도 가능)
● 전세 2000만원 월세 1000만원 월 10만원 (현재 비어 있음)
● 그림 글 수도 수양 공부 작품활동적합 단 무속인이나 무녀보살은 일체사양
● 자가운전자 필(스님우대)
TEL. 031)912-7114
一山 청담사 주지 벽담 합장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가피!
57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신규 동참자 특별 선물
청견스님께서 밝은 기운으로 한 호흡에 握筆로 쓰신 "佛"자 붓글씨,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염송 TAPE
◆날 짜 : 2006년 3월 25일(토요일) 저녁 9시 ~ 2006년 3월 26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수련복(하의)2매, 간단한 간식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 서울 군자법당 02)456-4994, 0035
☞ 지하철 5,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 백악관 방향 200M 이망스 가구 4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옥산동
● 법당 : 3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3443-0277

수도권 토지분양 안내
● 최고의 투자처
● 역세권, 확정, 진행지
● 도시지역, 관리지역
● 도로근접
● 안정, 수익, 환금성 탁월
011-306-074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대지 170평, 전 480평
● 가액 : 6500만원
● 산세수려하고, 수행기도처로 적합
011-594-1526

찾습니다
서울근교 산중사찰을 전세 놓으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011-436-0097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영동읍에서 20분거리
● 평수 : 198평
● 건물2동,법당1,요사채1,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043)744-3331
011-491-2347

실버타운 및 찜질방 적지
● 위치: 충남 대둔산 휴양림 접경지역
● 경관: 폭포,계곡이 있는 산새수련한 청정지역
● 부지: 임야.전.답.대지등 2만3천평(관리지역)
● 부대시설: 2층목조주택및 황토가마등 200여평 (사찰지로도 적합)
※임대,매매 가능
011-9878-4159

일주문



용성 대종사 66주기 추모재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3월 23일 오전 10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용성당 진종 대종사 제66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대구 경북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연수
대구 · 경북불교사회복지기관시설연합회장 성웅 스님은 3월 18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제2회 대구 · 경북불교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인드라망 불교귀농학교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도법 스님은 3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불교귀농학교를 연다.



고승법어집 봉정법회
불교신문사장 향적 스님은 3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고승법어집 <쥐가 고양이 밥을 먹다>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실천승가회 11차 정기총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성관 스님은 3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수국사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다.



대진 스님 초청 '서장' 대강좌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은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진 스님을 초청해 간화선 지침서인 <서장> 대강좌를 진행한다. (02)823-7443



사찰음식전시회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3월 25일 오후 1시부터 26일 오후 4시까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사찰음식전시회를 연다.



가족 한방 건강강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3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일산불교병원에서 '가족 한방 건강강좌'를 개설한다.



창립 12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은 3월 12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립 12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인사

불교방송 △청주지방사 총괄국장 전진수 △문화사업단 기획팀장 박상필 △보도부 정치안보팀장 박관우 △보도부 경제산업팀장 강동훈 △보도부 사회문화팀장 김봉래

"환수위원에 불교인사 포함돼야"

'내원암 소송' 승소로 표창패 받은 최용규 의원



내원암 친일파 토지 소유권 소송과 관련, 승소에 큰 역할을 한 열린우리당 최용규(사진) 의원이 3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내원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친일과 관련한 일을 시작할 때 이에 대한 각계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최 의원은 "조계종이 내원암 건과 맞물려 집회를 여는 등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줘 큰 힘이 됐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또 "특별법에 따른 환수위원회 구성이 8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환수위원 9명중 역사학자 3인 속에 불교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이 법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대한 시비와 관련 최 의원은 "형사적 사안이었던 5 · 18 특별법 등이 시행된바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용수 기자

이제열 법사 강좌마련

'초기경전 및 대승경전…'



"불자들이 경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행 교육도량을 만들겠습니다."

오는 4월 서울 종로에 '불교수행교육원'을 개원하는 이제열 법사(사진)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초기경전 및 대승경전의 이해와 수행'이란 주제로 경전공부모임을 지도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는 문답 시간을 갖는다. (02)737-8227

김철우 기자

봉선사 32기 교양대 및 12기 불교대 개강



교종본찰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 제32기 불교교양대학 및 제12기 불교대학이 개강했다. 교양대학은 3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매주 한차례씩 진행되며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031)527-1951~3

안양불교대학 입학식



안양불교대학(학장 현호)은 3월 12일 안양지장선원에서 기초반 9기, 경전반 7기, 야간반 2기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날 입학식은 헌공다례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및 학사보고가 있은 후 안양불교대학 학장 현호 스님의 입학허가 선언과 신입생 선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031)444-5936

2년만에 '지구협의회' 승격 등 봉사 맹활약

대한적십자 총재상 수상 박추자 불교봉사회장

"돌아보면 어떻게 해왔는지 스스로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상마저 내려놓고 인연이 닿으면 그곳에서 봉사하고,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흐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매년 각 지사에서 봉사활동, 후원 등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선정 수여하는 '대한적십자총재상'을 수상한 박추자(62 · 원신향 · 사진) 대한적십자불교봉사회 회장. 대한적십자사내에 '불교' 깃발을 세운지 4년 만에 큰 상을 받았다.

박 회장은 "회원들과 그동안 적십자불교봉사회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라는 이름을 걸고 봉사를 해 왔고 회원들 모두가 부처님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봉사해온 성과"라고 소개한 박회장은 "이 상은 불교 전체가 받은 상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불교봉사회의 활약에 적지 않게 놀라며 불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4명의 정회원으로 시작했던 봉사회가 100명의 회원으로 늘어났고, 1년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구협의회로 승격하는 등 전례가 없는 일들을 이뤄냈다.

특히 최근엔 지사 활동 외에도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타 지구협의회보다 예산이 3~4배나 많고 자체 봉사를 나가는 곳이 10여 곳이나 될 정도여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박 회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봉사를 하려면 너무 잘나선 안돼요. 칠푼이라야 해요. 모자라는 삼푼은 봉사로 채워나가면서 더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천미희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구순잔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3월 15일 센터 1층 경로식당에서 올해 90세를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구순잔치를 열었다. 이날 30여 명의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절을 받고 후원업체의 무료 점심 공양을 받았다. 또 3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와 간단한 게임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연꽃대학 입학식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산하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6일 복지관 내 3층 대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곡연꽃대학 입학식을 열었다. 주민간의 연대감과 행복한 이웃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는 부곡연꽃대학은 매달 1회의 정기 강좌와 총 12개의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다.

■ 경찰서 유치장에 '부모은중경' 1000권 보시



김경식 세신애드컴 대표이사

"부모님의 은덕에 보답하려거든 부모님을 위해 거듭해 경전을 펴내도록 해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부모은중경> 중

불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신애드컴 김경식(53 · 사진) 대표이사가 바로 그 사람. 김경식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어머니 3년 상에 맞춰 <부모은중경>을 발간한 뒤 최근 1000권을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기증했다.

"정기적으로 절에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심이 깊었던 어머님을 기리고자 부모은중경을 기증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이사가 경찰서 유치장을 기증장소로 생각하게 된 것은, 교도소와 달리 유치장은 사소한 실수로도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부모은중경을 읽고 빨리 참회할 것 같아서다.

김 대표이사는 아버지 제삿날과 겹치는 올 우란분절에 경찰서 유치장뿐만 아니라 소년원 등에 <부모은중경>을 법보시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교국가에 경전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1권이 불교국가에서 10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연이 닿았으면 합니다." (02)394-7430

"부모님 생각하면 참회 빨리 될 거예요"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생노병사의 천하 대도통비법 육신심신 정신세계 신비의 타심통육경신대법회 |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대운맞이 삼재팔난 일체고액 소멸 천도 영산 범패 봉행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 타심통 대법회



생노병사의 비밀인 근본 허공청정, 진공묘유인 운명과 수명과 생명은 정신세계에 있으며 영과 혼의 비밀법을 3월 양력 31일 자시와 4월1일 오시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 자와 卍자 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대 용맹정진 수행법에 입문하시어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법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업장이 소멸되어야 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윤달든 병술년 음 3월 3일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에 1번이 들고,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타심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타심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고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주어 자아도통은 물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병술년 음 3월 초 3일과 4일 이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재수대통하소서! 금년 삼재묵는 띠는 인,오,술띠이고 원진상충띠는 잔나비띠,뱀띠)

모든생명은 태식 비법에 천하의 건강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달마도법 태식법은 도통군자들의 수행 비법인 것이고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마장과 질병의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제하는 육경신수행법인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병술년 음3월 31일과 4월 1일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고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며,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을 경신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업장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참회하여 업장소멸 하시고 만사 형통하소서.

특히 이번 타심통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인 비만, 혈압,당뇨,관절,정신질환,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루에 단 10분으로 쾌차할 수 있는 심기태식법인 기공수련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 남녀혼기를 놓쳐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삼재팔란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범패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도통하시어 만사형통 하소서.

만인의 스승이 되는 비서풍수지리 비장 감여보감
중국 천하를 통일시킨 풍수병법의 감여보감진본. 곽박선생의 저서. 비밀인 풍수지리에 황제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곽박선생의 직손이 보관한 비서와 황금천냥과 교환합시다.
016-239-3110 / 02)822-6622 곽

특별 생노병사 해탈법 및 태식법과 허공청정 상담
☎ 02)821-7767,016-239-3110

● 입제 : 양력 2006년 3월 31일(음, 3월 초 3일 금)(해시)
● 해제 : 양력 2006년 4월 1일(음, 3월 초 4일 토)(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총 본산 태일합장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불자 세상보기

김 규 칠
언론인

다양성 살리기와 죽이기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에 서울 강남의 기독교계 모 대학에서 '종교간 벽 허물기'와 '이웃종교 이해하기'의 취지로 강의 해오던 이 모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방송관계자들과 불교계 사찰을 함께 방문하는 기회에, 남의 집 예방시 그 집 주인이나 집안 어른에 대해 인사하는 것처럼 예의로서 본존불에 경의를 표한 것을 이유로 삼아 이번에 교수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을 어떤 학교와 한 사람의 교수에 관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 방침의 잘잘못을 가리거나 어떤 교수를 두둔하고 안하고의 차원을 떠나 그냥 넘길 수만은 없다.

학교는 학교대로 방침과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해당 교수는 교수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또 표면적인 구실과 내면적인 이유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일에 참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사고경향이 횡행하는 세태의 하나로서 이번 사례가 인식될 소지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독선과 아집이 지구촌을 갈가리 찢어 놓으려 하는 정세에 돌입해 있다. 겉으로 드러낸 문명과 종교와 신념의 충돌이라는 이름 하에 실은 속에 감춘 이익과 교만과 지배욕이 송곳처럼 튀어 나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며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입은 민주와 관용과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도 내심은 나와 내 편이 살아남아야 하고 이겨야 하고, 나와 내 편의 생각과 이익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꽉 차 있다. 남을 향해서는 이해와 관용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기의 아집과 이익과 핏대는 조금도 완화시킬 마음이 없는 것이 그들, 관념과 허위의식의 노예들이다.

지금 지구 마을 곳곳에서는 이중 잣대, 자기기만과 타자기망을 일삼으며, 표방하는 관념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관념의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대중을 사로잡고 있지나 않은가, 아니 대중 스스로도 자기들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 올 피해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데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나라의 안팎을 불문하고 관념적 종교와 문명의 실상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진실한 종교인들의 진지하고 순수한 믿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력과 조직과 이해관계의 타산으로 닳고 닳은 무리들이 관념적 종교와 문명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야만의 행세를 하고 있는 점은 없는 가 자문도 하고 타문도 해보자는 말이다.

이른 바 계몽의 시대가 새벽을 열기 직전에 독일의 극작가 '레싱'은 "진리는 소유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색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릇 인간이 표상하고 표현하는 진리란 아무리 고상하고 성스러워도 조건적 세계의 형상과 언어와 형식을 통할 수밖에 없는 한,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면서 겸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어설픈 반(半)계몽사상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이천오백년도 더 전에,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진정한 '온' 계몽의 사상이 이 세상에 출현하였건만, 아직도 크고 작은 세력들의 세상에서는 그 진의가 요익중생의 실천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관념의 유희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정말 관용과 중도의 종교인 불교가 앞장서서 실천 차원의 '참다운 계몽의 새 시대'를 열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도들 끼리, 우리들 자신부터 '서로 다름'에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할 것이다. 단,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겉으로만 부드러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진정 그 속내가 부드러워야 할 것이다.

위 예의 해당 교수가 참여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목은 '똘레랑스(관용, 이해의 여지)'였다. 마침 그 프로그램의 취지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취지에 대한 이해가 수박 겉핥기식이거나 일회용으로 그치고 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종교 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란 어떤 것이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관용인가'에 관해서도 차제에 불교가 앞장서서 사회통념상 동의할 수 있는 공감대 비슷한 것을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종교간 논의를 제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연등축제를 국민축제로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연등축제가 오는 4월 3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들어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연등축제가 금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지 벌써부터 자못 궁금하다,

연등 공양의 공덕에 관한 기록은 여러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 <증일아함경>에서는 등광여래가 보장여래에게 매일 연등을 공양한 공덕으로 성불의 수기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연등은 무명과 탐욕의 어둠 속에 헤매이는 중생을 지혜와 자비의 밝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와 공덕은 지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불교적 인식과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어져 고려시대에는 연등회가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다. 연등회는 태조 때에는 정월 보름날에 행해졌지만, 현종 때부터는 2월 보름으로 바뀌었고, 공민왕 때부터는 사월 초파일에 궁중에서 열렸으며, 이러한 풍습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다.

광복 이후 다시 성행하게 된 연등법회는 이제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중심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특히 서울 종로 일대에서 행해지는 연등축제에는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등축제는 아직까지 불자만의 집안 잔치라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축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 노래와 율동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봉축위가 불교레크레이션협회와 공동으로 '연등축제 율동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할 것이다. 원시시대의 음악과 무용이 원래 종교적 성격과 축제적 성격을 겸비했던 것임을 상기한다면, '신명나고 역동적인 참여축제로서의 연등축제'라는 봉축위의 기본 구상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이렇다 할 축제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연등축제가 전통놀이문화를 흡수하여 '국민축제'로,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박경준(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지도자의 처신

"국왕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일을 덜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으로 은혜를 베풀면 국가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방등경〉

요즘 정치인들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은 예전에 있었던 단순 추태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들이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사퇴'라고 하는 겨자를 울며 먹은 이해찬 前 총리. 재야 운동권에서 필드운동권(?)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그가 끝내 낙마하고 말았다.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여러 차례 '현장'이 아닌 '필드'로 출동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일 철도파업의 와중에 부산 지역의 한 골프장에 있었다. 그냥 운동을 즐겼다고 해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씨는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내기골프를 치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잊혀 질만 하면 나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명박 서울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이 시장은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이 시장 다운 발언이다. 또 몇 년간 이용료를 내지 않고 '황제 테니스'를 즐겨왔던 것도 최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해찬과 이명박. 두 사람 모두 국왕만큼이나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들은 이제 짜증낼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랄 뿐이다.

■유철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새봄을 맞은 캠퍼스는 활기가 넘친다. 그러나 갈수록 신입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현실은 올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불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배들의 고민을 들어본다.

"신입회원 모집 너무 힘들어요"

신입생 홍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입생들이 불교 동아리에 대한 관심 정도가 생각보다 매우 낮다는 것과 홍보 포스터를 붙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포스터를 붙이면 그 다음날 바로 다른 동아리가 우리 포스터 위에 다시 붙이기 때문이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더 끈질긴 동아리들의 테러(?)에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만의 포스터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여대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동아리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불교라는 이미지가 신세대 여대생들에게 고리타분하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학교에서 개최하는 '동아리 박람회' 때 신입생들과 함께 예쁜 단주를 만들면서 불교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할 생각이다.

권누리(동덕여대 불교학생회장)

예산 미비로 전략 못 펼쳐

요즘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입학 후 동아리 활동이나 과 활동보다는 취업 준비로 더 바쁘게 보내고 있다. 공무원 준비나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한 활동 비중이 커지다 보니 자연히 동아리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특히 종교 동아리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떨어진다.

동아리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 동아리 자체적인 행사 역시 축소 할 수밖에 없다. 또 동아리 유지비 등을 모금하기 위한 권선 등의 활동들이 위축되고 자체 예산이 모자라 운영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타 동아리에 비해 신입생들을 유치하는데 다변화된 전략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다. 차를 한잔 마시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돈이 들며, 동아리를 알리는 기념품과 포스터 제작도 운영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신입생 환영행사 및 체육대회 등 자체행사를 위해서도 꽤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 비해 수입은 너무 미비해 한숨만 절로 나온다.

박경훈(대구대 불교학생회장)

적극적인 마음이 '희망'

요즘 나는 너무나 초라해서 사먹기에도 아까운 사탕이지만 이것을 신입생들에게 직접 다가가 주면서 "불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주세요"라며 목이 쉬어라 정문 앞에서 외치고 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매일 사탕 한 자루씩을 사고 있다. 이결과 지난해 초 회원 1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올해는 4일 동안 3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신입생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학생 선배들의 적극성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일단 기존 선배 회원들부터 스스로 열심히 해야만이 주변 연계 사찰에서의 지원을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나 혼자 시작한 유료 회원이 올해는 여러 법우들의 적극성에 힘입어 건양대 총장님과 관촉사 주지스님, 지도법사 성원 스님의 후원으로 이어졌다.

절대로 홍보 부스만을 만들어 놓고 "오세요~!"라고 해봤자 아무도 오지 않는다. 스스로 정진하지 않으면 나를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신입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자.

신동우 (건양대 불교학생회)

'현대' 만평 심 민 섭



전 총무원장 법장스님 관련자료를 찾습니다.



법장큰스님께...
큰스님이 떠나신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큰스님의 인자한 미소가
그리워 집니다.

큰스님이 너무 그리워서 어제는 조계사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큰 스님의 흔적 한 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
한참을 조계사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큰스님이 계시지 않는 조계사 마당이 왜 그리 넓게 느껴지던지 ...
휑한 바람만 맞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에 큰 스님에 대한 그리움만 한 켜 더 쌓였습니다....

인곡당 법장대종사 문집간행위원회에서는 스님의 1주기를 맞아 큰스님과 관계된 자료를 찾고있습니다. 간직하고 계신 법장스님 관련 자료수집에 수희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스님의 자료- 사진, 법문테잎, 동영상 자료등
2. 스님과의 사연 - 생전 스님과 인연에 관한 사연, 에피소드 등
3. 열반하신 스님께 전하고 싶은 편지글 등

보내주신 자료, 사연 등은 법장큰스님을 우리 모두가 기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기록물이 되도록 문집간행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한 자료는 반드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인곡당 법장대종사 문집간행위원회

자료보내실곳 : 서울 종로구 수송동58 두산위브파빌리온 1012호 (우110-858)
tel : (02)723-4336 e-mail : imlabor@hanmail.net

봉 고경사 자광 큰스님 행

경북종무원장 취임 및 회갑 법회


자광스님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원만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영주 청정도량 고경사 자광 큰스님의 대한불교본원종 경북종무원 취임과 회갑을 맞아 제방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조촐한 축하법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많은 축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50년 4월 1일 토요일 (음, 3월 4일 사시)
◆장 소 : 경북 종무원 용암산 고경사 대웅전
◆문 의 : (사)대한불교본원종 경북종무원 고경사 054)638-8886~7

경북종무원 취임 및 회갑 법회 봉행위원회
총무 : 김감로수 / 노감로화 합장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17-506-5677 / 011-9566-2967

7천년된 靈木(영목)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


수억원을 호가하는 사연산 영목 작품

영목(靈木)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메타세콰이어(Meta-Sequoia)라는 나무로서 은행나무, 소철 등과 함께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원시 나무로 이 세상에 알려지기는 1941년 중국 사천성(四川省) 장강 (長江) 유역에서 발견되면서였다.

국내에서도 충북 청원, 전라도 일부 지역에 묘목을 식재하여 가로수로서 현재 자라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영목(靈木)은 약 7천년 전 중국 사천성(四川省) 민강(岷江)유역에서 자생했던 나무로 지각의 변동에 의하여 산소가 없는 강바닥 진흙에 묻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탄화가 되어서 썩지 않고 원래의 나무 재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발견이 되었다.

중국의 사천성(四川省) 정부는 이를 분석해본 결과 7천년 전 자생했던 메타세콰이어 라고 밝혔고 나무 원래의 형체 그대로 보존이 된 것으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영목(靈木) 또는 신목(神木)이라고 지칭하여 이를 보존하되 그 형태가 기이하고 기(氣)가 충만해 있음을 알고 이는 지구상에 오직 한곳 밖에 없는 재생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연 상태의 영목(靈木)을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研究院)' 을 구성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영목(靈木)의 예술성과 과학성, 문화성, 학술성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고궁박물원(古宮博物院)' '중국수집가협회(中國蒐集家協會)'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 '사천사회과학원(四川社會科學院)'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 세계에 영목(靈木)의 진귀한 가치를 알리고 있다.

영목(靈木)의 나무 재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며 은은한 중약향(重藥香)은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엄청난 기(氣)를 도운다 하여 중국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중국 속담에 '만금(萬金)이 있어도 영목(靈木) 있는 것 보다 못하다' 할 만큼 귀한 것으로 여겼다.

누구나 이를 소장(所藏)하고 있으면 잡귀(雜鬼)를 쫓고 액운(厄運)을 물리친다고 믿고 있어 소장을 원하여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귀한 가치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스님들은 영목(靈木)으로 염주(念珠)와 법인(法印)을 만들어 항상 지니고 다니며 정기(精氣)를 맑게 한다고 하여 도량에서 정진을 할 때 부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 국내에서도 몇몇 고승들께서 귀하게 지녔다고 한다.

그동안 영목(靈木)은 중국정부로부터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 하였으며 실례로 세계적인 부호인 발게이츠가 자신의 저택의 내부를 영목(靈木)으로 장식을 원하였으나 개인의 용도로 제한된 영목(靈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한 일이 있다고 사천성(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研究院)'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목(靈木)으로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영목불사추진협회(靈木佛事推進協會)' 에서는 중국 사천성(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研究院)' 와 협의 하에 불기(佛紀) 2250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스님과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님께서 영목불사(靈木佛事)의 참된 뜻과 영목(靈木)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영목(靈木)으로 백팔염주(百八念珠)와 단주(短珠)에 부처님의 신비함과 그 영통함을 한알 한알 담아서 드리고자 하기위해 많은 동참을 바라고 있다.


중국 사천성강장 영목 발굴 현장

엄청난 기 발산 정신 맑게하고 혈액순환 도와
백팔염주 · 단주 등 불자들에 큰 인기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승진이나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는 분, 무병장수를 원하거나 소원을 비는 불자님은 영혼이 담긴 신비한 영목염주(靈木念珠)로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호국불사(護國佛事)로 유명하신 무변대사(無邊大師)님은 영목(靈木)의 불심(佛心)이 불사(佛事)로 이어져 영목불상(靈木佛像)이나 관음상(觀音像)이 국내에 세워지길 바라고 있으며 달마도(達磨圖)로 잘 알려진 경남 고성 달마선원(達磨禪院)의 청광선사(淸光禪師) 김용대(金容大) 화백께서도 영목(靈木)의 신비함과 엄청난 신기(神氣)로 이루어진 영목백팔염주(靈木百八念珠)를 불자님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다. 여러 사정상 비록 한정된 수량으로 많은 불자님들에게 드리지 못함을 '영목불사협회(靈木佛事協會)' 관계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와 협의를 해서 불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협회에서는 개인의 흉상(胸像)을 실물크기로 특별제작 상담을 하고 있으며 예자 형 인물 부조(浮彫)나 기타 공예조각품, 불사를 위한 특별한 작품을 위해 상담 및 중국 현지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영목(靈木)의 진가와 그 예술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중국(中國) 사천성(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靈木藝術學術研究院)' 와 협의하여 대규모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영목불사추진협회 02-3445-8856)



영목으로 만든 예지형 부조

영목으로 제작된 흉상


영목 염주


조각중인 영목




발굴한 영목

7천년된 靈木(영목)의 신비함을 한 알 한 알 부처님 염주에 담았습니다!

사업번창, 소원성취, 합격, 승진 기원, 무병장수 부처님 전에 영혼이 담긴 靈木염주로 빌면 이루어집니다!
지니고만 다녀도 액운을 물리칩니다!


백팔염주1, 단주1, 보관함1, 실크주머니1, 성분 분석표1

靈木(영목)이란 神木(신목)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四川省 岷江 유역에서 발견된 약7천년된 고목이 홍수, 지진 등 자연변화를 거쳐 진흙 속에 묻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탄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모진 고난을 겪어 모양이 기이하지만 나무재질은 아주 견고하고 흑갈색으로 우아하다. 靈木은 지구상에 한곳밖에 없는 매우 희소한 나무로 영원히 재생하지 못하므로 더욱 진귀함을 느끼는 것이다.
靈木의 은은한 향은 정신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우며 눌를 도운다고 하여 건강에도 좋다고 한다.
靈木을 소유함으로서 富(부)를 얻고 무병장수 한다고 하며 생명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여 중국 四川省 '영목예술학술연구원' 에서는 '고궁박물원', '중국수집가협회', '중앙미술학원', '사천사회과학원' 등 20여명의 저명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靈木의 과학성, 학술성, 문화성, 예술성을 전문 연구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靈木은 그 희소 가치로 인하여 약 2m 정도의 조각품을 현지에서도 수 억원에 호가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법인(法印)과 염주를 만들어 지니면서 잡신을 쫓고 정기를 맑게 한다고 하여 귀하게 여겼으며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여 부적(符籍)처럼 소장한다고 한다.
불기(佛紀)2250년 석탄일(釋誕日)을 맞아 국내 최초로 불심(佛心)이 깊은 불자(佛子)님 몇 분께 현지에서 靈木으로 수(手) 제작한 백팔 염주와 단주를 바칩니다.
靈木 염주로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빌어 만사형통하시고 무병장수,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靈木으로 佛事를 하시거나 특별한 수 공예품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도 해드리며 중국 현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靈木佛事推進協會(영목불사추진협회) 대표전화 02)3445-8856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570 호


청주불교신행회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소년원 아이들을 위한 간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처님 일은 하려고 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 김 회장의 미소가 부처님의 그것과 닮아있다.

옳다 싶으면 실천해야죠



인생의 가장 힘든 고비에 이웃의 어려움을 깨닫게 된 김상문 회장.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그는 집을 나선다.

청주불교신행회 김상문 회장

소년원 방문 엄마의 손길 전하기 10년째
대학 입학한 아이들 전화오면 마냥 행복
올 3월 불교대학 개원, 인재양성에 진력
출·재가 노후 함께하는 수행공동체 계획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시련에 부딪치면 기도를 한다. 가족의 병만 낫게 해 주면, 실패한 사업을 재기하게만 해 주면, 내 아들이 대학에 붙게만 해 주면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기도라기보다 일종의 '거래'에 가깝다.

청주불교신행회 김상문(54) 회장은 인생의 가장 힘든 고비에 봉사라는 문을 두드렸다. 교직에 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역시 매일 법당에서 기도를 했다. 일심(一心)으로 기도를 하며 남편의 병이 낫기를 바랐다.

하지만 문득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에 혼자 누워있을 김 할머니, 합의금이 없어 열다섯 나이에 소년원에 가게 된 민재(가명),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보육원에 맡겨진 한 살배기 수정이(가명). 자신이 어려울 때 다정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와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들이 애타게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어려운 사정은 당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병석에 있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난지 한 달 만에 남편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교단으로 돌아갔다. 10여 년 전부터 청주불교신행회의 운전봉사를 해 오던 그에게는 신행회 일을 도맡아 하게 될 일이 생겼다. 청주불교신행회를 창립한 신호식 거사가 2003년 급작스럽게 타계한 것이다.

"신 회장님이 늘 힘들고 어렵게 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운영을 맡게 돼 통장정리를 해 보니 잔고가 1만600원에 불과하더군요. 300~400여 명에 이르던 회원도 반으로 줄고…. 하지만 신 회장님과 재가불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신행회의 문을 닫을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야 했지요."

그때부터 김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달걀을 떼다 팔고 헌옷을 기증받아 판매하기도 하면서 기금을 모았다. 그 돈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해 드리고 아플 때면 차로 병원에도 모시고 갔다.

10년 째 이어오고 있는 소년원 방문도 빼놓을 수 없었다. 매주 소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간식을 마련해주고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과 등을 두드려주는 엄마의 손길이 아이들에겐 더 필요하다는 걸 그는 안다. 종교를 강요하지도, 지나친 간섭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매주 법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 제자가 될 싹을 키워가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불교반 아이들 중 3명이 대학에 진학해 장학금 100만원을 어렵게 마련해 건넸다. 그 아이들이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다며 전화를 한 날, 김 회장은 법당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얼마 전에는 신행회 사무실과 법당을 현재 위치한 상당구 북문로로 옮겨왔다. 버려진 소파나 식탁, 책꽂이 등을 주워와 사무실을 꾸몄고, 법당에는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여법하게 부처님도 모셨다. 이렇듯 새벽같이 신행회 사무실에 나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김 회장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마음도 안타깝다. 신만덕장(72) 보살은 "우리 회장님은 밥 굶는 걸 일삼아 하는 분"이라고 말한다.

"혼자 저렇게 동분서주하는 것 보면 너무 기특하지. 근데 내 며느리나 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워. 내 며느리였으면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박았을 거야.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앞으로 우리 회장님 도와서 이 일 이어나갈 사람이 빨리 나타나야 할 텐데 말이야."

이제 조금씩 신행회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는데, 지난해 김 회장은 또 다른 일을 벌였다. 불자들 신행활동의 등불이 될 불교대학을 개원하기로 한 것이다. '옳다 싶으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라는 김 회장은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랜 준비기간 끝에 3월 7일 문을 연 청주불교신행회 부설 동산불교대학 청주지회에는 50여 명의 불자들이 입학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불교대학을 개원하면서 부처님 일은 하려고 하면 다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아직 성하니, 뭐라도 더 할 일이 있겠지요."

마음먹은 일은 당장 해내고야 마는 김 회장이지만, 그에게도 아직 진행형인 계획이 하나 있다. 바로 출·재가가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일구는 일이다.

"남녀노소, 출·재가를 불문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모 자식이 되어주고 눈과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 인연을 세상에 회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이렇게 원을 세웠으니 언젠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부처님 인연으로 사람을 만나 인연맺는 일이 너무나 즐겁다는 김상문 회장.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 못하죠. 신행회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건 집 현관문 들어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집에서 힘들었던 일은 법당에서 부처님께 삼배하면 싹 없어집니다. '힘들다'는 마음의 싹이 자라지 않게 수시로 마음을 쓸어내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버려야 살게 되는 진리를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043)252-0305

청주/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National Literary and Art Festival 2006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 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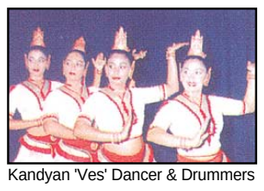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 (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상조(국민상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Tradil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국제불교 교류협의 초청하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캔디안 댄스 –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영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0〉 만권거사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고 했다. 다섯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비로소 서로 대화할만한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의 어원은 장자(莊子)가 친구 혜시(惠施)가 가진 책의 분량을 오거(五車)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두 사람의 수준 있는 대화는 제자백가서 여기저기에 언뜻언뜻 보인다.

오거(五車)는 만권(萬卷)과 같은 말일 것이다. 만권은 많은 책을 말한다. 그래서 책좀 있다는 서재는 흔히 만권당(萬卷堂)으로 불리었다.

대구 비슬산 어귀에 있는 남평문씨 세가(世家)에도 '만권당'이 전해온다. 물론 현재의 '인수문고' 전신이다. 원래 인홍사라는 절이 있던 곳으로 폐사지다. 절집기록에 의하면 고려말의 일연선사가 11년동안 머물면서 삼국유사 역대연표를 정리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책하고 인연이 많은 터인 것 같다.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사내에 '종성문고'가 개원되었다. '사자굴 속에서 만권책을 벗 삼았다'는 종성화상(2004년 열반, 백양사 서옹선사의 제자)의 개인도서 만오천권 기증에 따른 것이다.

당나라 때 강주(江州:江西 九江)땅의 행정책임자인 자사(刺史)벼슬을 한 이발(李渤:773~831)은 별명이 '만권(萬卷)거사'였다. 만권은 현 시대에도 적은 양이 아닌데 그 당시로 말한다면 문자로 된 모든 자료를 섭렵한 대석학 즉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는 의미였다.

이런 그는 박학다식함과 함께 수행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당지장(마조의 수제자이면서 신라 최초로 선문을 연 도의국사의 스승)선사의 비문을 직접 짓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서당선사 입멸이후에 '대각(大覺)'이라는 시호를 내리도록 황제에게 아뢴 인물이기도 하다. 신심으로 당시 선종의 외호단월로서의 의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마조도일의 제자인 귀종지상(歸宗智常)를 자주 찾아 뵙고 법을 물었다.

하루는 경전을 열람하다가 '수미입개자(須彌入芥子)' 라는 말에 막혀 귀종선사를 찾아갔다.

"경전에 '수미산을 겨자씨속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큰 수미산을 저렇게 작은 겨자씨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지만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이라고 했다. 한 티끌이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나라 때〈서유기〉의 손오공은 유사시에 자기 머리털을 뽑아 입으로 불어 수많은 원숭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요즈음은 한 개의 세포를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유전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때는 책 만권을 섭렵한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구절이었던 모양이다.

'겨자씨속에 수미산을 넣는다'니 무슨뜻인지?
"만권 책의 지식이 어디에 들었나" 묻자 "아~"

그러자 질문을 받은 귀종선사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대가 책만권의 내용을 소화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으쓱! 저도 한 문자 합니다. 큭큭, 드디어 걸려들었군)"

"그럼 자사는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길이를 합해도 야자(椰子)만한데 그 만권책의 지식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만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역설적 물음에 번쩍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선종은 구질구질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냥 한마디로 끝낸다. 선문답은 촌철살인(寸鐵殺人) 그 자체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분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분당 하얀마음선원 천수다라니독송 현장

16살에 해인사로 출가한 용성. 의성 고운사에서 한국 근세 고승 수월 스님을 뵙고 묻는다.

"삶과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인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천수다라니를 부지런히 외라. 업장이 소멸돼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게 된다."

늘 깨끗이 씻고 향을 피워 일심정성으로 천수다라니를 지송한 용성 스님. 무거운 과거의 업장을 거둬내고 깨달음의 '밑천'을 얻는다.

천천히 외다가 점차 빨리 외야
'내 마음이 본래 불보살의 마음' 확인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장 녹여내

천수다라니의 힘은 무엇일까? 3월 15일, 지난해부터 매주 수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독송법회를 열고 있는 분당 하얀마음선원(원장 덕봉)을 찾았다. 늦은 저녁, 법당에 들어서자 40여 명의 불자들이 한 목소리로 다라니를 외고 있었다. 404자 천수다라니가 밀물과 썰물처럼 운율을 타면서 목탁에 맞춰 경쾌하게 흘렀다.

1시간이 지났을까? 선원장 덕봉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다라니를 외는 가운데에서도 온갖 잡념이 일어나지요? 그간 알게 모르게 지어온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잡지 말고 그대로 흘러 보내세요. 다라니는 번뇌 망상을 녹여내는 태양과 같아요. 그래서 천수다라니를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진 신묘한 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수다라니. 참회와 발원의 경전인 〈천수경〉의 핵심이다. 대범천왕이 관세음보살에게 '다라니가 나타내는 마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자, '아홉 가지 마음(九心)이 다라니다'고 답한 것에서 천수다라니를 외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자비심, 평등심, 무위심(無爲心), 공경심(恭敬心), 무상보리심(無上菩提心), 공관심(空觀心), 무견취심(無見取心) 등의 아홉 가지 마음이 곧 다라니의 본질과 생명임을 깨닫고자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는 이유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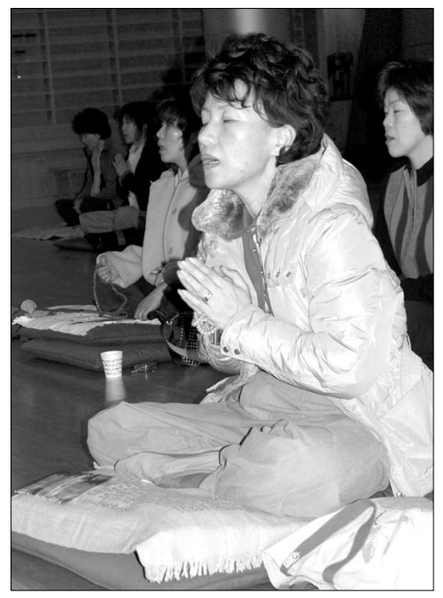
"천수다라니 독송은 '내 마음이 본래 불보살의 마음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선 수행의 기본이 된다는 말이지요. 사실 천수다라니는 중국 천태지의 대사를 비롯해 역대 선객들이 참선과 겸해 정진했습니다. 천장암 행자 때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던 수월 스님도 늘 천수다라니를 외면서 번뇌 망상을 완전히 녹여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고 합니다."

덕봉 스님은 천수다리니 독송이 참선의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천수다라니는 하나의 화두에요. 번뇌 타파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말이지요. 다라니 독송은 염불선(念佛禪)과 닮았지요. '염불하는 이 놈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를 화두 삼아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워 결국, 무념의 경지에서 '내가 부처(自性彌陀)'임을 깨닫는 염불선 수행법이 다라니 독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천수다라니 독송을 하고 있는 재가자들의 체험은 어떨까? 2년째 천수다라니를 외고 있다는 이명자(57 · 용인시 죽전동)씨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나는 왜 괴로울까' 늘 주변 상황만을 탓했지요. 그러다 천수다라니를 매일 108독을 하니, 주위에서 닥쳐오는 장애들이 결국 내 업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그러니 분노와 억울함으로 흘렸던 눈물이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변하더라고요."



천수다라니를 독송하는 재가자의 모습에서 수행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조희숙(46 · 성남시 서현동)씨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천수다라니를 21독 하면서 '자신이 변하니 주위 사람도 변하는' 이치를 깨닫게 됐다. 다라니 독송이 자신만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하얀마음선원은 불자들이 다라니를 보다 빨리 집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천천히' 독송하다 점차 '빠르게' 욀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라니를 소리 높여 욀 때는 그 외는 것을 돌이켜 볼 것 △입 안의 소리로 욀 때도 그 외는 소리를 돌이켜 볼 것 △입과 혀를 움직이지 않고 다라니를 생각할 때도 그 생각하는 것을 돌이켜 볼 것 등을 당부한다. (031)707-0108

글 · 사진/분당=김철우 기자

제1기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봉은사서 입제



참가자들이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에게 경책 받는 방법에 대해 지도를 받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무턱대고 찾아가 물을 자신도, 알아들을 안목도 없고…. 스승을 만날 인연만 기다렸지요."

3년 전, 공직생활을 접고 책으로만 간화선을 맛봤던 홍천희(60 · 서울 신천동)씨. 조계종이 종단 사상 처음으로 연 '제1기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입제식에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

3월 14일 오후 7시, 서울 봉은사 시민선방. 홍씨와 같은 바람을 안고 재가자 54명이 똬리를 틀고 앉았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의 "기대해도, 믿어도 좋다"는 말 한마디에 결연한 낯빛은 유연해진다. 황수경 지도사가 프로그램의 특징과 목적, 일정 등을 공지한다.

"여러분! 진정 내 자신이 부처님입니다. '왜 선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죠.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겪는 경계들을 어떻게 간화선적으로 해결할지,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아보게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10주 후, 달라진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은 철저히 간화선 수행의 '체험'과 '수행안목 키우기'에 맞춰져 있다. 즉 '기본기 다지기'에 주안점을 뒀다. 때문에 10주차 교육은 강의, 질의응답, 수행담 나누기 등 3교시로 짜여있고, 회향일은 전통사찰에 찾아가 수행체험을 갈무리한다.

특히 '수행담 나누기'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간화선 수행을 알기 전과 그 이후의 변화흐름을 공유하면서 자기 공부를 자연스럽게 점검할 수 있게 했다. 또 '매회 수행과제 도출하기'는 단순 교리강의의 한계를 벗고, 참가자 스스로가 '간화선 수행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직접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 진행된다. '수행일지'를 매일 쓰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세계 최고의 빙의 치료 전문가
「미국」 심리학자 볼드윈 박사의 6단계 빙의 치료법 공개!
전생 · 빙의(치유)사 과정
(전생, 빙의 3시간 치유기법 전수)
개 강 4월 12일
● 모집인원 : 전생 · 빙의반 : 30명 (수료자 전생, 빙의 치유사 자격증 수여)
● 교육시간 : 전생 · 빙의반 : (수)10:00~18:00 (매주 8시간×8주) 총 60시간 교육
● 국제 공인 트레이너 설기문 박사 직접지도 (한국 NLP · 최면아카데미 원장)
※ 자세한 교육내용 : 홈페이지 www.nh114.co.kr 참조 바람
박사 설기문 무료공개강좌

•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육학박사 – 상담심리학 전공)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역임
• 상담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 국제공인 NLP · 최면치료 · 시간선치료 트레이너
• 전생-빙의 치료 전문가
• 주요저서(역서) : 최면과 전생 퇴행, 전생 가기 참 쉽다.
▶ 무료 공개 강좌 안내 ◀
♣ 일 시 : 2006년 3월 29일 (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한국NLP · 최면 아카데미 교육장 (서울시청역 조선호텔 정문 앞 소공빌딩 3층)
정원 – 30명(선착순 예약접수 마감)
※ 자세한 내용은 www nh114 co kr 참조 요망
국제공인 교육기관
NH KOREA 한국 NLP · 최면 아카데미
교육/상담 : 02)757-8008

“쭉 둘러앉아 법회보면 좋을텐데…”



각자의 공간에서 2030세대 ‘컴퓨터 신행수다’에 참여한 불자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도안수, 달마보월, 진성, 공행.

“청년들 모임의 장 많이 생겼으면…”
불자라고 하면 ‘늙은이’라고 놀림받기도
지속적인 봉사활동 통해 배움-실천 연결

‘2030’ 세대 4명이 3월 13일 저녁에 모였다. 실제 만남이 아닌 PC를 통한 채팅 공간에서다. 이들 4명은 법회, 젊은 사람들의 신행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세대의 신행을 위한 공감대 찾기, 함께 들어가 보자.

 # 진행자(기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불교신문 김강진 기자입니다.

달마보월(본명 장영철 · 35): 달마라고 합니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불여사)’이라는 모임을 통해 불교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본명 곽기섭 · 32): 봉은사와 한마음선원 청년회에서 활동하는 진성입니다.

도안수(본명 김헌영 · 28): 도안수라고 합니다. 2년 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동네 사찰에다 적을 두고 있어요.

공행(본명 임재찬 · 26): 군에서 갓 제대했습니다. 공행입니다.

 # 진행자: 불교를 왜 좋아하나요?

달마보월: 불교하면 ‘산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통과 맞닿아있는 종교라 그런지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진성: 믿음 자체를 강요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도안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불교는 그 무엇보다 ‘내면’에 집중하기를 강조하지요.

공행: 저는 불교의 수행 방식이 좋아요. 참선이나 명상은 ‘참살이(웰빙)’를 중시하는 젊은 코드에 맞지 않나요?

 # 진행자: ‘불자’라고 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반응?

진성: 주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지 ‘불교는 사이비다, 늦기 전에 다른 길로 가라’는 말을 곧잘 들어요.

도안수: 속으론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무반응이에요.

공행: ‘늙은이’라고 그러던데요. 처음에는 속상했죠.

달마보월: 저는 뭐, 괜찮던데요. ‘그러려니’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 진행자: 요즘 불교계가 젊어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나요?

공행: 산사음악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록 공연을 한다든지,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도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달마보월: 교구본사들도 점점 젊은 불자들의 코드에 맞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법회에서도 스님들께서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진성: 우리가 이미 불교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선하다고 느끼는 것일지도 몰라요. 행사에 오는 젊은 사람들은 불교를 하나의 문화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편적이죠.

도안수: 그런 행사를 한다 해도 아는 사람은 진성님 말씀처럼 기존 불자들 또는 관광객들 정도에요. 그야말로 표피적인 데, 젊은 사람들이 꼭 ‘감각적인 것’만 좇는 건 아니에요. 본질도 항상 담보돼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에요.

 # 진행자: 사찰 법회는 재미있나요?

공행: 솔직히 법회가 좀 재미없는 부분은 있죠.

달마보월: 심오한 법회도, 가볍게 다가가는 법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회가 늘 재밌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성: 그렇지만 저는 법회 때 과연 처음 온 사람들이 저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요. 초심자 입장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한문이 나오면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도안수: 지루할 땐 기지개도 좀 켜고, 그러면 좋을 텐데…. 법회 자체의 분위기 보다는 그런 휴식시간이나 대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공행: 맞아요, 전 법회를 쭉 둘러앉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스님과 소담한 모임을 만들어 궁금한 것은 그때 그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 진행자: 젊은 사람들을 사찰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달마보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겠지요.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은 사찰의 몫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알아서 ‘모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유대감도 생기죠.

공행: 사실 젊은이들의 ‘불자회’ 자체가 많지 않죠. 제 친구만 하더라도 ‘절에 갔더니 순 할머니들뿐이어서 창피해서 법당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법회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달마보월: 전 ‘불여사’ 활동을 하다 보니 주로 회원들과 성지순례를 겸한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안산 ‘둥지청소년의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함께 볼링을 친다거나 하면서 오락도 즐기죠.

진성: 솔직히 술자리도 가지지 않나요? 불자들끼린 마음이 잘 맞아서 술자리 분위기도 좋거든요.

도안수: 사실 우리는 5계를 지켜야 하지만 ‘불음주계’만큼은 너무 지키기 힘들죠. 차츰 ‘술’을 ‘차’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공행: 저도 ‘술’은 좋아하지만…. 차담이나 등산 쪽이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 진행자: 젊은 불자로서 각오 한마디씩….

달마보월: 현재 나가고 있는 ‘불여사’와 같은 모임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갔으면 해요. ‘불자’까지는 아니어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사찰 순례를 다니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성: 저도 달마님처럼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배움과 실천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강추(반드시 하기를 권장함)입니다!

도안수: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불교대학에 등록할까 해요.

공행: 당면과제를 풀어야겠는데요? 제가 다니는 사찰에 불자 친구들을 모아 올해 봉축 행사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점점 젊은이들의 참여가 줄어든다는데, 올해는 우리가 앞장서야죠.

정리=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일터가 도량입니다

‘부처님 경영’ 제 꿈입니다

(주)준앤준INS 박준탁 대표이사

서울 봉천동 골목. 유흥가 밀집지역인 이곳에 유난히 차분한 건물이 눈에 띈다. 건물의 1층과 지하1층을 쓰고 있는 IT 전문회사 (주)준앤준아이엔에스(JUN&JUN INS)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겠다는 박준탁(35 · 승산 • 사진)대표이사 가 환한 미소로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다.

2003년 3월 설립된 홈페이지, 시스템구축 및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준앤준’에는 박 대표의 인생과 꿈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직원 7명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 식구들이 25명으로 늘어났고, 봉천동과 청량리에 각각 본사와 지사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성공’한 벤처기업이 된 셈이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인연 있는 스님들께서도 격려를 해주셨고, 또 불자 사장님들이 저희 쪽에 일을 많이 의뢰해주셨죠.”



‘불제자’를 자부하는 박 대표는 불법에 맞게 세상을 경영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박 대표가 일터에서 갖는 화두는 불법(佛法) 경영과 불교청년문화 토대 마련이다.

경영하면서 스스로 세운 원칙 중 하나가 ‘화가 나도 직원들 탓하지 않기’다. 그래서 차에도 사무실에도 늘 염주를 걸어둔다. 마음에서 불이 날 때마다 한 알씩 굴리다 보면 어느새 화는 가라앉고 평온한 기운만 남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이런 마음공부는 서울대 재학시절, 자운암 청년회장을 맡으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청년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 불자들이 부대낄 ‘토양’이 부족함을 알게 됐고, 직접 그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소식지를 내고 있는 ‘청년문화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힘든 일이 왜 없을까. 박 대표는 그저 어려운 일을 즐긴다며 웃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고비도 몇 번 넘겼다.

언젠가는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린 적도 있다. 주머니에는 500원이 남아 있었다. 그때 그는 절망 대신 ‘컵라면’을 택했다. ‘먹고 힘내서 다시 일구자’는 생각 때문이다. 이쯤 되면 배포가 두둑하다 못해 간이 크다. 하지만 박 대표는 “보증이 잘못되는 것보다 사람을 잃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면서 웃는다.

하지만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늘 외롭다. 옆 사람들이 아무리 챙겨줘도 경영자는 결국 혼자 결정하고 걸어가야 한다. 현실과 싸워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사회를 위해 환원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더 좋은 복지 환경을 책임져줄 수 있기에 늘 고민이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탄 배의 선장이므로 항상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힘들 때면 절에 가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제게 주신 불법의 크나큰 은혜를 사회 속에서 다시 베푸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대웅전 낙성식 및 백일기도

귀의 삼보하오며
한국의 삼대(三大) 관음성지로 이름난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한국 제일가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거룩한 이 도량에 30여 년간을 나무를 심고 터를 닦고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불자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千日기도와 함께 대웅전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고 대웅전 낙성식 및 백일기도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여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聶 庵 합 장

증 명 :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性 壽 大宗師

동 참 안 내

1. 대웅전 낙성식 법회 / 2006년 양력 4월 8일 오전 11시
2. 낙성식 축하공연(안숙선 명창, 연예인 김병조) / 오후 2시
3. 기도성금 : 30,000원, 영가 1위당 10,000원
4. 기념품 증정(접수 하신 분), 국민 119-01-0196-150 주병남
5. 관광버스 단체로 오실 분은 미리 연락바랍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기도영험도량
HAE DONG YONG GUNG TEMPLE
홈페이지: www.yongkungsa.or.kr
☎ (051)722-7744, 7755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3> 먼저 참다운 가르침으로 사실을 알고

<선가귀감>에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을 요점만 드러내고 있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먼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중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의 세상이 있는데, 그 부처님 세상은 중생의 고통이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다.

그 세상에 넘쳐흐르는 자비심은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근기에 맞추어서 여러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비유하자면 바닷물과 파도의 관계와도 같다. 바람이 불어서 출렁이는 물결이 일어나면 그 바닷물은 여러 가지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습은 바뀌었으나 파도는 여전히 바닷물로서 그 성분이 바뀌는 법이 없다. 변하지 않는 물의 성분을 불변(不變)이라고 한다면, 바람에 따라 일어나는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수연(隨緣)의 뜻이다.

부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 그것이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뜻이다. 중생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성품이 인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 이것이 수연의 뜻이다. 자기 마음에 있는 본바탕 성품이 불변이고 그 바탕이 인연 따라 달리 나타나는 모습이 수연의 뜻이다.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부처님이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알고 모든 공부를 끝내는 사람을 우리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만 하다면, 먼저 '부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더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부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하고 차츰차츰 닦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해오점수(解悟漸修)라고 한다. <선가귀감>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故 學者 先以如實言教 委辨不變隨緣二義 是自心之性相 頓悟漸修兩門 是自行之始終 然後 放下教義 但將自心 現前一念 參詳禪旨則 必有所得 所謂出身活路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자체가 부처님 성품이고 부처님 세상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참다운 가르침으로써 변하지 않는 불변(不變)과 인연에 따르는 수연(隨緣)의 뜻이 자기 마음에 있는 본바탕 성품과 드러나는 모습이며, 단번에 깨닫는 돈오(頓悟)와 차츰차츰 닦아 가는 점수(漸修)는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 교(敎)의 뜻을 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한 생각으로 선(禪)의 근본 뜻을 자세히 참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으니, 이것이 생사의 몸을 벗어날 수 있는 살길이다.

<선가귀감>에서는 뛰어난 근기로써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구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교(敎)를 공부해야 할 어중간한 사람들은 함부로 공부의 차례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불변(不變)과 수연(隨緣),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는 앞뒤 또는 차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교(敎)의 뜻이다.

선(禪)에서 말하는 법은 한 생각 속에 불변과 수연, 본바탕 성품과 형상, 그 바탕과 쓰임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불변이 수연이 되고 그 바탕이 쓰임새가 되어,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고 옳아도 옳은 것이 아니다. 파도라도 바닷물을 떠난 것이 아니고, 모습이 파도라도 그 실체는 파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큰스님들은 법에 근거하여 말을 떠나서, 바로 한 생각을 가리켜서 참 성품을 보고 부처님이 되게 한다. 교(敎)의 뜻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를 시작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이고 그대로 부처님 세상이다'라는 믿음이다.

<선가귀감>에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뜻이다.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불변과 수연의 뜻을 확실히 안다면 공부하는 근본을 알고 있는 것이며, 또한 참선 공부는 그런 뒤에라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 끝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생사(生死)의 바다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만 우리들의 업이 두텁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서 순수하고 빛나는 부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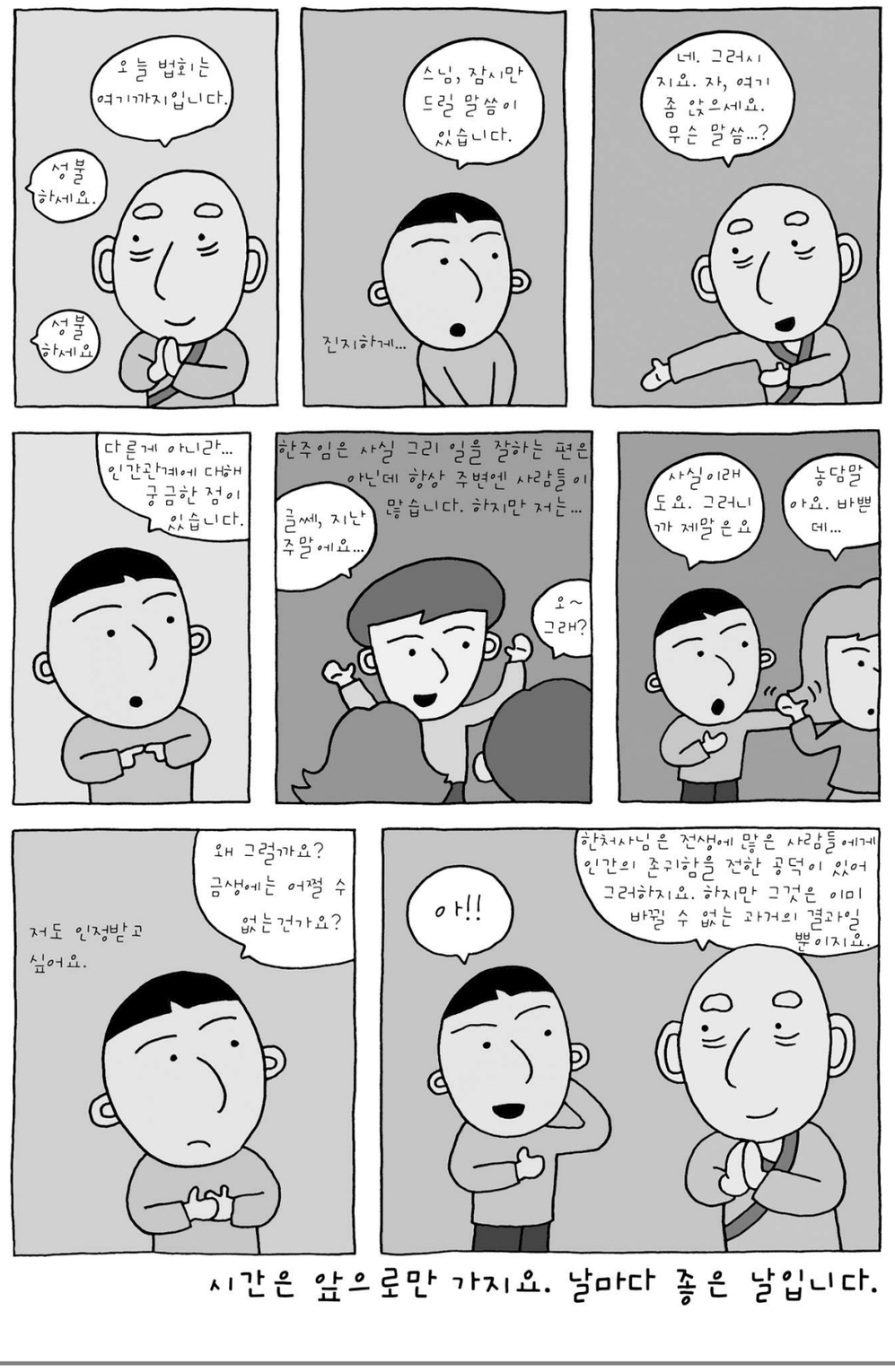
明歷歷時 雲藏深谷 深密密處 日照晴空
모든 것이 밝고 밝아 분명할 때에
비구름이 골짜기를 덮어버리고
깊고 깊어 그윽하고 고요한 곳에
푸른 하늘 높은 태양 찬란한 광명.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행복동 사람들

과거의 결과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울력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잘 아는 스님 절에서 며칠 묵은 적이 있었지요. 따뜻한 방구들이 어찌나 좋았던지, 꼼지락하기도 싫었지요. 그런데 수시로 목탁 소리가 절집을 울렸어요. 대중들이 모두 모여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였죠. 인상을 찡그리고 문을 나와 물었어요. '무엇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울력'이라 하더군요. 울력이라?

울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운력(運力)'이라고도 하는데 운력이 음변화를 일으켜 울력이 됐지요. 대개 하절기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절집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고, 동절기에는 김장 등 겨울나기 준비를 하거나 수북이 쌓인 눈을 치우지요.

울력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절집의 일손과 할 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대중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스님이든 신도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참해야 하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빠질 수 없지요. 그럼 울력을 왜 할까요? 울력은 협동정신의 모델입니다. 특히 홀로 수행해 깨달으려는 독각(獨覺)을 경계하려는 의미가 큽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4강 <금강경> 제 4장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이란 제목은 "완전한 행동은 토대가 없이 행해진다"는 뜻이다. 보살은 자신을 비우고, 남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의 삶은 늘 주고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불순한 보시로 얻는 복덕은 제한적이거나 해롭다. 지금 붓다는 '자아와 그 투사에 토대를 두지 않는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하고 있다.

復次, 須菩提, 菩薩於法, 應無所住, 行於布施. 所謂不住色布施, 不主聲香味觸法布施. 須菩提, 菩薩應 如是布施, 不住於相. 何以故, 若菩薩, 不住相布施, 其福德, 不可思量. 須菩提, 於意云何. 東方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南西北方, 四維, 上下虛空, 可思量不. 不也世尊. 須菩提, 菩薩無住相布施福德, 亦復如是, 不可思量. 須菩提, 菩薩但應如所敎住.

언해

"또 버거(*다음) 수보리야! 보살이 法에 반드시 住한 곳 없이 하여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색(色)에 주(住)치 아니한 보시와, 성향미촉법(聲香味觸法)에 주(住)치 아니한 보시니. 수보리야! 보살이 반드시 이같이 보시하고, 상(相)에 주(住)치 아니할지니. 어찌어뇨? 만약 보살이 상에 주치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사량(思量)하지(*헤아리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동방 허공을 어루(*가히) 사량하랴 못 하랴?" "아니이다, 세존하!" "수보리야! 남서북방(南西北方)과 사유상하(四維上下) 허공을 어루 사량하랴 못 하랴?" "아니이다, 세존하!" "수보리야! 보살의 주상(住相)없는 보시ㅅ복덕도 또 이 같아서 사량 못 하리니.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가르침같이 주(住)할지니라."

번역

"또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어느 경우이든 반드시 '토대(住)'가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다. 이를테면, 형체에 토대를 두지 않은 보시와, 소리, 냄새, 맛, 접촉, 관념에 토대를 두지 않는 보시가 그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렇게 보시해야지, '자아와 그 투사'에 토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왜 그러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자아와 그 투사에 토대를 두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헤일 수 없이 무한할 것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그럼 동서남북과 그 사이 사방, 그리고 상하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토대 없는 보시를 통해 얻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단지 이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유지해야한다."

무주(無住), 토대가 없는 보시

'마음의 토대(住)'란 대체 무엇인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 <프리티 우먼>이란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줄리아 로버츠는 길거리 여인의 통상 복장으로 고급 의상실을 들렀다가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하고 물러나야 했다. 의상실의 점원으로서야 당연하다. 누가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한 눈에 파악하지 않고서야 좋은 점원이 되기는 어렵다. 바로 이 목적, 혹은 동기, 즉 '물건을 많이 팔아 이문을 남기겠다는 것'이, 점원이 사람을 판단하고 대접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다. 거꾸로 다른 사람의 행동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 근저에 있는 토대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행동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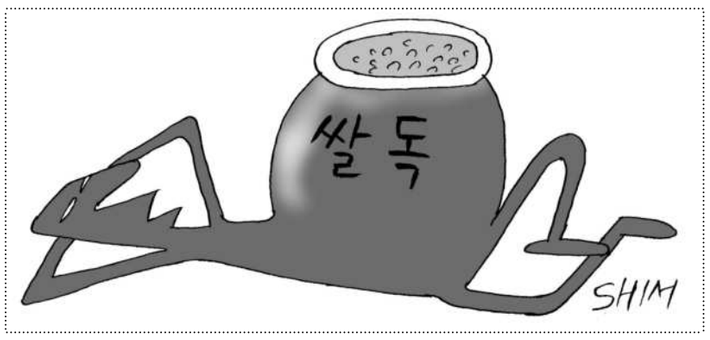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남에게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 서비스로 하여 돌아올 보답이나 반대급부를 예상한다.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계산이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네 삶은 그 토대 위의 상호 교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삼륜청정, 세상에 공짜도 있다

세상에 공짜 없다

예를 들면, 우리네 일상의 교제가 '직업'과 사업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도 그렇다.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또 한때 친했던 사람들도 직접 '일'에 관련되지 않으면 조금씩 멀어진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가족의 해체도, 그것이 보장하고 있던 이해관계의 끈이 점차 유명무실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면 지나칠까.

어머님은 언제나 "세상에 공짜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고도 하셨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다. 고을의 원이 선비들을 대접한다기에 남루한 행색으로 나섰다가 문전 박대를 당했다. 그는 돌아와 좌악 빼 입고 다시 갔더니 한상 거나하게 차려주었다. 그러자 선비는 술과 음식을 먹지 않고, 옷에다 들이부었다고 한다. 입성이 번듯해야 대접받는다. 입구에 선 자는 행색이 분명한 사람을 대접해야 나중에 무슨 혜택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산 없이 주고받는 일은…역시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태도가 보다 고차원의 전략(?)일수도 있다. 이익을 빠듯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내보이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삶에서 자주 경험한다. 비상한 이득은 눈앞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었을 때 온다. 또한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이익에 너무 이기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믿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상사에게 대하는 바와 부하에게 대하는 바가 너무 달라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돌리기 마련이다. 계산은 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조급할수록 복을 까먹기 쉽다. "장사는 긴 목"이라지 않던가.

보살의 삼륜청정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공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보살에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다. 사회의 미덕은 이런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학창시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거나,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은혜를 자신도 모르는 어느 어려운 학생을 위해 베푼다. 보시는 그래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름답다.' 법정 스님은 언젠가 산 속의 토굴 생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겨울 한 철 나려고 들어가 보면, 쌀독에 쌀이 그득한 것이다. 그는 염치없이 그것을 공양한 다음, 날이 풀려 내려올 때, 그 쌀독을 다시 채워 놓고 내려온다고 했다.

생각해보라. 우리의 주고받음은 엄격하게 경계 지을 수 없다. 작은 도움들, 협력들, 배려들은 계산할 수 없고, 특히나 우리네 삶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 가령 하늘과 땅 등이 가장 크게 간여한다. 또 그것을 따지지 않는 문명일수록 사람 사이에 정이 있다. 가령 반찬마다 값을 매기고, '하나 더'를 용인하지 않는 일본식보다, 밑반찬은 얼마든지 리필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흐뭇해하는 한국식이 더 정감이 있다고 말한다면, 국수주의적 자화자찬일까.

위의 경우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계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보살의 보시는 조건 없는 베풂이다. 그것은 돌아올 반대급부를 의식하지 않는 진정 순수한 활동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베푸는지를 모른다. 얼굴을 확인하는 것은 갚을 사람을 장부에 적어놓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살피는 것은 외상에 올릴 액수를 기입하는 일이니까…. 누구에게 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는지 모른다면, 대체 '누가' 주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 삼륜청정(三輪淸淨)의 순수한 행동으로, 보디사바하, 무아(無我)가 완성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국 명의들의 처방 집대성

명나라 명의 강관과 두 아들이 60년만에 완성한 의서

'병에는 6가지의 불치병이 있다. 첫째는 교만방자하여 이치를 따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몸을 가벼이 하고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셋째는 입고 먹는 것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넷째는 음양과 장기를 안정시키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몸이 여위었는데도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벼슬을 버리고 명의가 된 강관(江瓘, 1503~1565)에 의해 1549년 초고가 완성된 <명의류안(名醫類案)>. 20년이란 시간을 통하여 초고가 완성된 후에도, 아들인 강응원(江應元) · 강응숙(江應宿) 형제에 의해 교정과 보강을 거쳐 1591년에 간행되기까지는 40년이라는 더욱더 긴 시간이 걸렸다.

명의류안(名醫類案)
강관 지음 | 구병수 옮김
동국대출판부 | 6만원

모두 205문(門)으로 나누어 급 · 만성전염병 및 기타 내과잡병 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종 병증에 대한 역대 명의들의 변증과 처방이 실려 있지만 이 책은 단순한 의학 서적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또 책에 기술되어 있는 저자 자신의 평과 치료 사례는 비교적 타당하다.

'중풍'에 걸려 말을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으며 맥이 가라앉아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탕약을 사용하면 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방풍, 황기 달인 것 수십말을 침상밑에 놓아두고 수증기가 나오도록해 입과 코로 마시게 하면 곧 말을 할 수 있다. 술마시고 누워자다 풍을 맞아 벙어리가 될 경우는 형력(荊瀝, 즙으로 된 한약)에 지보단(至寶丹, 코뿔소뿔 주사 비웅황비 호박가루 거북껍데기 각 1냥, 서우황 5돈, 사향 방편 각 1돈, 수안식향 1냥을 고아서 응고된 상태로 만든것)을 녹여서 마시면 된다.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오는 '종창'에 걸리면 사물탕에 황금 황련 목련 백출 진피 후박 생감초를 탕으로 만들어 한달정도 복용하면 낫는다. 구창(입안에 나는 부스럼)을 치료하는 방법을 뽕나무 즙을 바르는 것이다. 즙은 삼켜도 무방하다.

월경이 고르지 못하는 부인병에 걸릴 경우에는 인삼 백출같은 약을 5~7첩 복용하면 통증도 감소된다. 또 월경을 하면서 깎는 것 같은 참기 힘든 복통이 있으면 주자황련 반근, 초향부자 6냥, 오령지 반은 초하고 반은 생으로 3냥, 당귀신미 2냥을 가루내어 죽으로 환을 빚어 공복에 더운물로 3~4전을 복용한다.

출산할 때 자궁이 나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반장산이라고 한다. 이럴때는 식초 반잔에다 찬 우물물 7푼을 사발에 섞어서 놓고 산모의 얼굴에 입으로 3번정도 뿜어주면 완전히 수축한다.

아이가 열이 나고, 가슴속이 타는 듯 답답하며,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귤의 노란색 같은 '황달' 증세가 나타나면 황련 인진 각 5푼, 황금 황백 각 4푼, 복령 치자 각 3푼, 택사 2푼으로 하여 한번에 달여서 식전에 마시면 된다.

'의계(醫戒)' 편의 내용을 보면 의사의 윤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남의 질병과 고통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 의사를 부르거든 지체 없이 급히 환자에게 가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사람을 구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 만약 남이 위급한 틈을 타 재물을 구하는 데 뜻을 두고 마음 씀이 어질지 못하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화를 부르는 것이다."

최고의 의사에게는 공덕이 크다는 것도 일러준다.

"허물을 스스로 꾸짖고 치유되도록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혹 수명을 다하더라도 역시 이런 원력을 빌 수 있다면 정토에 왕생할 것이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후세에 상품에 태어나지 않으면 현세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경할 것이니, 복을 짓는 것에 대한 보답은 끝이 없다"

이 책을 옮긴 동국대 한의대 구병수 교수는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마음으로 선인들의 번뜩이는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허심합도하는 마음으로 살핀다면, 요즘 바이오 테크놀로지(Bio Technology)의 발전에 발맞추어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신풍(新風)이 불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기라성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책과 사람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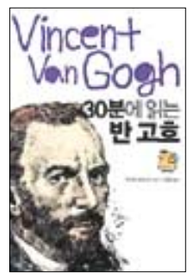
위험한 책 들녘, 카를로스 마리아 도밍게스 지음

<위험한 책>은 우연적으로 책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블루마'에게 배달되어온 책 '조셉 콘래드'의 <섀도 라인>을 발견한 주인공이 책을 발송인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여행을 시작한다. 과거 그녀와의 하룻밤 짤막한 사랑을 확인 했던 '카를로스 브라우어'가 보내온 이 책은 시멘트와 불순물들이 범벅이 된 채로 파손되어 주인공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가 <섀도 라인>을 쥐고 '카를로스 브라우어'에게 가기까지 놀라울 만큼 굉장한 애서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주인공의 행적을 쫓는 동안 글을 읽는 독자들은 분명 이름만 들어도 입이 쩍쩍 벌어질 기라성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이름을 숱하게 들으며 자그마한 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진정한 애서가들 사이에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얕은 문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던 나로서는 <위험한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책들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위험한 책>을 읽고 자못 진지한 생각에 잠기다보니 또다시 이 책에 등장했던 많은 책들을 꼭 읽고 싶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스카,yes24.com/Goods)

30분 안에 빈센트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30분에 읽는 반 고흐 랜덤하우스중앙, 앤드류 포레스트 지음

나는 중학생 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치솟고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였다.

왜 빈센트가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렇게 즐겨 그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책 시사회'에서 경이(?)적인 책을 만났다.

어떤 재주꾼이 빈센트를 30분에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가? 30분 안에 뚝딱 빈센트가 누구이며, 뭘 했으며, 왜 죽었는지를 알게, "간략하게 다루었다"고 했지만 차례는 사뭇 진지하다.

이 책은 빈센트 사후에 미술계와 많은 화가들에게 끼친 영향('야수파'와 '독일 표현주의' 그리고 화가로는 에드바르트 뭉크, 폴 고갱, 파블로 피카소, 몬드리안 등)까지 정리해, 바쁜 일상에 쫓기는 사람이 빈센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빈센트를 화제로 나누는 장소에서는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감(소재)도 많았다. <30분에 읽는 반 고흐>는 일반인의 교양서적, 그것도 빠른 시간에 빈센트를 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박창근,bookto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 책 도둑질에 성공한 이후 9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서양의 작가들이 하루하루 페이지마다, 책마다 드러내는 바깥세상의 신비, 무엇보다도 여자와 사랑과 섹스의 신비로움에 사로잡히고 매료되었다. '안경잡이'는 감히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 채 떠났을 뿐 아니라, 다행히 우리 마을의 촌장마저 관할 공산당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용징에 가 있었다. 촌장이 없는 틈을 타서 마을에 일시적으로 퍼지고 있던 은밀한 무정부주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밭일을 거부했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간수로 바뀐 예전의 그 아편 농사꾼들도 그런 우리의 반항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두문불출한 채 서양소설들을 읽는 일로 나날을 보냈다. 나는 뤄가 유독 푹 빠진 발자크의 작품들을 내버려두고, 내 열아홉 살의 경박함과 진지함으로 플로베르와 고골리, 멜빌, 로맹 롤랑 들과 차례차례 사랑에 빠졌다.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소녀> 151~152쪽, 현대문학, 다이 시지에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엮지 / 지음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주)천성건설
공 사 개 요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석재, 부품 일체
◆ 석, 조각, 석물 일체
◆ 석, 불상, 좌상, 미륵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건설부문
◆ 석굴, 납골당 공사
◆ 석굴, 법당 조성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석 공사 일체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 사 완 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 이 재 갑
(株)天星建設

빠알리 경장 '디가 니까야' 각묵 스님, 최초 한글 완역



디가 니까야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 각권 3만원

부처님 가르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빠알리 경장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는 <디가 니까야>(長部, 길게 설하신 경)가 처음으로 한글로 완역됐다.

<디가 니까야>는 역자 각묵 스님이 1989년 빠알리 삼장 한글 완역의 원을 세우고 인도로 유학간지 17년만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빠알리 삼장의 본격적인 번역서이다.

이 책의 내용은 우주와 인간, 삶과 역사, 끝없는 윤회의 실상등 경전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스님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서를 참조, 상좌부의 전통견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0여개가 넘는 방대한 주해를 달았다. 또 주석서 서문을 모두 번역해서 수록했으며, 40쪽에 가까운 역자 서문을 넣었고 각각 25쪽에 달하는 각권의 해제를 달았다.

전 3권으로 출간된 <디가 니까야>는 제 1권 계온품 616쪽, 제 2권 대품 600쪽, 제 3권빠띠까품 688쪽으로 모두 34개의 경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총 1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한글완역의 원을 세우고 인도유학 17년만에 빠알리 경장의 처음부분인 <디가 니까야>를 번역한 각묵 스님.

제 1권 계온품은 주로 바라문, 외도 수행자, 왕 등 당대 지식인이나 수행자들에게 계 정 혜 3학이 핵심 주제이다. <범망경>등 13개의 경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품에서는 인도와의 대화, 불교가 인도화 되어 가면서 종교의 큰 틀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 2권 대품은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 마하고윈다의 생애, 대선견왕 이야기, 인드라, 업과 윤회, 연기의 가르침등 <대전기경>등 10개 경이 수록되어 있다.

제 3권 <빠띠까경>등 11개의 경이 포함된 빠띠까품은 재가자의 삶, 서른두 가지 대인의 상호, 아따나띠야 보호주, 인류의 타락과 향상의 역사, 진정한 고행의 완성,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는 가르침, 세상의 기원에 대한 얘기들이 소개된다.

각묵 스님은 1979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방선원에서 8년 정진하다가 빠알리 삼장을 한글로 옮기려는 원을 세워 10여년간 인도와 미얀마 등지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를 배웠다. 인도 뿌나대 산스크리트 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역서로는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전 분석과 주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등이 있다.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를 맡고 있으며, 지리산 실상사 화림원에 머물며 빠알리 삼장의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초심자를 위한 간화선 안내

주요 개념과 실천지침 쉽게 풀어



간화선 입문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출판사 | 8000원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간화선은 무엇인지. 어떻게 화두를 들고 참구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에게도 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실상 마땅한 지침서가 없다.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에서 전국선원수좌회의 도움으로 <간화선>을 발간하기도 했지만 초심자들에게는 내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조계종 포교원이 <간화선>을 골격으로 하여 일반인들도 간화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인을 위한 입문서를 펴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고 체계적으로 생활선인 간화선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간화선을 재가불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행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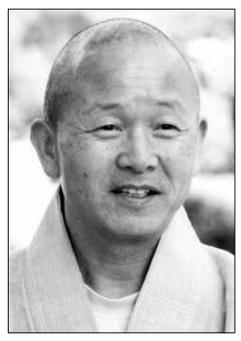
책에서는 생활인이 일생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화두를 들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안내한다. 또 선의 효과와 특징을 제시하여 왜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이밖에도 간화선의 개념, 화두의 개념, 그밖에 간화선 수행체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입문적 단계에서 간화선 전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우 기자

당신은 늘 깨어 있습니까?

순박하고 정직하게 사는 지혜 180가지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사진)이 쓴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가 10쇄를 거듭하면서 판매 부수 3만부를 돌파했다. 지역 출판사에서 펴낸 불교서적으로는 보기 드문 부수다.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후속편으로 펴낸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다.

부산 불교방송 '생활속의 부처님 말씀'에 내보냈던 방송 원고를 정리한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간결한 이야기 180편을 엮어 놓았다.

'받는 듯 돌려주는 기쁨' '소중함을 아는 사람' '고요한 바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눈 감은 듯 걷는 걸음' '강물 속의 보름달' 등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일상 생활가운데서 일어날법한 마음 작용과 지혜로운 마음씀을 짧은 예화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혜총 스님은 "불자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부처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판에 박힌 대답 대신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속을 관통하는 진리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다.

이 책속의 예화들에는 당장 내일로 닥쳐올 죽음도 모른채 호화로운 집짓기에 바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늙은 노인,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그 화살을 뽑는데 게으른 사람, 더 달콤한 사탕수수를 만들기 위해 사탕수수즙만을 나무에게 줘서 나무를 오히려 죽이는 욕심많고 어리석은 사람 등이 등장한다. 모두 일상의 우리를 거울에 비춘 듯 닮은 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해선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혜총 스님 특유의 쉽고 간명한 언어가 돼 다가온다.

1953년 통도사에 입산, 대율사인 자운 대종사를 40년 동안 시봉한 혜총 스님은 용호복지관 관장으로 활동하며 복지현장에서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들은 물론 기도, 참회, 염불 등 다양한 공부법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도 모아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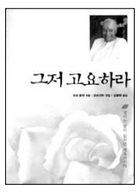
혜총 스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줌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사라지듯 잠깐인 삶을 전부인양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이 제시해 놓은 가르침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반조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책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혜총 스님 지음 | 부다가야 | 1만2000원

새로나온 책



■ **그저 고요하라**(슈리푼자 지음,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이 책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북인도에 살았던 슈리푼자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얘기들을 모은 것이다. 슈리푼자는 14세가 되던 해 붓다의 일생이 담긴 그림 역사책을 보고 그와같이 되겠다고 결심한 뒤 식사를 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리를 황토색으로 물들인 가사를 만들어 탁발을 한다. 그런다음 끝내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가장 숭고하고 단순한 진리는 우리의 순수의식이며, 존재자체라고 말한다. 그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언어로 얘기하지만 동시에 모든 말들은 진리를 가리키는 지시물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그는 날마다 부지런히 이 지시를 따르되 말들에 얽매이지 말라고 권한다.



■ **불교입문**(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조계종 포교원이 발행한 <불교 입문> 개정판이 나왔다.

2001년 초판발행후 24쇄를 찍어 총 25만부를 발행한 이 책은 조계종 신도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불교에 대한 입문서이다. 개정판에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교리인 공과 마음이 추가 됐다. '절을 찾아서' '불교란 무엇인가' '진리의 세계' 부분도 부분 수정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신앙의 대상으로서 부처님의 의미를 부각했다. '현대사회와 불자의 생활' 제목을 개정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으로 바꾸었으며, 불교 역사는 생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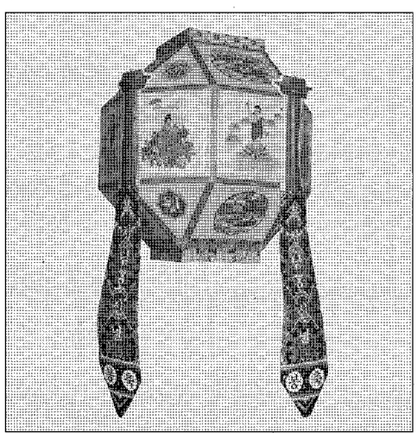
■ **을유 불교산책**(이태승 지음, 정우서적)= 해방 60년의 불교의 사상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깨달음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불교라 하며, 그 과정의 사상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한다.

책의 구성을 보면 1~25강은 근본불교에서 부파불교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26~50강까지는 대승불교에서 시작하여 티베트 한국의 불교로 마무리 하고 있다. 또 책의 말미에 저자의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깨달음의 종교에서 지혜의 종교로' 등 두 편의 논문을 더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의심 끊고 염불하세	불광, 김지수, 1만원
· 오체투지	작가의 집, 한경혜, 9000원
· 이야기로 깨닫는 기쁨	한언, 사라 콘오버, 9800원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무한, 법상스님, 1만원
· 붓다의 나라, 미얀마	운주사, 김형규, 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이제 연등에 번잡한 물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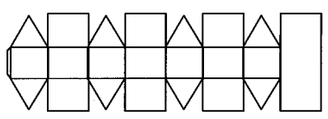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불미전 매년 개최 · 문광부장관상 신설

6월 20일부터 원서 교부 · 8월 30일 시상 … 문화재청장상도 추가



2004년 열린 제2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개막식에서 작품을 둘러보는 스님들.

불교미술작가들의 '등용문'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3월 13일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공모요강을 발표했다.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올해 불미전은 특히 중국산 가짜 한국불교미술품을 선별하기 위해 미완성품을 내도록 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심한 만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에서 이번 불미전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2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위촉식을 마친 조계종 문화부는 20년 가까이 격년제로 운영되던 불미전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불미전 운영규정 등도 손볼 계획이다.

보다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 상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관련 정부기관 인증을 통해 보다 격상된 불미전의 위상을 보여주고자 문화관광부장관상과 문화재청장상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상내역도 한층 강화했다.

불미전 출전 초대작가전 등을 정규적으로 해나갈 것도 약속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전회 수상작들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작의 영구귀속이 문제가 돼 대작이 출품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보이지 못해 또 다른 불씨를 남기고 있다. 불교미술가들은 대상작의 영구 귀속이 부담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 미술 작품과 달리 불교미술작품들은 사찰에 봉안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작이 귀속돼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러 미술전들이 모두 대상작을 영구귀속하고 있고 국전이 대상작에 3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에 이어 상금액수도 2위에 달할 정도로 조건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박종학 문화팀장은 "이번 불미전은 불교미술관련 협회, 학계, 문화재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불교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에는 최소 200점에서 250점 정도의 작품이 공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6월 20일~7월 14일 원서 배부를 하고 18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심사결과 발표는 26일에 하며 시상식은 8월 30일 인사아트센터 내 가나아트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수상작들은 8월 30일~9월 5일 가나아트 갤러리 2 · 3층에서 전시한다.

제21회 불미전을 이끌어나갈 운영위원진은 위원장에 문화부장 탁연 스님을 필두로, 당연직 운영위원에 총무부장 자승, 기획실장 동선 스님이, 위촉직 운영위원에 문화재전문위원 김창균 회장(한국불교미술협회) · 최공호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이재순 회장(동국불교미술인회), 이태승 교수(용인대 회화학과), 조은정 겸임교수(한남대), 최기영 회장(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황상주 교수(동국대 미술학과) 등이 위촉됐다. (02)2011-1772

대상 상금도 1200만원으로 인상 … '국내 2위'
수상작 중앙박물관 전시, 출전 초대작가展 정규화
대상작 영구 귀속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9회 불미전 대상 박미진의 '열반'.



20회 대상 어수경의 '반야심경'.



달마도 삼매에 빠진 동성 스님.

동성 스님 달마화비 中 대흥선사서 제막

축구공 든 달마 세간에 주목 인류화합 주제로 세계순회展

축구공을 든 달마로 널리 알려진 동성 스님의 달마도가 중국 사찰에 비석으로 세워졌다. 3월 7일 중국 서안(西安) 대흥선사(방장 계명)에서 제막식을 가진 '동성 스님 달마화비'는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달마 대사의 모습을 담았다.

이날 행사는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중국 대흥선사 방장 계명 스님, 일본 사천왕사 양응 스님, 미국 한국사 회주 고성 스님 등을 증명법사로 진행됐다.

올해로 화업(畵業) 30년을 맞는 동성 스님은 '인류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전시회를 준비중이다. 이번 달마화비 제막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끊임없이 선(禪)과 화두를 그림으로 표현해온 동성 스님은 "이 시대 스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인류 화합과 세계평화' 밖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 세계를 돌며 부처님의 말씀과 선의 깨달음을 달마도에 담아 전시를 해야겠다는 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성 스님의 세계 순회 전시회는 '둥글고 밝은 빛'을 주제로 지난해 10월 일본 오사카 대한민국 영사관 문화원, 12월 일본 나고야 예술문화센터 전시를 거쳐 4월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내년에는 미국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4월 도쿄 전시회에 선보일 채색 달마도.

동성 스님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라는 전시회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16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1976년 첫 전시회의 주제 '한 송이 연꽃이 되어'는 이후 20년 간 스님의 그림 작업에 화두가 되었다. 그 화두가 가볍게 여겨진 때가 1996년.

스님이 선택한 새 화두는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였다. 고요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일깨우는 작업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스님은 이 작업이 선정삼매에 드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한다.

2002년 스님은 축구공을 든 달마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작품을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달마가 든 축구공은 바로 진공묘유(眞空妙有)를 뜻하는 것"이라는 스님은 "축구공은 바로 불교의 공사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연기법칙도 담겨있다"고 설명한다. (02)395-2585

강지연 기자



중국 대흥선사에 설립된 '동성 스님 달마화비'.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폭 90cm / 길이 6m (48,000원),7m(56,000원), 8m (64,000원),10m (80,000원),12m (9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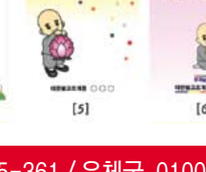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환영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장엄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엄)현수막 ₩40,000원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농협 053-01-265785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매일의 일상에서 게을러지려는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는 정관 스님. 포행중이다.



정관 스님이 직접 쓴 '無信不立 ·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 휘호와 가사.



정관 스님의 낙관들.



덕현 스님에게 단소연주를 청해 듣는 정관 스님.

"'함'에 대한 기쁨, 그것이 성불"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정관 스님 (부산 영주암 회주)

9시간 30분 정진 · 佛자 10장 쓰기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
"과정이 결과" 매사 원 세워 최선을

에베레스트산을 한번 등정한 사람보다 동네 뒷산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르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말이 있다. 부산 영주암 원통보전에 주석하고 계시는 정관 스님의 일상에는 동네 뒷산을 하루도 빠짐없이 몇십년 간 오르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평범 가운데의 위대함이 스며있다.

몇십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스님의 일상 중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매일 불(佛)자를 10장씩 쓰는 것, 매일 아침 15분정도 하는 보건 체조, 하루 9시간 30분의 정진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를 30년이상 해 오셨다.

반야심경을 써서 스님께 선물로 가져온 어떤 신도에게 감응을 받아 불(佛)자를 쓰기 시작했지만 3년 정도는 괜히 붓글씨를 시작했다는 후회도 했다. 3년을 넘어서자 매일 10장의 불(佛)자 쓰기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 후에야 불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작품을 별도로 쓰는 일이 시작됐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낙관이 닳아 벌써 네 개째 다시 팠다.

낙관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낙관의 면이 닳는 것을 보면서 스님은 겁(劫)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해 보게 되었다고 했다.

사방 4천리 되는 돌산을 천인이 천의를 입고 백년마다 한번씩 스쳐 그 돌산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劫).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시간이 스님의 일상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돌로 판 낙관마저 닳게 만드는 스님의 의지는 9시간 30분 정도 이어지는 정진에서도 가감이 없다. 새벽 2시 50분경 일어나면 1시간 20분 정도 스님의 처소에 모셔진 불상 앞에 서서 정진한다. 납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서서 목탁을 치며 화두를 드는 것은 졸음을 쫓기 위한 스님만의 참선법이다. 그리고 영주암 대웅전에서 대중들과 함께 새벽예불을 봉행하고 새벽 5시경 다시 처소로 올라와 보건 체조를 한다.

스님의 모든 일상이 해뜨고 해지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했더니 보건 체조는 아직도 완전히 자연으로 넘어가질 못했다고 털어놓으신다.

"벌써 30년째 해온 일이지만 체조만은 어쩐 일인지 아직도 하기 싫은 마음이 나는 거야. 팔만사천 마구니 가운데 일등 마구니가 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거든. 비가 오면 한번 하지 말까 하는 마음이 들고 아직도 의지가 좀 들어가야 돼, 자연으로 완전히 넘어가질 못한 거지."

그렇지만 스님의 보건체조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기 싫다고 안하면 몸 건강이 유지 안되지. 큰일 나.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어렵잖아. 하기 싫다고 안하면 자기 의지는 죽어버려. 자기 의지가 없으면 자기 인생은 없는거라. 내 일상은 '하고 있음'과 '함'에 대한 기쁨으로 일관돼 있어. 생각해봐. 만약에 내 몸이 여기 저기 아파서 병원에 가기 바빠서 이 일과를 못 지키면 내 인생도 끝난 것이지? 그러니 하고 있다는 것하고 하고 있음에 대한 기쁨만 갖고 있으면 잘사는 거라. 그리고 그 함을 다음 생까지 가져가야 돼. 그것이 안 되니까 쳐지고 자기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든. 수행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고 함에 대한 기쁨이 없으니 허무주의에 빠져서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야. '하는' 과정이 곧 결과야. 함에 대한 기쁨, 그것이 성불이라. 결과에 대해서 논하면 아직 의식이 덜깬 거라.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자꾸 허둥대지 말아야 돼."

스님은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만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한다. 삶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스님이 있기에 정관 스님의 방에는 늘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기자가 스님을 뵌 날에는 덕현 스님(동원사 주지)이 찾아왔다. 단소를 잘 하시는 스님으로 미국에서 공연을 자주 하신다는 그 스님을 향해 정관 스님은 즉석 연주를 요청했다.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단소를 부는 스님을 지긋이 바라보던 스님은 연주가 끝나자 박수까지 치시며 기뻐하신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다른 사람 같으면 좋은 무대가 아니면 연주 안한다고 자존심 내세울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뜻 응해주니, 저런 마음이 바로 보살심이야." 대단한 칭찬이다.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는 스님이지만 공부지도에는 에누리가 없는 스님으로 통한다.

어느 날 전국의 이름난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거량을 하던 스님이 찾아왔다.

"<반야심경>에 '무유공포'라고 했는데 공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는 질문을 대뜸 던졌다. 정관 스님은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信)"이라고 답했다. 지극하고 간절한 신심 그것이 공포를 없애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지금도 공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한밤중이라도 지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제접하고 있다.

스님은 매주 화요일에는 '선문촬요' 강의를, 또 매주 일요일에는 참선 공부를 지도하며 일생동안 일궈온 마음밭을 대중들에게 회향하기에 한창이다.

6년째 셋째 주 일요일마다 53사단 수계 법회에서 법문을 하는 스님은 법회에 법사로 초청받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미리 그날의 정진시간을 채우고 외출하거나 밤늦게 돌아와서도 반드시 그날의 정진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든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빚이 된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스님을 찾아 뵌 날, 다음날 있을 감로사 수계법회 법회에서 하실 게송을 미리 지어놓고 불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다음날엔 서울 법회가 예정돼 있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거리 여행시 스님은 미리부터 안전한 여행을 발원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정성을 다하는 스님의 일상이 그 발원속에 담겨있다. 그렇지만 스님의 모든 발원은 큰 원(願)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

'이뭣고' 참구로 시작해서 '이뭣고' 참구로 끝이나는 영겁을 이어가겠다는 원을 발했기 때문이다.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복지 · 어린이 포교 열정 쏟아

정관 스님은 1933년 경주에서 태어난 정관 스님은 54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범어사에서 14안거를 성만했다. 범어사 · 영주암 주지를 맡으며 대중 외호에 힘써왔고, 금정학원 이사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등 사회복지, 어린이 포교 등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

<죽음이 없는 樂> <인도성지참배> <하늘같은 자유> 등의 책을 펴냈으며 간화선과 염불의 차이점을 밝히고 간화선 수행의 지침서가 될 <간화선의 길> 출간을 앞두고 있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뒷면-소원성취 · 사고방지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5년 겨울호(통권 25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황우석 사태를 보는 불교의 눈'(조성택)을 비롯한 유익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웰빙 시대의 잘 죽기'
웰빙 시대에 왜 웰다잉을 말하는가 (오진탁)
붓다의 죽음 (안양규)
선사들의 죽음과 열반 (김영욱)
부활, '웰 다잉'의 한 해석 (이찬수)
죽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생각 (강신표)
근사체험(近死體驗)이란 무엇인가? (최준식)

논 단
율장은 금서인가 (마성 스님)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김광식)
일본 불교사회복지의 발전과 한국불교에의 시사 (박광준)
공안 언어의 사회적 담론의 가능성에 대한 한 상념 (박진영)
조선전기 관세음보살의 응신묘법의 도상과 그 창조적 재현 (강소연)
틱낫한의 프럼빌리지 선수행 고찰 (김은종)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관리부(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 1만원씩 연간 4만원이 이체됩니다.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전화확인 하셔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 매거진
불교평론에 참신한 광고주를 모십니다
최고의 열독율과 주목율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평론에서 함께하실 광고주를 모십니다. 효과대비 저렴한 광고료로 최대의 만족을 보장합니다.
◆ 광고문의 : 불교평론 광고기획부
◆ 전화 : (02)2004-8214~5 / 팩스 : (02)737-0696
e-mail : jabi1522@empal.com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 / 팩스 02)737-0697

결과 바라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

정관 스님의 가르침

평균 수명 백세시대가 왔습니다. 평균 백세시대를 맞아서 복지(福祉) 백 살이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평균 수명 백세시대가 고통의 백 살, 천덕꾸러기 백 살이 안 되고 건강의 백 살, 복지 백 살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신심(信心)이 있어야 합니다. 신심이 없으면 절대로 복지 백 살이 될 수가 없어요. 물질로 하는 복지는 다함이 있지만 신심의 복지는 무한이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심의 복지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자기 마음입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불교는 억만년이 흘러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난자지(冷暖自知)'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불성인데 불성은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는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면 차가운 줄 더우면 더운 줄 스스로 압니다. 아는(知) 이것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따뜻한 것을 언제부터 압니까? 언어나 문자는 익히고 배워서 알지만 차고 따뜻한 것을 아는 이것은 태중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태중 이전에 아는, 알지(知)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을 본래지(本來知)라고 하지요.

찬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찬 것은 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부를 해봐도 '차다'하는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안 믿고, 모른다고 안 믿으면 신(信)이 없습니다. 신이 없으면 설 땅이 없는 거와 같아요. 태중 이전의 이 알 지(知)를 안 믿으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썩어지는 육신밖에 없게 돼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의문이 붙어 의문을 가지고
지극히 참구하다보면 답 나와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마음, 마음이라고 이름붙인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점을 못 찍어요. 점을 찍을 수 있었으면 석가모니부처님이 벌써 찍었겠지만 석가모니부처님도 못찍었는데 누가 감히 점을 찍어요? 점을 못 찍으니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제 알 지(知)가 있다고 알았으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달관자가 되고 증득자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놔 버려야 합니다. 경을 읽어 아는 것으로는 자기 안식이 안 됩니다. 지식을 놓으려면 참선공부를 안하면 안 됩니다. 참구하고 참구하는 것으로 본래 알 지(知), 즉 본래지(本來知)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그 알 지(知)를 증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염불이라고 하고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송화두(염불)와, 간화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화선과 송화두 즉, 염불의 차이점은 화두는 벽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다면 염불은 벽을 뚫고 들어가는 힘은 없어도 벽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맴돌고 있으니 다음에 뚫을 채비를 갖춘 셈이지요.

그리고 화두의 생명은 의문이 붙어야 합니다. 의문이 붙어 그 의문을 늘 참구해 들어가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의문이 없는 공부는 향상이 없어요. 마치 입에 자갈을 물고 잇는 것과 같아서 갑갑하고 힘이 들어요. 의문이 안 나는데 억지로 앉아 있으면 상기가 되고 지겹고 공부에 진전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송화두를 하라고 권합니다. 반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서 어느 때인가는 스스로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 지극정성, 분발심, 이것만이 자기 구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송화두든 간화선이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결과라는 것을 알고 다른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결과부터 먼저 바라니 결과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실패자가 돼요. 흔히 사람들이 여러 공부법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하고 있음에 대한 집중과 즐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는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판검사를 해야 직정이 풀리지만 판검사만 있어서는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관 스님은 '백세시대'를 맞아 무한한 신심을 바탕으로 '복지 백 살'을 일구자고 거듭 거듭 강조한다.

판검사를 안 하면 자기 직분에 대한 긍지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진국은 안 그렇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이발사가 5대 내려가고 국장사가 6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이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이발이 멋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전 신문에서 경복궁 보수를 끝내고 기념식을 하는데 그 보수를 맡은 도목수를 말단에 앉히고 좇다발 하나도 대접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봤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고 못나고 뒤떨어진 생각 수준입니다. 장관이 열명 있어도 도목수 그분이 없으면 경복궁 보수 못하잖아요? 그러니 장관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 평등하고 귀중합니다.

내가 범어사에 있을때 청소차가 늦으면 "오늘 지장보살님이 왜 이리 늦나?" 그랬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늦게 와도 도량에 냄새가 나요. 그분들이 없으면 거리가 더러워서 못 다녀요. 그러니 그 분들이야말로 중생을 위해 나투는 보살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긍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요, 멋진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말하고 듣고 보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촉발시켜 의문을 참구하십시오. 의문이 붙어서 의문을 가지고 참구하고 참구하다보면 어느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춤도 절도 나오고 결정신자가 되는 겁니다. 답이 안나오면 결정신자가 아니예요. 그저 믿을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모름에 대해서 알려고 추구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해 보십시오. 그 몰두에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서양의 문화는 말하고 듣는 이것에 대한 참구가 없으니까 자꾸 바깥으로만 마음 쏟을 데를 찾으니 더욱 더 갈증을 느끼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식이 없어요. 참구하고 참구하다 답이 나오면 안식자(安息者)가 되고 그 안식은 시방세계에 가득합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57>



그 할머니, 사람 잡네!

한 할머니가 커다란 나무 밑에 잠시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에 눈을 뜬 할머니는 기절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할머니 몸의 몇 배나 되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할머니를 습격하려고 앞 발 두 개를 번쩍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눈을 떴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할머니는 재빠르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했지요. 하지만 곰도 워낙 날쌘 짐승이라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곰.

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빙빙 돌며 쫓고 쫓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빙빙 돌다가 곰이 한쪽 발을 나무에 짚고서 한쪽 발로 할머니를 후려치려고 하는 순간 할머니는 한 손으로 아주 재빨리 나무를 짚은 곰의 앞발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곰이 당황해하는 사이에 다른 쪽 앞발 하나마저 얼른 붙잡아서 나무에 대고 눌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나무를 사이에 두고 곰의 앞 발 두 개를 할머니가 두 손으로 꾹 누르고 있는 광경이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꼼짝 못하고 있지만 사납고 힘센 곰이 언제 할머니를 다시 공격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남자가 그 나무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꾀를 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귀가 얇아 무책임한 종교가 말에 혹하십니까
당한 후에 원망 말고 "사실일까" 한번 더 생각을

"이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구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 그 사이에 내 얼른 이 녀석을 잡을 테니 우리 둘이서 고기를 나눠 먹읍시다."

청년은 곰을 잡아서 나누어주겠다는 말에 얼른 할머니 대신 곰의 앞발을 자기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살았다 하며 걸음아 날 살려라 삼십육계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 청년이 곰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청년을 두고 동네 사람들이 "이런 바보 멍청이"라며 비웃었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곰 이야기를 읽을 때는 허리가 꺾이도록 웃었습니다. 어리숙한 청년보다는 할머니의 재치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이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읽고서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 한 세상 그럭저럭 잘 살아가게 하는 교훈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종교가나 이론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는 듯이 거침없이 사람들을 향해 쏟아 붓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무책임한 종교가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무리 번드레한 말을 들어도 '진짜 그런가?'라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그저 솔깃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대체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자식이 잘 된다', '병이 낫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더 이상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이런 무모한 사람들 중에는 학력과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곰 고기를 나누어줄테니 이 곰 좀 붙잡고 있으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 곤욕을 치른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과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쓴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이 다 알차고 유익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들 중에는 자기가 기거한 절이 효험이 있다거나, 꼭 어떤 특정한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야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이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 책의 저자인 스님을 친견하러 절에 갔거나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정성을 더 쏟으라느니, 조상을 달래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슬쩍 건네거나,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지금 내 말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 특별히 당신에게만 들려준다'며 은근히 설득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전부가 사나운 곰을 청년에게 넘기고 도망친 할머니와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곤욕을 치르고 비웃음을 당한 자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당하고 나서 할머니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청년을 순수하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비웃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삼사순례 및 방생. 기도영험도량
감로법비의 성지 동 해 사
※ 세계최대 약사여래와불 조성불사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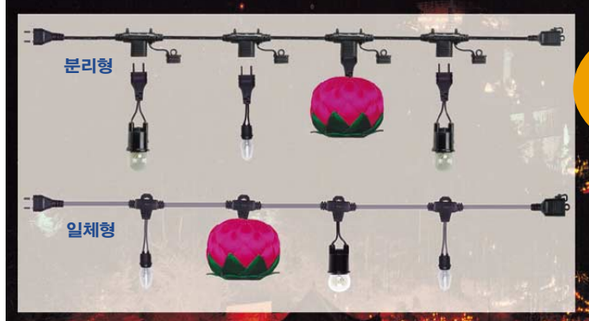


귀먹고, 눈멀고, 다리병신이거나, 곱추거나, 미쳤거나 여러가지 신병에 결렸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명호를 들게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소원월 이루리라는 약사여래와 불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의시고 소원이루시길 바랍니다 .

불사안내
◆와 불 : 1구좌 100만원 ◆몸속부처님원불 : 1000만원 ◆후불탱화 : 300만원(몸속부처님은 옥불로 모심)
◆협사불 : 각 700만원 ◆천 불 : 한부처님 3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3W, 5W, 10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일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견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옛 武人들 차 마시며 호연지기 길렀다"

전종수 소령 <차생활이 군 장병들의…> 논문서 필요성 역설

실험 · 통제집단 30명씩 나눠 다도교육
교육 받은 전투병 정신 강화 효과 보여
"차 생활화는 능동적 자세 갖는데 도움"

고세연씨 <차의 역사> 발간
절 · 궁중 등 각종 다례 소개



군 장병들의 인성함양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다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내무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군 장병들. 사진제공=전종수

군장병 정신수행 茶로 달래요

잇단 안전사고와 가혹행위 등으로 군(軍)이 시끄럽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육군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수많은 '안전대책'이 쏟아졌지만, 총기분실과 가혹행위 등 군대 내 사건 ·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닫힌 군대 문화를 유연화하고 군 장병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경기문화재단은 군대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세대 장병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이란 개인의 인성함양과 부대생활 적응력 높이기, 창의력 고양, 부적응 장병 우울증 및 심리적 장애치료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군인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정신수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다도교육을 접목해 보는 건 어떨까?

군대 내 차생활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종수 소령(이라크 자이툰부대 특전교육단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 전공)의 <차생활이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미치는 효과연구> 논문을 통해 차생활과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계를 살펴본다.

"군복무 부적응은 불평불만, 불안, 공포, 무력감 등의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 결국 폭행이나 자해, 탈영, 자살 등의 크고 작은 군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군대내 사고는 군부대의 규율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군의 정신전력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소령은 군사력을 구성하는 유형 · 무형의 전력 중 무형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신전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다도교육을 꼽았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실험은 연구병사 60명을 선발한 후 30명을 실험집단으로, 30명을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연구 대상자는 23세 이상이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이 83%, 고졸이 16.7%였다. 종교는 개신교(36%)-불교(28%)-천주교(13%) 순이었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는 1회 1시간씩 8회에 걸쳐 다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다도교육은 차의 정의와 특성, 효능, 역사 등에 대한 강의와 관련 영상자료 시청, 개인별 행다실습, 차와 명상 등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다도교육 후 실시한 검사결과, 교육을 받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3.9759)에 비해 군인정신과 군기 · 사기 · 단결 등에 대한 신뢰도 평균(Mean)이 높아졌음(4.1254)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신뢰도 평균은 사후검사 결과가 사전검사 수치보다 약간 낮아진 것(3.9643→3.9596)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의 경우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병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전 소령은 "검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도교육을 받은 장병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정신전력 강화에 더 효과적이며, 교육을 받은 집단 중에서는 전투병 집단이 비전투병인 행정병 집단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는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 · 판단력 ·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차의 약리적 효능과, 다도교육을 통한 예절습득 효과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전 소령은 "예로부터 화랑을 비롯해 사명대사나 이순신 장군 등의 무인(武人)들이 차를 마시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며 "다도교육을 통한 차 생활이 정서적 안정을 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다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며, 군 장병들이 차를 애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 관련 단체와 차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편, 최근 전 소령은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의 후원을 받아 녹차 30통과 찻상, 다기 등을 이라크 자이툰부대에 전달하는 등 군 장병들이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40여 년간 우리 차문화 연구에 매진해 온 '고세연 차가(茶家)' 고세연 이사장이 다례 안내서 <차의 역사-차와 꽃의 의식과 음악>을 펴냈다. 책에서는 차의 기원과 정의를 짚어본 후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중심으로 절과 궁중, 상류사회, 서민층 등에서 행해진 각종 다례를 소개한다. 특히 조선시대 궁중의례에 나타나는 차와 꽃, 예악(禮樂)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다례를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고 회장은 "다례는 오랜 시간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내렸던 기층문화이며 차문화가 쇠퇴했다고 하는 조선시대에도 조정에서는 거의 모든 의식에 차를 사용했다"고 강조한다. 미래문화사, 1만8천원.

제6회 신라도자기축제 개최

경주시도자기협회가 주최하는 '제6회 신라도자기축제'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린다. '천년의 꿈 만년의 숨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생활다기와 찻그릇은 물론 청자, 분장회청사기, 옹기 등 다양한 도자기가 전시된다. 4월 2일과 9일에는 각 부문별 작가들의 워크숍이 열리 도자기 성형시연과 작가와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경주예다회, 문가차회 등 경주지역의 차회에서 주관하는 다례시연도 펼쳐질 예정이다.(054)779-6234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0. 보이차 속의 칠자병차 ②

제3세대보이차, 현대보이차 또는 숫자보이차라고도 일컬어지는 칠자병차의 탄생은 미생물발효공법에서 비롯되었다. 미생물발효공법은 인공발효 또는 쾌속발효라고도 부른다.

1973년 미생물을 통해 쾌속발효시킨 미생물발효보이차의 등장은 보이차의 기존 생산방식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질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위적인 고온다습한 공간을 통해 배양한 미생물의 작용은 찻잎의 산화를 가속시켰으며 이러한 공법을 가리켜 학계에서는 '후발효작용(後醱酵作用), Post-fermentation' 또는 '악퇴변색(渥堆變色), Pile-fermentation'이라 부르기도 했다.



운남성 차엽진출구공사 자료집.

미생물발효보이차에 대해 중국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79년 운남성 정부가 발표한 '운남성보이차제조공법시행규칙'에 관한 시행령에서다.

"보이차란 운남성의 대엽종 찻잎으로 만든 녹차긴압차(綠茶緊壓茶)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찻속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효소 성분들, 특히 폴리페놀 중심으로 자연발효되어 차색이 변하는 동시에 색다른 맛과 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의 변화는 오래 묵힐수록 그 향미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 보이차의 진가다. 보이차의 자연발효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폐쇄적이고 낙후된 운남성의 교통망에 의한 장기간의 운송기간에서 기인한다.

오늘날은 운남성의 교통이 발달되어 1년이 소요됐던 운송을 단 며칠 혹은 몇 시간 안에 이룰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날 운송수단에서 비롯된 자연발효의 맛과 향을 재현하기 위해 우리는 '보이차쾌속발효가공법(普洱茶快速醱酵加工法)'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쾌속발효가공법이란 물과 습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효한 가공법으로서 1975년 곤명차창(昆明茶廠)에서 생산한 후 점차적으로 맹해(勐海), 하관(下關), 보이차창(普洱茶廠) 등으로 확산되었다. 그동안의 가공법에 나타난 여러 난제들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이 얻어 이제 운남 각 지역의 차공장에서도 보이차를 생산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운남성정부는 보이차 품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 같은 시행령을 반포한다."

이것이 '운남성보이차제조공법 시행규칙'에 관한 시행령의 모두(冒頭) 내용이다. 모두 내용 중 보이쾌속발효공법이 개발된 시기는 197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1973년 곤명차창에서 개발됐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있다. 보이차쾌속발효공법이 1973년에 개발됐다는 주장을

1973년 쾌속발효공법 곤명차창서 개발
생산방식 유통시장 질서에 획기적 변화

은 1979년 운남성 정부가 발표한 '운남성보이차제조공법시행규칙'에 관한 시행령에서다.

"보이차란 운남성의 대엽종 찻잎으로 만든 녹차긴압차(綠茶緊壓茶)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찻속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효소 성분들, 특히 폴리페놀 중심으로 자연발효되어 차색이 변하는 동시에 색다른 맛과 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의 변화는 오래 묵힐수록 그 향미를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 보이차의 진가다. 보이차의 자연발효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폐쇄적이고 낙후된 운남성의 교통망에 의한 장기간의 운송기간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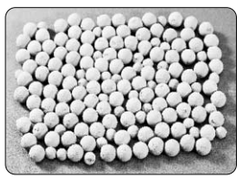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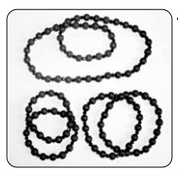
오늘날은 운남성의 교통이 발달되어 1년이 소요됐던 운송을 단 며칠 혹은 몇 시간 안에 이룰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날 운송수단에서 비롯된 자연발효의 맛과 향을 재현하기 위해 우리는 '보이차쾌속발효가공법(普洱茶快速醱酵加工法)'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쾌속발효가공법이란 물과 습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효한 가공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운남성차엽진출구공사지雲南省茶葉進出口公司誌>의 '보이차발효공법 및 설비 개혁시험'에서다. 그러나 내용 중 "1973년부터 곤명차창은 쾌속발효공법을 개발하였으나 대체로 경험을 통한 생산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과학적인 데이터의 부족은 결국 발효과정 중 찻잎 변화에 대한 관찰 및 찻잎 성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는데 미흡하였고 또한 획일적이지 못한 발효주기(醱酵週期)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보이차의 생산방식은 무척 낙후된 상태였다"라는 부연설명을 보아 소위 숙병(熟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미생물발효보이차 즉 칠자병차의 상품화는 1975년 이후부터 시작된 일이라 볼 수 있다.

■ 한서대학교



인공발효한 보이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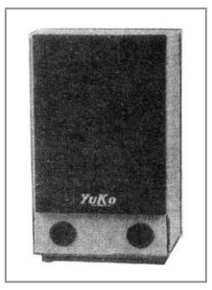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힘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학 인 모 집
불광사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통도소리 · 작법무 교육본산
전통의 영남범음범패 통도소리와 통도사 작법무(바라춤 · 나비춤)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 과		내 용	교 수 진	강의일시
경전교리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교수 : 선과법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전통의식	작법무과 (1년과정)	통도바라춤 통도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 청봉스님 (조영선 무용단 단장) 조교 : 무혜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범패학과 (2년과정)	시련 · 삼신이운 헌공 · 49재 및 전통교육	(통도사 전임 상노전) 교수 : 청봉스님 조교 : 지오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특 전
●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분은 장학생(무료)으로 지원하여 줍니다.
● 본교생이 만약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숙식과 교육에 전액무료임.
◆개강식 일시: 2006년 3월 16일 오후2시
※행자 수시 모집
◆문 의 : ☎ 055)364-4747,4848
◆장 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주차장 및 기숙사완비)
통도소리 · 작법무교육본산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자세법: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레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호흡법
들숨: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차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날숨: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칠,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수련일시
서울 군자법당: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부산 금정법당: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왕정사 서울군자법당 : 02) 456-0035
부산금정법당 : 051) 583-7886
청 견 스 님 : 011) 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봄바람 타고 오는 불청객 '춘곤증'

채소로 물리치자


두릅초회


씀바귀 나물


돌나물 무침


머위 나물


민들레 나물


원추리 나물

꽃샘추위도 지나고 본격적인 봄에 접어들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해준다. 하지만 봄에는 겨울철에 비해 비타민 소모량이 3~10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나른함과 피곤함을 자주 느끼게 된다. 봄나물이 필요한 이유다. 제철 채소로 춘곤증을 물리치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해보자.

▷ 초고추장으로 상큼하게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은 봄나물 양념을 대표한다. 돌나물이나 돌미나리 등을 생으로 먹을 때나 냉이, 달래, 두릅 등을 데쳐서 먹을 때도 초고추장이 제격이다. 초고추장은 고추장 2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큰술의 비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달래- 달래는 성질이 따뜻해 위염, 자궁출혈이나 생리불순 치료제 등으로 쓰인다.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노화를 예방하며 간장작용을 강하게 하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한데 달래는 주로 날 것으로 먹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식초를 곁들이면 비타민C의 파괴가 천천히 일어나므로 초고추장에 무쳐 먹는 것이 제격이다. 그러나 달래는 성질이 따뜻하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두릅- 여린 두릅순의 신선한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활력이 없는 사람, 정신적으로 긴장이 지속되는 사무직 종사자와 학생들이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편안하게 자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두릅의 쓴맛을 나게 하는 사포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회복에 좋다. 두릅의 밑부분을 자르고 살짝 데친 후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씀바귀- 성질이 차서 오장의 나쁜 기운과 열기를 없애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잠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어 춘곤증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좋다. 예로부터 이른 봄에 씀바귀나물을 먹으면 그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 전하기도 한다.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으로 무쳐 먹는다.

돌나물- 물김치로 담가 먹으면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돌나물은 간염이나 황달, 간경변증 같은 간질환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날것 그대로 상큼한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준다.

▷ 된장으로 구수하게

날것으로 먹지 않고 데쳐서 먹는 봄나물의 경우 된장으로 맛을 낸다. 취나물이나 머위잎, 냉이 나물 등에도 된장을 사용한다. 데친 나물 200g을 기준으로 된장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깨소금 1큰술을 넣는다.

냉이- 봄나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냉이는 야채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기관이 약하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좋다. 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생리불순, 코피, 산후출혈, 무기력한 노인들에게 좋으며 밥맛이 없고 간기능이 떨어져서 피로가 심한 사람이나 숙취에도 좋다. 냉이에 함유된 무기질은 끓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된장찌개에 넣어 향긋한 맛을 더하는 것도 좋다.

머위- 절 담벼락에 많이 자라는 머위는 해독작용이 강해 독사에 물렸을 때 잎을 짓이겨 붙이기도 한다. 또한 겨울 동안 쌓인 독을 풀어주고 입맛을 나게 하며 중풍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여린 줄기는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잎은 쌈으로 먹기도 한다. 잎이 작은 것이 쓴맛이 적고 아주 작은 잎은 겉절이를 해서 먹어야 제맛이다.

▷ 참기름 · 들기름으로 고소하게

민들레나 원추리 등의 봄나물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고소하게 무쳐 먹는 것이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다.

민들레 - 민들레는 몸속의 열을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후염, 기관지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약으로도 사용된다. 민간에서는 산모의 모유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짠 후 들깨가루와 간장, 들기름, 깨소금 등으로 무친다.

원추리 - 봄철에만 잠깐 맛볼 수 있는 원추리는 정월대보름에 국으로 끓여 먹기도 했다. 날것으로 먹으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원추리는 몸을 가볍게 하고, 눈을 맑게 해줘 봄철 춘곤증을 해소하는데 좋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짠 후 소금과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 등으로 무쳐 먹는다.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료 · 사진제공=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

▮사찰 봄나물 조리법 배울 수 있는 곳

사찰음식연구원(원장 홍승) 02-2058-0818
선재사찰음식연구원(원장 선재) 031-243-2287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 031-682-3349

▮봄 식탁에 어울리는 제철 재료와 음식

	3월의 식탁	4월의 식탁
채소	봄동, 돌미나리, 달래, 냉이,씀바귀, 고들빼기, 쑥, 고사리	양상추, 껍질콩, 죽숙, 쑥, 상추, 봄동, 두릅, 그린아스파라거스, 원추리
해산물	물미역, 바지락, 대합, 모시조개, 도미, 꼬막	도미, 조기, 병어, 키조개, 김, 고등어, 꽃게, 주꾸미
과일	딸기, 금귤, 방울토마토	딸기, 살구
제철 음식	봄나물요리, 조개탕, 삼치구이, 냉이된장국, 미나리강회, 꼬막무침	쪽파김치, 죽순채, 두릅초회, 조기매운탕, 탕평채, 뱅어포구이, 주꾸미볶음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1〉

새송이샐러드와 냉이소스



아주 어릴 적, 절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들 중 유달리 몸이 약했기에 어머니는 좋은 공기를 마시며 편히 쉬라며 저를 자주 다니시던 절에 며칠 묵게 하신 것입니다.

몹시도 빼빼마르고 입맛도 까다로운 조그만 어린 아이 한 명 때문에 공양시간만 되면 노스님이 꽤나 속을 태우셨습니다. 나물은 맛없다고 먹지도 않고 계란이나 소시지만 찾는 저에게 밥 한 공기 먹이려고 노력하셨던 노스님의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는 제가 된장국에 들어간 냉이의 냄새가 싫다고 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놈아! 봄에 나오는 쓴 나물을 못 먹으며 여름에도 감기 걸리고, 겨울에도 감기 걸려서 밖에 나가서 못 논다. 부처님께서 제철에 나오는 나물들의 맛을 다 다르게 만드신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이 말을, 사찰음식을 공부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봄에 나오는 나물들이 쓴 이유는, 새 생명이 시작하는 봄에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여름과 가을을 버티게 해주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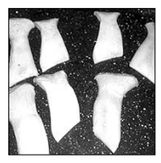
여러모로 너무나 미흡한 제가 음식 한 가지, 식재료 한 가지로도 큰 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게 사찰음식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치를 깨달은 전 봄에는 나물들을 살짝 데쳐 볕 좋은 날 햇볕 아래 말린 뒤 가루를 내어 요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루를 내기 힘든 나물은 한번 데친 후 물기를 꼭 짠 뒤 한 번 먹을 분량을 비닐 팩과 신문지에 번갈아 포장한 뒤 냉동 보관합니다.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나물의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냉이 된장국을 가을에도 먹을 수 있고, 달래 간장을 여름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내 몸만 조금 움직이면 건강한 먹을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절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철에 먹는 신산한 맛과 영양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향긋한 봄 내음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드는법

〈새송이 샐러드〉 재료: 새송이 4개, 미니 파프리카 2개, 쌈 야채 약간



① 새송이은 약간 도톰하게 모양대로 잘라준다.
② 미니 파프리카는 원형으로 잘라준다.
③ 쌈 야채는 손으로 잘라 물에 담가둔다.
④ 새송이는 그릴이 있으면 그릴에, 없으면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구워낸다.
⑤ 접시에 구워낸 새송이와 쌈 야채를 담은 후 파프리카로 장식한다.

〈냉이 소스〉 재료: 냉이 1줌, 양념장(간장 1큰술, 참기름, 다진 청 · 홍고추 약간, 식초 1작은술)



① 냉이는 흐르는 물에 씻어 흙을 완전히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준다.
② 나머지 양념으로 양념을 만든 뒤 냉이와 섞어준다

※맛내기 포인트: 먹기 직전 새송이샐러드에 냉이 소스를 끼얹어 낸다. 냉이 소스는 꼭 새송이샐러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두부요리에도 잘 어울린다.

▶다음 주에는 무채된장국밥과 상추겉절이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퇴행성 관절염
〈신물질 충격 요법〉
약사 나경환 지음

지긋지긋한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절, 허리 근육이 굳어있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뻣뻣하신 분, 고혈압, 심근경색, 뇌혈전, 동맥경화, 고지혈증, 불면증, 만성두통, 정맥류, 손 발저림, 혈액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께 희소식을 전합니다

※ 전화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전화 02)3436-3206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요가 전문 지도자 수강생 모집

아난다 기쁨 요가 협회는 이번 새학기에 요가 전문 지도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사는 30년 인도정통요기로 하파요가와 라자요가의 궁극을 지도하는 요가학과 교수입니다. **"자격증 수여"**

아난다 명상대학에서는 금강경 강좌, 참선, 위파사나 명상을 개설하여 많은 분들이 명상에 참여하시어 삶이 맑고 향기롭기를 바라는 뜻에서 명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요가를 무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부산 교대 지하철역 한양프라자 건너편

▮문의 : 051)502-2361
010-7330-2361

아난다 기쁨 요가 협회
아난다 명상대학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50-8번지 청나마이우스2층

불자들의 바른 수행법과 기초교리 강좌 모집

백련암에서 성철노스님(前 조계종 종정)을 모시고 있을 때 듣곤 하던 말이다.

"요즘 '아(兒)'들은 동(東)으로 가라하면 서(西)로 간데이. 그것도 열심히 간데이."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알고서야 어찌 서쪽으로 가겠는가?
동인지 서인지를 구분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는가?

신행(信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림사 주지 日行 합장〉

◆내 용 : 바른 절자세, 기도수행은 왜 하는가?
◆기 간 : 4월 7일 개강 (4개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회 비 : 3만원
※ 인터넷 : 다음까페 '정림사랑방'

조계종 해인사 백련암 분원 정림사
(경기 의왕시 롯데마트 앞, ☎ 031-426-4004)

나무묘법연화경

충북 제천시 모산동 해월사에서는 대형 괘불을 모시고 점안 봉안할 예정이옵니다.

법화의식으로 괘불점안의식을 여법하게 하고자 하오니 괘불점안의식을 아시는 스님께서는 광고보시는 즉시 연락 접수해 주시면 선별하여 통보드리고, 괘불은 4월 하순경에 모시고 점안의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괘불점안의식의 접수에 혼돈을 막기위해 의식지면에 주소, 성명날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괘불점안의식에 채택되는 스님께서는 앞으로 묘법연화경의식을 학습하는데 지도법사로 모시겠습니다. 괘불점안의식이 없고 요품으로 하시는 스님은 전화를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월사 주지합장

(괘불치수 : 길이 8미터, 넓이 4미터)
현재 괘불조성중

충북 제천시 모산동 42번지 해월사 종무소
연락처 043)648-6324

영상물 배경음악 필요하세요?

올포뮤직, 방송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찰 · 불교단체에서 홍보나 행사 영상물을 만들 때 배경음악이 고민된다면? 이제 방송배경음악 전문업체 올포뮤직(주)(대표 강인구)에 맡기면 될 것 같다. 올포뮤직이 방송배경음악에서부터 각종 행사 음악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맞춤형 음악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섰다.

올포뮤직은 사운드 음악 레코딩을 포함한 모든 소리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일종의 사운드 디자인 회사이다. 이들이 선보이는 음악은 이미 1만 여곡으로 풍성

1만 여곡 DB화, 매월 100여곡 업데이트 라이브러리 CD '한국의 소리' 제작 계획

한 DB를 구축해 놓았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달 100여개의 새로운 곡들을 업데이트 하며 DB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세계 최초로 BGM(방송배경음악)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전문 검색 시스템을 제공함과 동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음원 및 음악 저작권도 철저하게 보호한다.

올포뮤직의 강인구 대표는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게 새로운 방송 영상음악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포뮤직은 사찰용 맞춤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 효과 및 배경 음악 등도 서비스 한다. 올포뮤직이 제작하는 음악들은 특정기간 독점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라이브러리 CD '한국의 소리'를 정기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방송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카테고리를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음원도 제공한다.

다큐물은 자연 · 역사 · 고발 · 미스터리 분야로 나눠 청자, 장승, 산골의 저녁, 등 신비로움과 서정적인 분위 등을 표현한다. 드라마물 역시 미스터리 · 멜로 · 액션 등으로 나눠 훔쳐보기, 비오는 거리, 삶의 모습, 애정의 조건, 비밀 등 긴장감과 코믹함 충격 등을 음악으로 나타낸다. 쇼 오락 보도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효과음악들도 서비스한다.

음악 음원 제작 서비스 외에도 올포뮤직은 소속 예술단인 가야금 3중주단 '소나기'와 퓨전 실내악단 '공감'을 운영하며 전통음악 속의 창작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올포뮤직 측은 "서양의 소리에 눌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소리를 다시 찾기 위해 젊고 실험적인 연주단원들로 예술단을 구성했다"며 "새로운 창작음악 개발을 통한 연주기법의 다양화와 불교 등 동양의 전통 사상을 음악 속에 담아 장르 국적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02)3471-9690, www.bgmusickorea.co.kr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금불상을 찾아라"

문화재도굴꾼 소재 '마이 캡틴 김대출'



유물과 유적 그리고 남아있는 보물의 도시 경주. 이 곳에서 국보급 가치를 지닌 금불상 찾기가 시작된다.

전문 문화재 도굴꾼이 금불상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찾게 된다는 코믹 휴먼스토리 '마이 캡틴 김대출'. 송창수 감독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경주에서 수없이 들으며 자랐던 도굴꾼 이야기를 영화화 한 것이

정재영 · 장서희 등 연기 불국사 등서 촬영, 4월 개봉

다. 송 감독은 2003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이 각본으로 입상했다.

전문 문화재 도굴꾼 '김대출' 역은 연기파 배우 정재영이, 대출과 암암리에 거래를 일삼으며 뒷돈을 챙기는 '노 형사' 역은 성격파 배우 이기영이 맡았다. 불자 배우 장서희는 공중 곡예사 '애란' 역을 맡아 보물찾기의 열쇠를 가진 아들 '병오'를 향한 뜨거운 모성을 보여준다.

불국사를 비롯해 천마총 대능원 등을 돌며 촬영한 경주의 아름다운 풍광은 잔잔한 감동을 배가하며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4월 개봉 예정. 강지연 기자

지연 스님 불교꽃꽂이 무료공개강좌



불교꽃꽂이 전문가 지연 스님(한국꽃협 보림꽃예술중앙회 회장)이 4월 6일부터 꽃꽂이 무료공개강좌를 개최한다. 3개월간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꽃꽂이 무료공개강좌는 서울 기원사에 위치한 보림꽃예술중앙회 불교꽃꽂이연구원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무료공개강좌는 일반반 특별반 불교반의 세 강좌로 운영된다. 6일 오후 1시에 개강하는 일반꽃꽂이반은 수반꽃이 병꽃이 동서양 꽃꽂이의 비교 등을, 특별꽃꽂이반은 꽃다발, 꽃바구니, 테이블 꽃꽂이, 코사지, 부케 등을 강의한다. 27일 오후1시에 개강하는 불교꽃꽂이반은 꽃꽂이 사범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연구과정이다.

지연 스님은 "불전 장엄과 부처님께 올리는 불전공화의 전통을 계승한 불교꽃꽂이는 현대 수반 · 성전꽃꽂이 및 육법공양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10년을 목표로 무료공개강좌를 시작해 이제 절반이 된 만큼 불교꽃꽂이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02)918-0034

강지연 기자

회화 설치 비디오 영상 등 전시

2월 23일~3월 25일 신사동 space*c 전관에서 'Art Wall Artist_회화의 경계를 넘어' 전시회가 열린다.

김태연 이진준 김지희 반진경씨 등 12명의 작가들이 회화 설치 사진 비디오 영상 등을 작업한 16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02)547-9177

강지연 기자

김유정 문학제 4월 21~23일

4월 21일~23일 김유정문학촌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제4회 김유정 문학제를 개최한다.

4월 21일에는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 김유정 소설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김유정 재조명 학술세미나가 열리고 22일에는 김유정 소설 입체 낭송대회가, 22일에는 김유정 산문 백일장이 열릴 예정이다. 23일에는 유인순 교수와 함께 떠나는 김유정 문학현장 답사 기행이 마련돼 있다. 같은 날 문학촌 생가 마당에서는 김유정 작품 속에 나타난 30년대 삶 체험의 장이 열려 캐릭터 찾기, 닭싸움, 민속놀이, 풍물장터 등이 열린다. (033)261-4650 강지연 기자

MBC '견공 잔혹사' 선정적

(사)보리 방송모니터팀이 3월 12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2580의 '견공(犬公) 잔혹사'를 모니터한 결과 "사회문제를 드러내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화면을 끔찍한 장면으로 채우는 것은 명백히 선정적인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모니터팀은 "문제의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현행 법규범의 실태 및 문제해결책을 담은 방송이 아쉽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스타와 스님

소보로 빵 챙겨주는 스님 최고!

농구 선수 추승균 · 봉원사 일운 스님



추승균 선수(가운데) 부부와 일운 스님.

'소리없이 강한 남자' KCC 농구팀 소속 추승균 선수는 최우수 수비상, 우수 수비상, 모범선수상 등을 휩쓸며 묵묵히 제역할을 해내는 걸로 유명하다. 정규리그 수비 5걸에 4개 시즌에 걸쳐 선정될 정도로 수비 리바운드도 뛰어나다.

농구스타 중의 스타 추승균 선수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옥천범음대 학장)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 최근 부쩍 가까워져 생일과 대소사를 챙기는 사이가 됐다는 소문이다.

장모·처이모 소개로 인연 맺어 해산 앞둔 부인에 전화 상담도 대소사 챙기며 '존경·사랑' 키워

"불교를 좋아했지만 스님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절에 가는 것이 꺼려졌는데 이모와 엄마를 통해 만난 일운 스님이 너무 자상하게 대해 주셔서 불심이 새록새록 생겨요. 이제야 엄마와 이모가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선수의 부인 이윤정씨의 말이다. 추선수 부부가 일운 스님과 인연을 맺기까지 이씨의 이모가 가교역할을 했다.

봉원사 신도인 이씨의 이모는 매일 절에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곤 했다. 꾸준한 그 모습에 일운 스님은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했다.

"자주 만나면서 부처님 말씀 전해주니까 아들 동생 등 가족 7명이 찾아왔어요. 그때 데리고 온 동생이 바로 추승균 선수 장모였어요. 인연의 고리가 이런 거랍니다."

일운 스님은 추승균 선수의 처이모와의 인연 역시 보통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인다. 일운 스님에게 수학한 제자 스님의 소개로 이윤정씨 이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찾아왔던 이윤정씨는 임산부였다. 소보로빵을 좋아한다는 소리에 일운 스님은 말없이 챙겨줬다. 과자를 보내고 안부 묻고 절에 오면 차도 같이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눴다.

훈련이다 경기다 자주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을 위해 이윤정씨는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했다. 추승균 선수의 본가가 있는 부산에선 추 선수의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등 온 집안이 불자집안이다.

지난 2월 13일에는 부부가 함께 일운 스님을 찾았다. 만삭의 몸을 하고도 스님에게 선물하겠다며 거북이 모양 토피어리에 예쁜 꽃을 심어 들고 온 것이다. 4월 해산을 앞두고 절 찾는 것이 뜸해진 이윤정씨는 대신 스님과 종종 통화를 하며 이것저것 상담을 한다. 스님에게 미니홈피 주소도 알려주고 일운 스님의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안부를 남기기도 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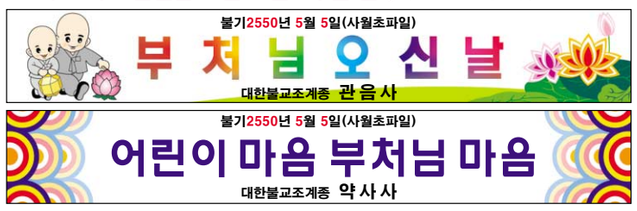


추승균 선수 부부가 직접 만들어서 일운 스님에게 선물한 거북이화분.

불법복제판매 불허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 축 현 수 막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환영 (서울지역 시공가능, 설치비 별도)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현수막도 제작 가능

◆ 지하철(장엄)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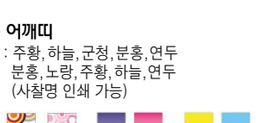


◆ 티셔츠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통칙스님 판화 작품

◆ 앞치마
색상 : 군청, 주황, 연두, 노랑, 분홍, 빨강, 녹색



◆ 봉축 캐릭터 풍선



(바람넣는 손펌프도 있습니다)

◆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



◆ 봉축 어깨띠
색상 : 주황, 하늘, 군청, 분홍, 연두 분홍, 노랑, 주황, 하늘, 연두 (사찰명 인쇄 가능)



◆ 봉축 타이슬링



◆ 연꽃타올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 연꽃수건
색상 : 주황, 진녹, 밤색



◆ 청사초롱(5가지 1세트)



◆ 봉축 캐릭터 등
색상 : 적색, 분홍, 녹색 노랑, 청색



화재염려 없는
◆ T형 일체식 케이블
※ 실용신안등록 제품!



◆ 봉축 리본



일반 고급 3단귀빈용

◆ 불자의 집 교패



차량용 옴마니반메훔

◆ 호신불 열쇠고리
(200개이상 사찰명 인쇄)



앞면 뒷면① 뒷면②

◆ 황금목탁 핸드폰줄
(24K 도금)
신제품



◆ 봉축 버튼



◆ 부채



◆ 자외선차단 썬캡
색상 : 빨강, 청색



◆ 아동모자
색상 : 빨강, 노랑, 청색



◆ 성인모자
색상 : 청색, 녹색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 감로기획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대표전화. (02)723-4306 | 팩스. (02)738-8682 | 홈페이지 : www.gamro.net | E-메일 : gamro4306@hanmail.net

믿음이 깊어지면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

새롭게 발심을 하려면…

문 불교에 입문한 지 5년정도 됩니다. 한때는 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좌선도 열심히 하고 큰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러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로구나' 하는 구체적인 느낌까지도 뚜렷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발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힘도, 그렇다고 저를 완전히 끌어안고 감싸 주고 다독여 줄 힘도 안 나더군요. 새롭게 발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요?

답 이 참나를 발견하는 이 문제는 성내는 거든 성을 안 내는 거든, 환희심이 나는 거든 환희심이 안 나는 거든 무조건 거기 맡겨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과 선도 다 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안되는 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알아 놓으신다면 뭐든지, 올바로 눈이 뜨이고 코가 트이고 맛을 알고 귀가 트이면 어디고 모르는 데 없이 착착 가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 기복으로만 나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살아서 모르니깐 죽어도 어딘지 몰라서 항상 그러죠. 개집도 들어갈 수 있고 뱀 소굴도 들어갈 수 있고 말입니다. 그건 어쩌다 식만 남아서, 살던 식, 그 습만 남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지 깜깜한데 어떻게 찾아 들어가나요? 그러니 살아서 눈을 뜨지 못하면 안 되고, 귀가 트이지 않으면 아니 되고 전 우주에 그 향기 냄새를 맡지 못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맛을 못 보죠.

그리고 본래 사람들은 신심을 쌓고 안 쌓고가 없이 그대로 부처님 법을 지금 지녀 가고 있습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렇다는 거를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한 군데다 뭉쳐서 놓아야만 합니다.

자든 앉아 있든 서 있든 사생이 다 모두가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문이 둥굴려져서 사방이 다 터졌는데 그 문을 어디서 찾느냐. 사방이 다 터졌는데 문을 어디서 찾느냐 이런 소리죠.

생활이 즉, 우리가 지금 모든 거를 집어넣는데 그게 문을 찾는 대도의 길이다. 그리고 근본 참선이다. 어디 하나 걸림 없이 참선이 돌아가는 동시에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림도 없고 집어넣음도 없이 참선을 하고 있다. 그러니 함이 없이 바로 참선을 하고 있다. 벌써 참선한다고 틀고 앉아 있으면 그건 참선은 떠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앉아 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서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잠을 자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졸릴 때에 잠자는 것도 참선이요 아주 바빠서 일을 할 때 일하는 것도 행선이요, 또 아주 바빠서 가야 될 때 가는 것도 바로 참선이다. 서있는 것도 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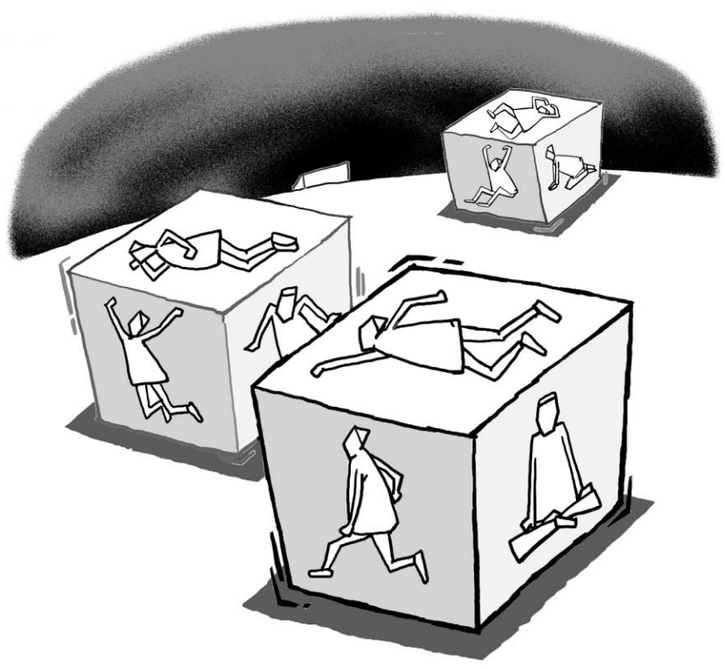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거라면 '어, 거기서밖엔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선 거기 놓고, 잘됐으면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참 이거는 '아주 슬기롭게 내가 했다.'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했다는 생각조차, 또 안된다는 생각조차, 빨리 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놔야 합니다. 거기 모든 걸 일체 실험해 보십시오.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거기서부터 감사하다. 거기서밖에 못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믿는다.' 이거를 꼭 하세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옛날의 그 선지식들이 공부하면서 방편으로 해 나간 걸 고집부리지 말고 지금 현 시대에 물결치는 대로 전부가 그대로 참선인 것을 알아야 하죠. 전부가 참선이 아니라면 어디에고 걸려서, 앉아 있는 데도 걸리고 서 있는 데도 걸려서, 참선이라고 하는 데도 걸리고, 좌선한다고 하는 데서도 걸리고, 인제는 다 했다는 데서도 걸리고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죠. 내가 해야겠다고 발심을 내는 데도 걸리고 말입니다, 공에 들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공에 들어서 또 편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잘한다고 그러죠. 몸으로 아무리 공에 들어서 그 앉아 있는 기술이 좋다고 그래도 그건 기술입니다. 참선이 아니라 그것은 기술이에요, 어디까지나. 몸을 단련해서 잘 앉아 있고 오래 앉아 있는 거는 기술이지, 그것은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건 걸어가면서도 내 할 일 다 하는 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외국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려면…

문 스님, 여기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입니다. 여기에서도 '길을 묻는 이에게'를 보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활방식이 다르다 해도 그 자리는 하나, 바로 주인공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항상 그 진리를 가슴에 꼭 품고 왔습니다만, 현실 속 러시아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많은 경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요즘은 좀 불안해지고 7년을 계획했던 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기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제가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 여러분은 하나하나 매사에 등한시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못 살죠. 그런데 둘 아니게 살면 등한시 안 해도 살 수 있고 둘로 나누어서 본다면 하나하나가 어지러워서 못 살아요. 발길에 차여서 못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분들이 할 일이 진짜 뭐냐. 참선이다. 참선은 어떻게 해야 진짜 참선으로 하는 것이냐. 첫째 참선으로 하려면 모든 걸 들이고 낼 때에 가서 안 오는 걸 억지로 잡지 말고 나한테 오는 거 마다하지 말라. 그리고 둘로 보지 말라. 모든 걸 들이고 이렇게 놓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들이고 놓을 때, 일을 하든가 앉았다 일어나고 누웠다가 일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그냥 천연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생으로 태어났다, 인생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명이다 하면, 앉았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하고 하는 거는 누구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걸 아니다 기다 할 거 없이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참선 아닌 진짜 참선이다 이거죠. 어디 한 군데라도 막혔어야 이거를 막힌 데를 틔우고 또 막히지 않은 데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어요. 다 터졌는데 어디를 틔우려고 문을 찾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을 쓸 때 돌 쪼가리가 있어서 걸려서 돌 쪼가리를 집어서 이렇게 치우는 것도 참선이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벽하게 절감하고 정심으로서의 그 도리를 알고 지내야만이 앉아 있을 때도 시간을, 즉 말하자면 3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앉아 있게 되면 앉아 있고 설 때 되면 서고 누울 때 되면 눕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무사유가 다 그냥 한데 합쳐져서 터져 버려서, 터져 버렸으니까 본래 진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터져 버렸으니 무엇을 생각으로 고민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겠느냐. 그러니깐 이렇게 방편으로 선방이다 뭐다 해 놓는 거죠.

팔방미인으로 그냥 문이 없고 문이 있고 그거를 떠나서 그냥 걸림 없이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진리를 따져 보자고요. 진리를 보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한번 그래 보세요. 전자의 선지식들은 그 참선하는 데 앉았다가 오줌 마려우면 펄떡 일어나서 얼른 오줌 누러 가잖아요. 그럼 '선이 끊어지는데 오줌은 왜 누러 가느냐.' 이러고 한방 먹였다고요. 그게 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한방 먹인 거거든요. 그럼 오줌 누지 말고 그냥 오줌 싸고 앉았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로 빠져야 걸림 없이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도리죠.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항상 들어서 알겠지만 인생은 덧없이 그냥 바람결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결같이 가는 그 물질적인 모습에 바로 참자기가 있거든요. 참자기가 일체 모든 것을 다, 안팎을, 만법을 다 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모습은 자기 정신계의 시자일 뿐이에요, 심부름꾼. 자기가 안 보이니깐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심으로 놓고 공심으로서 살고 둘로 보지 말고, 하나하나 모두가 공체로 사니까 공생으로 살고 이 나무나 돌이나 풀, 모두가 같이 공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 속에도 수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 생명들도 모두가 공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체를 다 둘로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삼세가 둘 아닌 노래' 그 노래 지어 놨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즐창 천년만년 살 줄 알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또 바뀌고 또 태어나고 또 바뀌고 또 태어나고.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살면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나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를 다 알려면 내 내면의 주인공 자체를, 진짜로 그게 불성이니까, 그게 자불이자 불성이자 주장자니까 열심히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뭐든지 하세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말다툼을 하더라도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공에다 넣고 '이거를 이렇게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모든 거를 다 거기다 놓고 '화목하고 둘 아니게 살게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 다 맡기고 사세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문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지경인데 스님께서는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힘든 제 마음이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답 예전의 선사들은 팥 죽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게 전부 문수라고 그랬죠. 요놈! 이게 주자거든. 주걱이 아니라 주자거든요.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액면 그대로 듣지 마세요. 주걱이 주자고 바로 이 방울 방울 나오는 것이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이고 요놈도 고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전부 고놈입니다. 아니, 팥죽 속에서 다 나온 거죠, 팥죽 방울이.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살림살이 이것이 팥죽 끓듯 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들이 아주 간략하게 쳐서 15억이라고 해도 되고 16억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숫자로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하나가 수천도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니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연애를 걸러 하도 다니기에 어느 날 사형이 보니까 아, 요놈이 또 연애 걸러 갔거든요. 그런데 몸뚱인 놓고 그게 진짜가 가는 거죠. 가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구름을 타곤 그냥 연애 걸러 가니까 '요놈 또 봐라.' 그러고선 구름을 타고 가는 거를 그냥 탁 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그냥, 사형한테 이젠 안 그럴 테니 살려 달라고 그래서 놔 줬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게 죽 솥에 죽 끓듯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인과로 인해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이 뭉쳤기 때문에 고(苦)덩어리니까요. 거기서 그 방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 방울마다 나오는 대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방울을 바로 그 마음으로써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다스리지 못하고는 나오는 대로 그냥 말도 해 버리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급살을 맞아라.' 뭐 어쩌고. 그리고 미우면 '어유, 나가서 죽지 않나?'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죄업이 벗어져서 잘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니까 '이 둥우리는 냉랭한 둥우리구나.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고는 거리로 나돌다가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자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박을 한다 하더라도 "얘, 너 어디 가서 춥지나 않았니?" 또 더울 때는 "덥지나 않았니? 뭐라도 좀 먹었니? 얘, 너에게 해 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을 해 놓고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고 여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해 주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거기다가 그렇게 뽀뽀 한번 해 놓고 "당신을 사랑해!" 또 "너를 사랑해!" 이러고 종이에다가 요렇게 해 놓고 나가면, 그거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이해력을 가지고 넓게 쓴다면 그 보금자리가 너무나 따뜻하기에 바로 화목해지고 딴 데로 이탈이 되질 않아요.

맷돌에 심봉을 딱 끼우고선 돌리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안 갈아지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입니다

물건을 넣으면 잘 갈려 나오지만 심봉을 잘 꽂질 않고 하면 그냥 그게 맷돌이 이탈이 되죠. 그리고 그 물건도 갈아지질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살면 이탈이 되고 잘 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네 사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봉만 딱 이탈되지 않게 꽂아 놓고 그대로 잘 돌린다면 뭐라도 넣어서 갈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갈아지는 게 어딨습니까. 안되는 게 어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그대로 법이요, 중용입니다. 인간이라면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보람도 가져야만이 인간이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선 항상 안에도 노예가 되지 말고 바깥도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번 뒤집어 볼 생각을 하세요. 망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을 망상이라고 끊지 않고 가는 자는 그게 열반으로 직결하는 지름길이니라.' 그랬습니다. 망상은 바로 보살도를 이루는 데에 과정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왜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겠습니까? 여러분은 망상이라면 그걸 끊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놓을 생각을 하십시오.

마음이 요동을 쳐서 펄펄 뛴다 하더라도 펄펄 뛸 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조개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 '에이, 죽는 것도 너로 인해서, 사는 것도 너로 인해서!' 아, 이러면 펄펄 뛸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두 여러분을 공부 가르치려고 주인공이 외려 딴 사람을 시켜서 룩룩 찌르게 만들고 일을 벌여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가지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이 나죠. 그럭하지 마시고 '아하, 이게 거기서 나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이구, 알았구나!' 그러고선 그냥 없어져요. 팥죽 솥에

☞30면으로 계속

오직 자기 주장자에서만 그냥 생활하세요!

☞29면에서 계속

팔죽 끓는 것 탁 치면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올라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오는 대로 거기다가 그냥 그 주자로 쳐서 거기다 놓으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 무명을 벗고 또 남도 동시에 무명을 벗겨 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거, 그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든 바깥에서 다가오는 거든 그 마음 한자리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거만 놓치지 않고 가시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식위해 어떻게 놓고 관해야 하는지

문 스님께 삼 배 드리옵니다. 저는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입니다. 제게는 31개월 된 예쁜 아들이 있는데요, 성장 발달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죽는다 해도 주인공이 있기에 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 정말 자식 일은 왜 이리도 놓기가 힘이 드는지요?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자식 일에 부딪치면 꽉 막힙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인공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한바탕 우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스님, 이 못난 어미가 자식을 위해 어떻게 관하고 놓아야 되는지요. 이 어리석은 중생을 위하여 스님의 마음 한번 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답 여러분이 얼마나 그대로 진행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 이 자체를 가만히, 자기를 좀 보세요. 내가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를 검증해 보세요. 내 자식이 금방 차에 치여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눈 하나 꿈쩍 안 하겠는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가지고 너무나들 애착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금방 차에 치여 죽었다 이런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슴에다가 넣고 지지고 볶겠습니까, 가슴에다 묻어 두겠습니까, 그 영혼을 그냥 승천시키겠습니까?

자식이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인연이 우리가 전자에 어떠한 과정을 살아나갈 때 악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악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아주 극진히 잘하고 있다가 탁 없어져 가지고 부모에게 뼈아픈 고통을 주듯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도 자식이 아니에요. 매미가 자기 몸 하나 꺼내려고 자기 몸을 그냥 막 갈갈이 찢죠.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를 꺼냅니다. 자기를 꺼내서 나와도 자기입니다. 그럼, 자식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면 나한테 넣어도 그저 착이 없고 항상 같이 하면서 같이 살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회향을 할 때는 그냥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흡수가 돼서 회향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보살행이죠. 그렇게 모두 둘이 아니게 보고 둘이 아니게 행해야 하고 둘이 아니게 아픔을 거두어 줘야 하고, 자기 몸이니까. 둘 아니게 이끌어 가야만 그 지위가 그대로 보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아듣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것 다 하시되 착을 두지 말라 이런 거죠. 부모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착을 두고 기복으로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걸리다 보면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회향할 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계라는 것은 잘못하면 짐승으로 갔다가 또 잘하면 사람으로 오고, 이렇게 뒤범벅이 되는 글레바퀴 같아요. 수레바퀴 같단 얘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잘하는 거냐. 오직 자기 주장자, 자기 주인공에서만 생활을 그냥 하세요. 주장자에 의해서만 생활을 하세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니까요. 주장자의 시자니까요. 심부름꾼이란 얘기예요. 자기 주장자의 심부름꾼이에요. 자불의 시자죠. 입산한 사람들은 자불의 시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는 자불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전에도 만날 말했죠.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몸뚱이를 배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배라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리고 내 주인공을 선장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럼 선장이 이끌어 가는데 가만히 거기다 맡기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가는 데까지 가죠. 그런데 이거는 바람이 불면 바람 분다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별거 다 찾죠. 이렇게 하면서 서서 날뛰고 난동을 부리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고 견딜 수가 있나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장한테 맡기고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배도 뒤집히지 않고 저절로 그냥 잘 가고 또 선장과 둘이 아니게 되고,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파도가 일고 생활할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력이 없으면 그렇게 안되죠. 원력이란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단 말입니다.

이 도리는 모르지만 믿음이 진실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연세가 좀 많은 보살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도리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요. 그분은 오직 믿음으로써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노인은 눈 하나도 깜짝거리지 않아요. 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게 되는 거니까 죽는 거지.' 그냥 이래요.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식들이 잘되고 몇 십 년씩 앓다가 나중에는 병이 깊어져서 죽게 된 남편도 그냥 쓱쓱 털고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원력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깊으면 모두 그냥 그렇게들 일어납니까. 벌써 보면 알잖아요. 가정을 보고 그 사람 살아나가는 걸 보면 벌써 '어, 저 사람은 원력이 벌써 어떤 단계에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떤 회사를 크게 해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그냥 덕덕덕덕 해내고 가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IMF 세상이 돼서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잘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준 은혜를 어떡하면 다 갚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다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나한테 갚으려고 하는 생각도 버려라. 바로 네가 나고 내가 너라면 그대로 네가 하는 건데 뭘 어디다 갚고 어디다가 주고 하느냐. 어디다 갚을 게 있느냐. 그러니 너와 모습이 둘이 아니요, 생명이 둘이 아니요, 바로 마음이 둘이 아니요, 어려움이 둘이 아니요, 아픔이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닌 그 사람이 어려워하걸랑 좀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그게 갚는 거다. 일부러 내가 모르는 사람을 돌아다니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 앞에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서로가 서로를 도와 가면서 사는 게 바로 그 빚 갚는 거다." 그러니 공부는 더더욱 증장이 되고 공덕도 더더욱 증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바깥에서 다가오는 것이든
그 마음 한자리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것만
놓치지 않고 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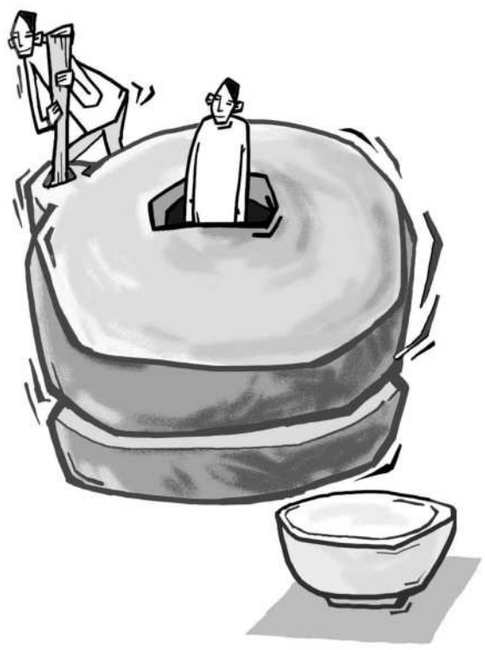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제12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새로운 모습으로 어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06년 어린이날 기념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무료 참가,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여
목아불교박물관 한 달간 매일 개최, 인터넷 · 우편 공모

그림접수 : 2006년 3월 25일(토) ~ 4월 25일(화)
발 표 : 2006년 5월 1일(월)
시 상 : 2006년 5월 5일(금)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날
대 상 : 전국의 어린이(만 5세 이상 유치원생, 초등학교 1~6학년)
참 가 비 : 무료
참가부문 : 유치원 · 초등 1,2학년(크레파스) | 초등 3,4학년(수채화) | 초등 5,6학년(판화)
특 전 : 참가자 2,000명 기념 선물 증정, 본상 수상자 전원 중요 무형문화재 제 108호 목조각장 목아 박천수 선생님의 작품 수여
주 최 : 월간 불광(02-420-3200), 목아불교박물관(031-885-9952)



참가방법

1. 2006년 제 12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는 일체의 참가비가 없습니다.
2. 전국의 어린이들(개인, 단체)이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한 달간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직접참가, 우편 · 인터넷 참가)
3. 각 사찰 어린이법회 및 단체에서는 3월, 4월 중 법회나 모임 때에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를 직접 개최하실수 있도록 도화지와 참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참가신청서 제출)
4. 어린이 여러분이 직접 그린 그림(개인 · 단체)을 4월 25일까지 보내주십시오(개인 · 단체 2000명 기준, 우편 ·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월간불광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담당자 앞)
5. 수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회 홈페이지(www.moka.or.kr www.bulkwang.org/grim.html)에 발표합니다.
6. 시상식은 5월 5일 있을 예정이며 시상식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상장과 상품을 미리 보내드려 각 사찰 및 단체별로 5월 5일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후원 : 문화관광부, 봉축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사)한국박물관협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 (재)보덕학회, 불광사 불광법회, 신흥인쇄, 불교방송 **협찬 :** 롯데월드, 대림지류유통, 신우, 한불신문, 덜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월간 「금강」, 월간 「불교」

이 맛에 삽니다 (상)

조형숙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그림 · 문병성

나는 요즈음 음악 듣는 맛에 삽니다. 음악을 듣다가 흘러간 팝송이나 많이 알려진 노래라도 나오면 혼자 음악에 심취해 리듬에 내 몸을 맞추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열마동안 음악에 빠져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의 경우로 본다면 3~ 4개월은 족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좋아하던 것들도 약간은 시들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공소사는 예외인가 봅니다. 3개월이 아니라 3년째 다니고 있으니까요.

마음 속 화와 분심, 가족 탓으로 돌려 카메라로 '나' 촬영하듯 관하는 법 연습 행동 집중할수록 감정의 변화 일어나

2002년 3월, 처음 수원 공소사를 찾아 갔습니다. 그 당시 나는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 외출도 거의 못하고 집에서 불교서적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고 있을 무렵, 한 도반이 '공소사'라는 사찰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통에서 꽤 멀다고 느껴지는 공소사에 어떤 기대도 없이 '한번 가 볼까' 하는 호기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들렀던 그 날은 금요일이었고 정기법회와 청아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스님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차분해서 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막 시작한 신도님들의 돌림법회는 매우 이색적이면서 활기차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혼자 장담 아닌 장담을 했습니다. 몇 개월을 덤덤히 다니면서 나에게는 생소한 말들인 '관(觀)' '주인공자리에 믿고 맡겨라' '마음공부' '수행'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생각도, 책을 뒤져서 알아볼 마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하시는 스님의 말씀에도 '뭘 물어야 하지?' 하면서 약간은 멍청히 그리고 묵묵히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를 따져서 알아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나 의문도 없이 담담한 마음으로 다닌 것이 오히려 마음공부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조금 더디고 얻은 것은 적었겠지만 말입니다.

내 자신의 경우, 너무 많이 알고 받아들인 것을 내 것으로 체득하지 못해 마음이 복잡해지기 보다는 한 가지씩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하며 생활에 적용해 본 것이 더 실질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상하리만치 스님의 말씀과 공양 후 다담시간에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 어떤 반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법문 같았고, 일상적인 생활의 대화조차도 재미있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갔던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힘주어서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어려운 한문을 섞어가며 하시는 설법보다 작은 소리로 조근 조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살갑게 다가오고 핵심을 꿰뚫어서 내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겸손하고 고분고분하며 평온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기를 꽤나 잘 한 것이겠지요. 내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나의 내부는 항상 '화'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항시 불안해하고 신경질이 많았고 주위를 불만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히 식구들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남과 비교하면서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식구들도 힘이 들었지요. 언제나 우리 가정이 엉망으로 뒤틀려 가는 것을 남편이나 자식 탓으로만 돌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스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뜻으로 '조일심(照一心)'이라는 법명을 지어 주셨으니까요.

"하루에 몇 초라도 의지적, 의식적으로 내면을 살펴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 내면의 생각, 감정, 두려움, 의문 등을 주인공에게 믿고 맡겨라."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 특히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은 자기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 무슨 해결책이 나오며 변화가 있을까? 엉켜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위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 자기 자신을 보라고?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무조건 해 보았습니다.

사실 내면에 집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상대를 보면서 상대를 판단, 분별하며 살던 습이 더 익숙하므로 자신의 내면 관찰은 너무 생소했지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처음엔 '촬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카메라맨이 되면서 동시에 카메라속의 주인공이 되는 1인 2역의 역할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찍는 것이지요.

발걸음 옮기는 것, 밥 먹는 모습, 음식 준비하는 손놀림 등 하루에 단 1분일지라도 집중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찍는다고는 하나 처음엔 거의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순간순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동만을 집중해서 보다보니 어느 순간 올라오는 감정, 생각까지 알아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아주 한순간 올라오는 걱정, 두려움, 불안, 욕심 등을 살피다가도 곧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일상 속에 묻혀버려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거의 습에 의한 행동과 말이 반사작용처럼 튀어 나오곤 했는데 올라오는 생각을 알게 되고 상대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내 감정의 변화를 눈치 채게 되니 '아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면도 있었네' 하면서 반응이 느껴지고 조금씩 조절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자신을 찍으니 재미있으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마음까지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그러니 주변을 보는 내 시야도 좁은 틀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면서 식구들과의 관계도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고 제가 녹여가야 하는 업의 인연은 더 많은 듯 했습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대구경북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1년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회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원)

학기	월 별	강 의 내 용	비 고
1학기	2006년 3~6월	기초 : 목탁치는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 등 예불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 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 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음시식 구병시식, 장의편, 방생의식	기초불공의식 및 재사의식
	7~9월	상주권공(범음범패) 할향, 등게, 삼귀의,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태징타법,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외..... 범음 · 범패
2학기	10월 ~ 2007년 1월	천도의식(전통범음) 시련재, 대령재, 관욕재 옹호게 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및 시식 삼보통청, 지장청, 시식회향	법주, 바라지 관욕바라, 화의재 바라 향수나열(범음) 사다라니 바라 운심게, 가지게 (범음) 화청, 축원화청
	2007년 2월	시연회 준비 전체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시연함.	특강 : 법고 공덕게 (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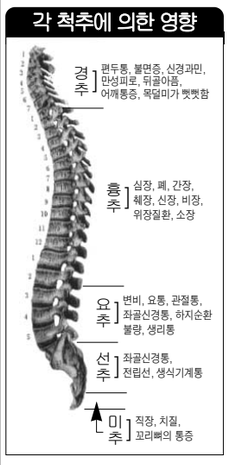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수시모집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학기당 600,000원[총 2학기]
5.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8. 문 의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 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5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5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5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고(古)건물 수 리 전 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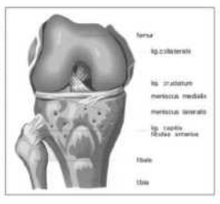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나무와 돌이 공존하는 관음사 곶자왈.


관음사 숲은 세계적인 왕벚나무 원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몸체 속에 포자를 가득 품은 먼지버섯.


복수초는 봄이 오기전 눈속에서 꽃망울을 터트린다.


한뿌리에 잎이 한장씩 돋는 비비추난.

돌·나무 어우러져 신심 꽃피우는 '자연도량'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6) 제주 한라산 관음사

해발 1950m인 한라산은 화산 폭발과 함께 단번에 오늘날의 모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제주도 지형의 특징인 곶자왈, 오름, 용암동굴 등도 오랜 풍화나 침식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각기 시차를 둔 화산활동의 과정으로 생긴 것이다. 한라산 중산간지대에 분포한 곶자왈은 한라산만의 특수형 지형이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관음사(觀音寺)도 한라산 북사면 곶자왈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도 불교의 남방전래설은 여러 정황이 나오긴 하지만, 이를 고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제주 불교의 본사인 관음사의 창건사마저도 오리무중에 있다. 숙종 때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李衡祥)에 의해 훼철된 후 20세기 초에 이르러 비구니 안봉려관(安逢麗觀) 스님이 그 폐사지에다 법정암(法井庵)이라는 이름으로 관음사를 중창했다고 한다.

관음사는 제주에서 자동차로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다. 산천단(山川壇)은 관음사 가는 길목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산천단은 제주 목사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으로, 주변에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여덟그루의 곰솔이 자라고 있다. 수령 6백년에 높이가 30미터 안팎, 둘레가 20미터 안팎인 노거수들이다.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나무들로 알려져 있다.

일주문에서 경내에 이르는 길 좌우로 편백과 삼나무가 숲을 이루고, 돌담의 석단에는 불보살상들이 도열해 있다.

화산섬인 제주도는 어딜 가나 돌이 많다. 관음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화산활동으로 생긴 크고 작은 현무암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경내의 보도석, 담장, 계단, 석축, 전각의 주춧돌까지도 모두 현무암이다. 진입로에 도열된 수 많은 불상들을 비롯하여 근래 조성한 만불단과 벽사의 방사탑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도 모두가 현무암들이다.

관음사를 세운 안봉려관 스님이 관음기도를 했다는 해월굴도 화산활동으로 생긴 현무암 암굴이다. 제주도에서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작은 암굴이나 함정 등을 '궤'라고 한다.

종무소 옆에 큼지막한 왕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관음사 주변에는 왕벚나무를 비롯하여 올벚나무와 산벚나무 등 벚나무 종류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왕벚나무이다.

현재 관음사에서부터 해발 1000m에 이르는 구간은 어린 나무에서부터 200년생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왕벚나무들이 자생하고 있어서 관음사 숲이 일찍이 세계적인 왕벚나무 원산지로 인정 받고 있다.

산천단 주변 600년 된 여덟그루 곰솔나무 제주서 가장 커
해발 1000m에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는 세계가 인정
곶자왈은 오랜 세월 부엽토층이 쌓여 이뤄진 소중한 숲
최근 금강송 버금가는 소나무 발견 유전적 보존 가치 높아

또 하나, 경내에서 눈길을 끄는 노거수로는 밤나무가 있다. 수령 1백년에 가까운 밤나무들이 경내 곳곳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밤나무마다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 고착지의류(固着地衣類:Crustose lichenes)만으로도 연륜을 느끼게 한다.

관음사는 중산간 곶자왈지대에 터를 잡고 있다. 곶자왈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크고 작은 나무와 돌들이 어지럽게 헝클러진 숲을 가리킨다. 그러나, 식생적인 의미보다는 지형적인 의미가 더 강해서 '숲덤불로 뒤덮힌 돌밭'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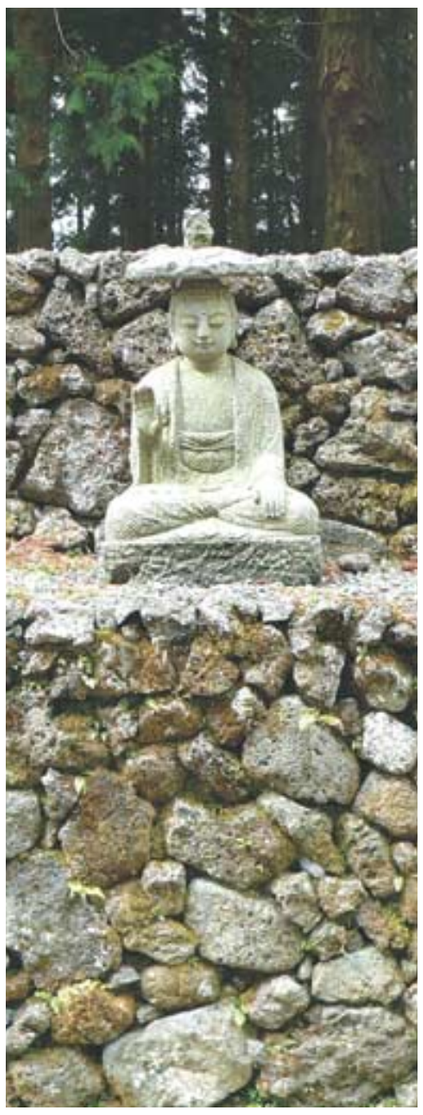
곶자왈은 용암이 크고 작은 돌과 바위로 쪼개지면서 돌밭을 이룬 곳으로, 본래 토양(흙) 한 줌 없는 척박한 지대였다. 이곳에 이끼류가 처음 들어와 수분을 저장하면서 초본들이 들어왔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초본들이 죽고 썩어서 얇은 부엽토층을 만들어 돌밭을 덮으면서 목본류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곶자왈의 숲은 다른 지역의 숲에 비해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고서야 이루어진 소중한 숲이다.

한라산 식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직분포대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해발 600m에서 1500m까지 중산간지대는 온대림이 자리한다. 관음사 주변과 이어진 국립공원 탐방로 일대도 난대림보다는 낙엽지는 온대활엽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내외에서 관찰되는 난대상록수로는 송악, 사스레피나무, 굴거리나무, 동백나무, 꽝꽝나무 등 몇 종에 불과하고 그나마 개체수도 적다.

이 밖에 서어나무를 비롯해 개서어나무, 졸참나무, 굴피나무, 덜꿩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산수국, 생강나무, 가막살나무, 단풍나무, 박쥐나무, 비목나무, 보리수나무, 윤노리나무, 청미래덩굴 같은 온대 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다.

대웅전과 나한전 지역 사이에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는 곰솔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씨를 받아두어도 좋을 만큼 탐이 나는 곰솔이다.

한라산의 소나무는 적송과 곰솔로 크게 나누어진다. 곰솔은 대개 800m 이하에서 나타나고, 적송은 주로 해발 1,400m 이하의 능선부에서 자라고 있다. 얼마 전, 금강송에 버금가는 질 좋은 소나무 숲이 한라산 정상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해발 1200m 주변에서 발견되어 주목 받은 적이 있다. 수령 40~50년생인 이 소나무들은 우리나라 소나무의 남방한계선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자연적 성장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전적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곶자왈 지대에 자리잡은 제주 관음사는 지천에 깔린 현무암을 이용해 보도석, 담장, 계단, 석축을 만들었다. 관음사 입구 석단에 모셔진 불상.

관음사 주변과 국립공원 탐방로 일대에는 야생화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복수초를 비롯해 현호색, 개별꽃, 족도리풀, 봄까치꽃, 노루귀, 만주바람꽃, 개구리발톱꽃, 긴잎제비꽃, 노란제비꽃, 족도리꽃, 남산제비꽃, 냉이꽃, 꽃마리, 자주괴불주머니 등이 매년 3월을 전후하여 꽃봉오리를 터뜨린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 양치류와 난초과 식물들이 죽지 않고 파랗게 겨울을 난다. 비비추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경내를 벗어난 숲속에서 이따금 관찰되는 비비추난은 여러해살이로, 잎이 비비추를 닮았다. 일엽초처럼 한 뿌리에 잎이 한 장씩만 돋는데, 봄이 좀더 무르익으면 거기서 꽃대 하나가 10개가 넘는 작은 꽃들을 조롱조롱 피운다.

관음사와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탐방로 숲에선 버섯들도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먼지버섯도 관음사 생태계의 한 식솔이다. 식용은 못하지만, 겨울인데도 꽃같은 자태로 눈길을 끈다. 아직 때가 일러 여름철새는 보이지 않고, 관음사 경내외에서 관찰되는 조류로는 방울새를 비롯한 텃새들이 주류를 이룬다.

방울새는 몸 길이가 15㎝ 가량되는 되새과의 조류이다. 몸색깔은 전반적으로 암갈색을 띄고, 날개 안쪽은 노란색, 꼬리는 검은 색이다. 큰 씨앗을 깨뜨리고 쉽게 부리가 짧고 뭉툭하게 생겼다. 동요에 나오는 바로 그 새이다.

관음사와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탐방로 숲에서 노루의 발자국이나 배설물을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가끔 노루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곶자왈 지대는 비가 와도 스펀지 같은 지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육지에서 흔히 보는 약수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관음사에는 경내에 물을 담은 영지(影池)가 널찍하니 조성되어 있다. 인공으로 조성한 이 영지는 네모난 방지(方池)로, 분수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쏘아올리고 있다.

관음사의 성역화사업은 일개 단위사찰의 불사가 아니라 제주도민이 함께 하는 국사(國事)이다. 처처소소에서 삽질을 하기 전에 한번더 심사숙고하는 친환경적 불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2006년 3월 8일자 대한불교 원효종 "공고" 무효 선언)

현대불교신문 569호(3월 15일자) 16면에 게재한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명의 "공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임시종정 취임에 즈음하여 종도제위에게 취임사를 하려는 것을 알고 본인 주변사람들이 본인의사를 추측하여 게재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아 래

취 임 사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의 대한불교원효종 종도 여러분! 병술년(丙戌年) 새봄을 맞이하여, 사찰운영과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새봄의 기운과 함께 일익 화창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은 법흥 종정스님 입적 이후 혼미를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종조 원효성사의 화쟁정신을 망각한 몇몇 지각없는 자들의 종권에 대한 야망으로 종단이 양분되어 심지어 법정시비까지 야기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일체 시비 분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단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고 화합된 종단을 이룩하라는 큰 뜻으로, 2005년 12월 14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비합 278 임시종정 선임" 결정으로 노납(老衲)이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일체의 분파(서울, 부산) 관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종정중심제의 종헌 종법에 따라 종단이 정상화 될때까지 공정하고 민주적인 신념으로 임시 종정체제로 운영할 것을 천명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김대관(벽송) 합장

불기 2550(2006)년 3월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 광성빌딩 503 전화 : 02)735-0501

공 고 <무효공고전>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종령 제 603-1호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의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 여러분! 병술년(丙戌年) 새봄을 맞이하여, 사찰 운영과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새봄의 기운과 함께 일익 화창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 그동안 우리 종단은 법흥 종정스님 입적 이후 혼미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증조 원효성사의 화쟁정신을 망각한 몇몇 지각없는 자들의 종권에 대한 야망으로 종단이 양분되어 심지어 법정시비 까지 야기되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일체 시비 분쟁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모두 삼보전에 참회하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 이제 종단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고 화합된 종단을 이룩하라는 큰 뜻으로, 2005년 12월 14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비합 278 임시종정 선임"결정으로 노납(老衲)이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일체의 분파(서울, 부산) 관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종정중심제의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이 정상화 될때까지 공정하고 민주적인 신념으로 임시종정 체제로 운영할 것을 천명합니다.

5. 임시 종정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무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임시종정체제에서는 모든 종무운영과 그 집행은 종헌, 종법에 따라 시행한다.
나. 모든 종무집행의 인장은 '임시종정' 직인과 실인(사인)을 사용하며 그 이전(임시종정 선임 판결이전) 시비 당사자들이 사용한 모든 인장은 무효임을 공고한다.
다. 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 종무사무소를 경주시에 둔다. (단, 종단이 정상화 되면 협의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옮길수 있다)
라. 전국의 본 종단 소속 사암을 지역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균형있게 교구를 편성하고 각 교구도 철저하게 조직하여 교구다운 교구로 활성화 한다.
마. 기존 등록사암과 입적(入籍)승려는 '서울측'(송무진측)이든 '부산측'(최덕산측)이든 신고만 하면 되고, 현재 분파되어 있는 여타 단체와 사암들 또는 신규가입을 원하는 사암이나 승려들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내면 심사후 긍정적으로 포용한다.
바. 새로운 화합으로 종단재건의 차원에서 모든 파벌관념을 초월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재교육을 통해서 종도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사. 종전과 같이 종단 임원 일부의 전횡으로 운영되던 종단을 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주종단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아. 금후 종헌종법에 따른 원만한 정상종단 구성을 위해서 전 종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일시와 장소는 추후 서면통지 및 신문공고토록 한다.
자. 위의 각 항목에 대한 시행은 신문공고일로부터 한다.

직인 계인 실인(사인)

불기 2950년(2006년) 3월 8일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대관(벽송)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502-2번지 대원사 내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무소 054)776-1757